

2013년 교과연구회
운영 결과물




발달을 이끄는 협력중심의 교육과정

2013년 12월

강원초등교육과정연구회(아이마중)

■ ■ ■ 차 례 ■ ■ ■

기초 발제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저(인간관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 5

■ 배희철 선생님(홍천 남산초등학교)

공개 강좌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학교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 19

■ 천보선 선생님(참교육연구소)

 **교육과정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과정과 운영의 실제** / 31

■ 이부영 선생님 (서울 강명초등학교)

 **함께 성장하는 학교 : 교육과정이야기(조현초등학교 중심으로)** / 48

■ 최 탁 선생님 (경기도 조현초등학교)

 **작은 학교의 특성을 담은 교육과정이란?** / 60

■ 윤승용 선생님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즐거운 배움! 행복한 성장! 함께 하는 우리!** / 81

■ 김소영 선생님, 남정아 선생님 (강릉 포남초등학교)

연구 보고서

 **발달을 이끄는 협력중심의 교육과정** / 127

■ 강원초등교육과정연구회(아이마중)

기초 발제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저(인간관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1. 교육과정은 인간 발달을 그려놓은 청사진입니다.

대다수 교사에게 교육과정은 그저 교과들을 차시에 따라 나열한 수업 진행을 위한 계획서일 뿐입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접할 뿐입니다. 이렇게 협동적 방식으로, 학년별로 나누어져 교육 노동에 종사하다보니 전체를 보는 시야를 잃어버리기 일 수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왜 전인교육이 법적 강제 사항인지, 전면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저 매 수업이 즐겁고 보람차게 진행되기만 하면 만족하는, 비유컨대 거대한 교육과정이라는 기계의 한 톱니바퀴로 전락하여 멈추지 않고 작동하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피로에 찌든 존재로 전락한 듯합니다. 전인교육, 전면적 발달이라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제기할 기력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최종 종착지점이 너무도 비인간적인 대학입시로 귀결되다보니, 대한민국 초등 교사들은 수업들이 모여 만들어낼 전체 교육과정의 모습에 대해 고민할 현실적 필요를 정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봉건적 신분 서열이 매겨지는 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 교사들은 나와 살을 맞대고 지낸 제자들이 미래에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인지상정의 심정을 공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교사에게 교육과정이 인간 발달을 체계적으로 그려놓은 청사진이라는 개념적, 추상적, 이론적 진술은 그저 공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척박한 현실이 우리의 인식을 방해하고 있지만, 현실의 요구에 굴복한 실천은, 경험적 원칙에 이끌려지는 실천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성해야 합니다. 혁신학교 운동을 통해, 특히 단위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최근에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실천의 영역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는 데 **인간관과 인식론**의 다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분류해낸 세 가지 교육과정은 편의상, 운명론적 교육과정, 기계론적 교육과정, 인생역정 교육과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각각은 관념론의 교육과정, 유물론의 교육과정, 변증법적 유물론의 교육과정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을 현실에 적용했던 대표적인 국가를 도식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열한다면, 미국, 소련, 핀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계론적 교육과정은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에 널리 알려진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너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게다가 결도 많이 다르지만 질적 비약을 도외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소련의 활동 이론에 근거한 교육과정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교육과정은 같은 **전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객관적인 지식과 능력이 학습자(인식 주체)의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능력은 교사가 인도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 교실에서 먼저 펼쳐져야 합니다. 성전과 같은 교과 지식, 매뉴얼과 같은 활동이 교육과정의 중심에,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 교과의 체계, 지식과 활동의 복잡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위계가 설정됩니다. 선행 지식을 배우지 못하면 수업 시간에 학습할 지식을 배울 수 없다는 논리적 전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진단하는 평가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시작을 배운 지식을 익혔는지를 묻는 평가가 교육활동의 끝을 장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자의 자유의지, 개별적 해석과 독립적인 결정과 같은 주관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술적으로 몰락의 길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독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천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학술적으로만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 다 인간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과 능력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전제를 실천의 영역에서 극한까지 밀고 나간 것이 악명 높은 **완전학습**입니다. 한국에도 70년도 소개되었습니다. 한 문제를 풀고 틀리면 몇 번 문제를 풀라고, 맞으면 몇 번 문제를 풀라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 문제들의 미로를 통과하여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주의적 교육과정의 **전제**는 인간 발달은 학습자가 연합한 지식의 양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발달을 양의 누적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학습을 통해 교육과정이 적시한 인간 발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논리에 따라 매 수업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수업 목표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세세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이 교육과정이 실천적으로 몰락하지 않고 여전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일제고사를 연상하기만 해도 그 위세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능력(고등정신기능)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지 소련의 교육과정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 발달의 질적 변화를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

점이었습니다. 헤겔이 자신이 살던 프러시아가 절대정신이 구현된 역사의 끝이라고 했듯이, 소련의 (레온티에프를 위시한) 학자들은 소비에트가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의 종착지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순이, 갈등이, 질적 도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라고 선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의 전면에 인간 발달의 핵심 요소들을 배치했다는 공적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결론 부분에 제시될 도표 내용 참고).

3. 운명론적 교육과정은 태생적 능력을 선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에 7차 교육과정으로 알려진 구성주의 교육과정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의 학문적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들이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가 드물 것입니다.

이 교육과정의 인식론적 전제는 지식과 능력은 학습자(인식 주체)가 주관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관념이라, 선형적 지식이라, 피아제의 인지구조라 명명하든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지식과 능력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가 모범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 활동은 시간 낭비이므로 회피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학습자가 알아야 할 객관적인 절대적인 지식과 능력을 위계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지도 교과서가 만들어 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이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발달 단계에 따라 위계를 두며 만들어집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그러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발점을 진단하는 진단평가가 아니라 발달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영재) 판별 검사가 중시됩니다.

수업의 결과는 발달되어 있는 인지 구조가 스키마를 제대로 형성했는가, 인지 구조가 정교하게 다듬어졌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발달된 인지 능력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정의적, 사회적 영역을 강조하는 수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는 틀렸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협동학습 방식으로 서로 의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조직합니다. 이전 교육과정의 패러다임과 달리 객관적인 성적, 점수라는 것이 이 교육과정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견하는, 창조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가 제 격이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여준 활동을 다각적으로 기술하는 방식만이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학적, 문화적 수업 분석이 이러한 맥락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주의 교육과정의 **전제**는 인간 발달은 학습자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발달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0년대 중반 인류가 도달한 인식 수준은 인지발달을 결정하는 인지 구조가 RNA에 의해 결정된다는 피아제의 진술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발달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교육 활동을 통해 인지구조를 정교하게 다듬어내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삶이란, 숙명적인 것이고 운명적인 것이라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뒷맛을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황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다는 중세 이전의 인간관으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핏줄이 아니라 유전자가 그 몽매한 인간관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이제 예민한 독자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왜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확산되고 있는지 그 정치교육학적 의미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가 행한 것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사가 보기에 너무도 명백하게 틀렸다 하더라도 그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발달이 그 모양인 학습자가 엉터리로 하는 것은 숙명적인 문제이고 인지발달이 반듯한 학습자가 틀린 것은 처음이라 그런 것이니 스스로 반성하여 발견하고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적 논리에 따라 매 수업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수업 목표가,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 정해질 수 없는 것이다. 학습자가 도달한 것이 목적지였으며, 수업 목표였으며, 성취 기준일 뿐입니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교사들은 구성주의 교육과정의 기초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은 발견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성주의 교육학에 대한 믿음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수업에서 대다수 학습자가 발견 학습을 하지 못하다보니, 유도된 발견학습이라는 모순 덩어리의 학습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선 보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학 수업이 그런 변종의 하나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상황을 잘 인식하게 하면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런 기적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앞서 적용한 국가의 사례들을 보면 너무 암울하기만 합니다.)

운명론적 교육과정의 최신 버전인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피아제의 빛나는 발상들을 일부 실천 교육학에 도입시켰습니다. 그 의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이라는 핵심 개념이 교육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큰 진전이었습니다. 피아제는 발달이 **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했고 그 질적 내용을 나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교육 활동의 옳은 방향을 정립하는데 너무도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학습자들이 양적인 누적 과정에서, 인지구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스키마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중대한 교육적 공헌입니다. 하지

만 이러한 발견이 개별화 교육이 아닌 수준별 교육으로 귀결된 것은 개별화가 질적으로 운명 지어진 태생적인 인지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치부한 이론적 문제점에서 기인한 한계였습니다.

또한 인과관계와 같은 인지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것은 새겨 두어야 지점이다. 보편적인 인지능력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 경향성이라는 것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인지능력이 전개되는 방향 정도의 의미로 인지발달 5단계는 수정되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발달하는 기제를, 계기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 인생역정 교육과정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비고츠키의 문화역사적 이론에 근거한 교육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적합한 사례가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2004년 핀란드 핵심교육과정은 다른 어떤 교육과정보다 이러한 색채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유로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할 협력중심 교육과정은 아마도 좀 더 강화된 이런 교육과정일 듯합니다.

이 교육과정의 인식론적 전제는 실재론입니다. 행동주의 교육과정이 전제한 객관적인 지식과 능력이 학습자(인식 주체)의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도 맞고,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전제한 지식과 능력은 학습자(인식 주체)가 주관적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옳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제 멋대로의 덧셈의 교환법칙을 구성해나가지만 객관적인 덧셈의 교환법칙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과 객관의 변증법적 통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주관적인 구성을 통해 오 개념에 빠지기 쉽고 교사는 이러한 오 개념을 제대로 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제대로 된 개념, 절대적 지식, 문화의 진수를 모범을 통해 학습자가 긴 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는 것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행동주의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교수를 강조하고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학습을 강조한다면, 문화역사적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을 통일된 현상으로 볼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학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구조, 교과 체계, 지식과 활동의 복잡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학습자가 충분히 익숙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정확히 말하면, 둘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역사적 교육과정의 전제는 인간 발달은 학습자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과 깊은 관

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구성주의 교육과정과 전면 배치되는 전제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과 능력을 다 배울 수 있다는 행동주의 교육과정의 전제도 부정합니다. 개별적인 학습자의 흥미와 사전 경험에 의해 각자 개별적인 발달 노선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인생역정에 따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는 지식과 능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강조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들입니다. 집중하는 (자발적 주의) 능력, 문화적인 기억 (논리적 기억) 능력, 개념 형성 능력, 의지 능력을 특히 강조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니, 창의 능력이니 하는 것을 교육과정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들이여 솔직하게 자문해보세요.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신 교사들 중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창의 능력을 발현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그런 걸 어린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적 폭력입니다.

여기서는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는 수업만이 좋은 수업이라고 합니다. 학습자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도 강제로 먹게 할 수 없다’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글의 성격상 비고츠키 교육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 차이점을 간결하여 도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기계론적 교육과정	운명론적 교육과정	인생역정 교육과정
인식론적 토대	유물론	관념론	변증법적 유물론
발달관	발달 = 학습	발달 > 학습	학습 > 발달
심리학	행동주의	구성주의	문화역사적 이론
태동한 국가	미국	미국	소비에트
유명한 학자	스키너	글라저펠트	
채택한 이론가	손다이크	피아제	비고츠키
원조	왓슨	칸트	마르크스
학습자관	수동적	독립적	능동적
학습 방법	완전 학습	발견 학습	협력 학습
수업 방법	교사 중심	학생 중심	협력 중심
전성기	20세기 초 중반부터	20세기 중 후반부터	21세기에 태동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저 Q&A 및 발제문 이외에 나온 이야기들

2013.4.1

Q) 기계론적 관점(행동주의)에서 평등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평등의 개념이 무엇인가? 능력이 제각각이라도 똑같이 도달한다는 의미인가?

A) 가르치는 자극에 따른 반응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왓슨은 갓난아이를 자신에게 주면 변호사건 도둑이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소비에트 건설 이후의 복지담론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인간은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기계론적 교육관이 있었고 현재도 성취기준, 평가기준 등에서 잔재하고 있다. 행동주의는 아직 살아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완전학습개념이 현장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전체 체제는 여전히 행동주의이다.)

▷수업운영 면에 있어서는 운명론적 교육관이 반영되고 있고, 수준별 수업 등이 진행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여러가지 관점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최악의 조합이다. 신자유주의를 반영하고 국가통제체제를 작동하면서도 말로는 개인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돌리고 있다.

▷2학년 지도서를 보면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행동주의를 비판하다 행동주의에서도 받아들일 것이 있다고 말한다. 평가, 진도표, 차시별지도, 시수표 등이 살아 있는 것이 그렇게 진술한 이유인 것 같다.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정착하면서 공교육이 슬럼화 되고 있다. 투트랙 체제로 가고 있다.

▷방과후가 강조되고 있다. 작은 곳에서 만족을 느끼도록 하면서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미국 교육과정의 변천 : 자본가 전면적 전복이 없었으나 교육기조가 바뀌어 왔다. 미국 교육과정도 개정 주기가 짧아져서 현재 4-5년에 한번씩 바뀌

고 있다.

형식도야



행동주의 : 실용 강조



피아제 : 평등개념, 인종간 교육의 평등 압력에서 담론만 확산



비고츠키 : 전체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능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확산 예)
핀란드

▷ 유로교육위원회

-서구 교육과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4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2015 협력
중심교육과정을 만들어 냄.

-예외 : 영국은 기술만 중심으로 능력을 이야기함.

-2004 핵심역량중심교육과정은 유럽각국에서 반영할 때 편차가 심함

<--핀란드-----영국-->

(핀란드에서 영국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짐.)

-각국의 편차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교육과정 자체를 협력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나열하는 것으로 바꿈. 교육과정에 활동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임.
(교육지책임)

▷ 한국의 교학 (교수학습)---> 교사의 표현에서부터 학생이 익히는 것까
지 필요함.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

▷ 통합의 관점

내용 통합 : 구성주의적 관점. 스스로 능력을 다듬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림.

능력 통합 : 비고츠키적.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통합.

예)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 정서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
을 재구성.

▷ 문건대로라면(인생역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가 제시되면 안 된다. 는
의견에 대한 내용.

- 영역과 주제가 있으면 교사가 구성해야 하는데 개별화, 집단화를 아울러

조직하기에는 교사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다. 제시된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 틀에 맞춰간다.

- 핀란드 교과서는 출판사 마다 경쟁한다. 검인정 체제.
- 인생역정 교육과정은 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교육과정이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인생역정 교육과정이 잘 드러난 수업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배우의 공동체 수업을 보면서 교수학습이 잘 드러난 수업을 많이 봄.

▷ 교육과정 - 능력

-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개념형성 능력이다. 개념 형성 능력을 위해 교육과정 체계들이 유용하기도 하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위계 체제 제시를 문제시 하지는 않는다.

▷ 실제 가능한가? 가능하다.

10명의 학생이 배우는 수준, 발달노선은 다르나 나름대로 학습을 한다.

↓

실제 40분 수업 운영시 구현하기가 어렵다.

↓

핵심적인 것이 어떤 “능력” 이라고 봤을 때 “파생되는 능력” (예)사회적응, 의사소통 능력 등)도 있기 때문에 발달노선이 다르게 개별화 되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 기계론 : 학습자 수동적

운명론 : 성인처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고 봄

인생역정 : 인간발달은 학습자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능력과 같은 관계가 있다.

<교사의 역할> : 협력 수업 예) 축구전략짜기

교사 모범→복잡한 것 교사가 함께 해보기→스스로 할 때도 교사와 했던 것처럼 아이들끼리도 해 나감→혼자서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게 됨(내재화 능력)

Q) 인생역정교육과정은 기계론과 운명론을 섞은 것인가?

A) 기계론 운명론의 옳은 점을 넣고 잘못된 것을 빼고 연결지으며 변증법적으로 나아가는 것.

▷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구성주의는 얼굴 마담이다. 전체들은 행동주의가 더 많다.

-지도서를 보면 구성주의 관점을 적어 놓았으나 교과서 체계, 교육과정 체계 등은 행동주의 적으로 되어 있다. 구성주의적 수업모형에 입각해서 차시 내용이 구성주의적인 수업모형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초등은 활동이 많다. 중등은 완전히 행동주의 적이다

▷ 구성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것도 비판이 필요함.

① 단결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가 생산이 안 된다.

개념 정리

교과서의 내용정리 부분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스스로 발견해야 하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라도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게 됨. 자사고 등은 익혀야 할 내용을 정확히 가르침.

-자사고는 구성주의(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세워졌으나 교육과정은 구성주의적으로 운영하지 않음.

② 구성주의로 만들어진 인간->개인주의적, 패배주의적이 되고 공동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 발견학습의 전제조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익혀야 할 것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학습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매 차시단위로 발견을 해야 한다면 실패경험만 쌓이게 된다.

▷ 교사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차시에 매달리게 한다.

Q) 자본주의는 분할 통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어찌보면 다른 것들을 모르게 한다. 교사는 전문가라는 말도 경계해야할 지점이 아닐까?

A) 협력이 나온 것도 전문가 이론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현실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체제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협력

이 대두되었다. 집단지성 중요시 SNS 확산 등.

▷관료에 대한 고찰

-관료들은 필요할 때만 교사를 전문가라고 얘기하며 부속품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는 노동자다. 교실의 벽에 갇혀 있으면 망한다.

공개 강좌

1. 강의 요청주제

학교교육계획서가 왜 협력을 중심으로 해야 하나? 왜 비고츠키여야 하나?

2. 제안 및 질문 내용

1) 현재 국가 교육과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2) 학교 교육과정에서 철학적 기저를 근접발달영역 이론으로 가고 싶은데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또한 핵심키워드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나?

(교육계획서에 비고츠키 철학과 관련된 구체적, 핵심적 단어의 나열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현도 중요하다.)

3) 왜 비고츠키는 대중화되지 못하는가?

<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학교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

천보선(참교육연구소)

1. 현행 국가교육과정의 문제점

1)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전교조교육과정연구팀, 2012)

교육과정의 문제점

1. 졸속, 비민주적 개정
2. 교육과정 대강화에 어긋나는, 교육과정의 획일화(전국 모든 학생들이 매시간 똑같은 내용으로 학습, 이에 따른 전국 일제고사)
3. 발달단계 무시하고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
4.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심화되는 입시교육(20% 증감으로 인한 국영수, 과학 시수 증가, 고교 전 학년 선택교육과정, 교육과정 자율학교 등)
5. 교사 구조 조정, 전문성 파괴 => 교사 노동권, 학생 교육권 침해
6. 말뿐인 창의·인성 교육(창의적 체험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7. 초등 영어수업시수 증가, 교원 충원 없이 영어회화전문강사 확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연계하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문제
8. 주5일 취지에 맞지 않는, 학습 부담만 늘어나는 교육과정(수업일수, 수업시수 증가 / 학습 내용 증가, 난이도 심화-초·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9. 학교 내, 학교 밖 전국 모든 학생을 줄 세우고 교육을 파행으로 내모는 내부형 일제고사(중간, 기말고사)와 외부형 일제고사(전국 학업성취도평가)
9. 성적 낮은 학생은 버리고 가는 영어, 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10. 사교육비 확대시키는 수능체제개편안
11. 졸속 교과서 개발
12. 준비되지 않은 검인정제 확대 => 교육청과 출판사에게 책임 전가
13. 국가주의와 시장이데올로기 교과서(도덕, 역사, 경제, 환경과녹색성장 교과서 문제, 교과서 수정시 장관 개입권 강화)

흔들리는 2009개정교육과정

1. 8과목 이내 집중이수 예외 인정(교양 과목은 별도)
2. 영어, 수학 수업시수 편중 지도 지침
3. 체육, 예술 교과 시수 보전 지침
4. 한국사 필수(고교 전체 선택교육과정화 정책과 모순)
5. 시도교육청 차원의 보완 대책
6. 인성교육 명분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개설 및 중학교 체육 수업 시수 확대, 체육·예술 교과목 8개 이내에서 제외 편성 가능으로 교육과정 총론 수정

2) 철학적 기초의 문제 : 배희철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저’ 참조

3)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기본 문제

- 발달 단계와 과정 무시 : 과도한 양과 난이도
 - 학교단위 자율성 제약 :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경직성, 수업일수, 수업시수 규정
 - 교과/교사 단위 자율성 제약 : 상급단위 선발체제, 일제식, 서열식(중등) 내부평가 - 진도수업체제
- => 유연하고 적절한 근접발달영역 창출 제한

2. 근접발달 영역과 학교교육과정의 구성

1) 근접발달영역의 개념

***근접발달영역 (발달의 다음 영역) : 협력과 모방**

- 교수학습과 발달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
- 훌륭한 교수학습은 근접발달영역(가능성)을 창출하여 발달을 이끄는 것
- 협력과 모방 : 발달의 기본과정

- ‘근접발달영역’은 이러한 ‘인간 발달에 있어 의식적 실천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개념화한 것. 비고츠키 이론에서는 ‘근접발달영역’ 개념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성과 성인의 적극적 개입의 지점을 강조.

- 진정한 ‘교수-학습 활동’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것이 ‘발달의 다음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것. 즉 교수-학습은 아동이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친구들과 협력할 때만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내적 발달 과정들을 일깨우게 되며, 이 과정들이 내재화되면 그것들은 아동의 독립적인 발달적 성취의 일부가 됨.

- 비고츠키에 따르면 어린이 생각발달에서 과학적 개념의 형성은 학교교육에서의 아동과 어른(교사)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과학적 개념은 ‘발달’하는 것이며 완성된 형태로 전수되는 과정이 결코 아님. 또한 과학적 개념의 형성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을 통해 지각,

기억, 주의 등의 정신기능 간의 관계가 변화되고 재구성됨.

“협력과 모방에 근거한 발달이 모든 특정한 인간 의식을 특징짓는 원천이다. 교수-학습에 근거한 발달은 근본이 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 연구의 핵심은 협력을 통하여 고등 발달 수준으로 아동을 끌어 올리는, 즉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방을 통해서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움직이게 하는 아동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의 중요성이다. 또한 이것이 근접발달영역이라는 개념의 내용이다.”

“그러나 아동이 배울 수 있을 때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 교수-학습은 모방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발달은 성숙한 기능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성숙하고 있는 기능들에 의존한다. 그 이유는 발달은 늘 아동에게서 아직 성숙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오늘 협력을 통해 할 줄 아는 것을 내일은 혼자서 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발달을 앞서서 발달의 전진을 이끄는 학습만이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학습이다. 교수는 모방이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비고츠키, 생각과 말 6장)

* 근접발달영역의 실천적 창출

- 비고츠키발달론의 중요한 개념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근접발달영역임. 그러면서도 가장 오해받고 왜곡되는 개념임.(개별화교육, 영재교육의 근거로 악용되기도 하며 ‘비계’ 설정논의로 왜곡)
- 학계에서 떠들썩하게 다루는 것과 달리 근접발달영역은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발달영역이라는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음. 실제 비고츠키는 근접발달영역에 대해 잠깐의 묘사를 했을 뿐 근접발달영역 자체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음.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임에도 협력적 발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
-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근접발달영역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와 실제적 창출의 문제임. 비고츠키의 실제 역점은 근접발달영역이 무엇인가라기 보다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있었음. 근접발달영역의 창출 문제에 대한 가장 세부적인 논의는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과의 관계를 다룰 때 등장. 근접발달영역은 능력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과정적 개념임.
- 그리고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의 총체적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차원적 개념임. 초등단계에서 개념 학습이 가능한 근접발달영역에 속한다고 표현. 즉 발달단계 수준에서부터 미시적인 특정한 개념 학습에 이르기까지 도입될 수 있는 것임.
- 근접발달영역은 현재적 발달과 미래를 위한 학습,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역사적 조건, 일상적 의식과 과학적 개념, 교사와 학생 등 발달적 대립물의 역동적 결합, 실천적 창출을 의미하는 것임.
- 근접발달영역 창출을 위한 몇 가지 원리들 : 관계의 긍정적 강화, 상호 간의 조건 이해, 협력과 모방의 원리, 개념과 일상, 활동의 결합, 역동적 재구성과 처방.....

2) 근접발달영역 창출에 대한 기본 관점과 학교교육과정

(1) 근접발달영역에 대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지점

- 근접학습영역이 아닌 '발달영역'
- 능력개념이 아닌 관계적, 과정적 개념
- 관계 형성에 기초
- 실천적 창출의 문제 : 구체적 조건과 매개 속에서 실천적으로 창출하는 '실제'의 문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님(전이의 어려움).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학교교육과정과 근접발달영역 창출의 키워드에 대해

- 근접발달영역의 실제적 창출을 학교교육계획으로 보장할 수는 없음. 그러나 교육실천의 방향과 지침을 설정한다는 차원의 의미는 있을 것임.

* 필요한 개념적 요소들

- 발달단계/적절한 교수-학습 운영(도움) : 발달상황에 입각한 양과 난이도의 적정화, 교과내용의 유연한 재구성
- 협력적 상호작용 : 개별교육/공동체교육의 결합, 상호존중, 관계 맺기와 소통, 관찰과 이해
- 제 영역과 교과, 활동의 결합 : 전인교육, 전면적 발달, 다양하고 튼튼한 소양과 기초. 교과와 체험, 지식과 활동의 결합, 통합(통섭)-주제 교육 등
- 발달의 기다림 : 발달과 근접발달영역 창출은 과정적임. 또한 발달과정은 다양하고 불균등. 따라서 발달을 과정적으로 이해하고 기다리는 관점 필요.

* 현단계 부각되어야 할 주요 개념

- 발달과 협력, 상호작용, 상호존중과 소통, 전인교육, 활동과 체험의 강조, 통합(통섭)의 강조 등은 혁신학교 등에서 이미 상당정도 반영되고 있음.
- 근접발달영역 창출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부분은 조건 형성의 문제라고 생각됨. 근접발달영역 창출을 달리 표현하면 결국 '적절한 도움주기'라 할 수 있는데 적절한 도움을 위한 노력을 제한하는 조건들이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진도와 편제표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 발달상황을 벗어난 교육과정과 진도에 매일 경우 적절한 도움주기는 구조적으로 제약됨. 따라서 근접발달영역 창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임. 그를 통해 내용-방법-실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
- 이와 관련 발달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 '적절한 도움주기' 등을 워딩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관점의 문제로 '과정적 시각'의 문제임. 발달과정과 근접발달영역 창출은 수업장면의 문제로 파악할 수 없음. 어떤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참여확대와 발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근접발달영역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며 반대로 초반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후반에 발달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근접발달영역 창출에 성공한 것임. 따라서 근접발달영역 창출을 과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확립이 필요함. 이와 관련한 워딩으로는 적절한 것이 쉽지 않은데...'기다림의 교육', '수행적(과정적) 시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 적절한 표현이 필요할 듯.

-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훈련'이 핵심키워드라 생각됨. 근접발달영역은 아직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신기능으로 내면화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요구함.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훈련을 통해 근접발달영역이 창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거의 교육계획에 '사고발달'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는 대부분 고통스런 학습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일부에서는 영재교육 식의 '사고훈련'을 생각함. 생각훈련을 보편적이고 즐거운 과정으로 규정해야 함. '즐거운 생각훈련'을 담아내는 교수-학습 지향을 워딩으로 생각해 보았음.

* 교사들의 관점과 실천

- 분명히 해야 할 문제는 올바른 근접발달영역 창출의 지향을 교육계획에 담아낸다 하더라도 실제적 창출은 별개라는 것임. 발달을 선도하고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관점과 노력이 요청됨. 이를 위해서는 0 학습자에 대한 관찰과 이해(발달상황에 대한 진단) + 자신과 내용(교육과정)에 대한 진단 0 상황에 맞는 교수-학습과정의 설정(내용과 방법의 재구성) 0 과정적 시각과 교육실천의 지속적 재구성 등이 필요함.

3. 비고츠키는 왜 대중화되지 못하는가?

-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을 뿐, 현재 빠른 속도로 확산 중
- 이미 핵심개념인 발달과 협력 모토화
- 관계와 과정 개념의 부각 필요

참고)

비고츠키 발달이론의 교육실천에서의 적용점

1. 비고츠키교육학의 적용 사례

가. 국가적 공교육 차원 : 핀란드 등 북구 교육

익히 알려졌다시피 핀란드교육은 비고츠키교육학에 기반하여 교육개혁이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핀란드교육은 국가단위 공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비고츠키교육학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핀란드교육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자.

< 핀란드 초등교육과정 > (배희철 '핀란드교육과정과 비고츠키' (2010) 중에서 요약)

* 핀란드 초등교육과정의 기본 특징

- 학습의 개념, 학습 환경, 학교 문화,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으로 구성
-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 없음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지침”도 없음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다양한 지원 방안 설명
- 평가가 유연. 학업성취도 수준을 매학기, 매 학년 단위로 설정하지 않음. 국어는 2학년 말, 5학년말, 9학년말 세 번 정하고 있고, 음악은 4학년말, 9학년말 두 번 정하는 방식. 9학년말에는 대학진학을 위해 총괄평가 8등급의 기준을 제시.
- 교과 내용에 대한 진술이 우리 교육과정에 비해 매우 간략.

*** 학습의 개념(교육과정에 학습의 개념 설명)**

- 학습이 지식과 기능을 형성하는 개별적이며 공동체적인 과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 개입이 일어난다.
- 학습은 교사의 안내 하에 혹은 독자적으로 혹은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유목적적 활동이다.
- 새로운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학습하는 습관’도 학습되어야 한다.
- 학습은 학생의 능동적이고 목적 있는 활동의 결과이다. 그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기존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해야 할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한다. 학습의 일반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만, 학습은 학습자의 선행 지식과 동기, 학습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 상호협력을 통해 일어나는 학습은 개별 학습에 도움이 된다. 모든 형태의 학습은 독립적 혹은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과정이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학습의 출발점이므로 다양한 학습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학습은 문화와 그 문화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 약간의 해설**

지면 한계로 기본특징과 학습개념에 관한 부분만 제시했지만 핀란드교육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핀란드교육과정은 우리와 달리 매우 유연하다. 편제표와 편성지침이 없고 교과내용도 간략하다. 이는 발달적 상황에 맞는 근접발달영역의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창출을 위한 것이다. 우리처럼 교과서와 진도를 무조건 나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 평가의 의미와 체제도 전혀 다르다. 공식적 평가는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교과마다 시기도 다르다. 이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관찰 등 교수-학습과정과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피드백되는 과정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론 서열적 평가는 없다. 핀란드 평가체제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과정의 일부로서 발달가능성에 대한 진단, 효과적 도움주기를 위한 것으로 평가가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함께 발달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설정되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항목 역시 특징적이다.

‘학습의 개념’을 보면 발달이 개별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동료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협력이 개별학습에도 도움이 됨을 적시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학습의 ‘목적의식성’과 ‘학습하는 습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고츠키의 발달지향적 인간관이 녹아들어간 것으로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인간을 설정한 것이다.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핀란드교육에서는 개별성과 다양성 역시 강조한다. 협력과 개별성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교육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이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수립하는 개별 학습계획이다. 개별 학습계획은 효과적인 근접발달영역의 창출, 능동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학습을 복돋는다.

이러한 관점과 방향하에 개별 교과에서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고등정신기능 형성을 중심으

로 학습목표와 주제를 설정한다. 예컨대 국어의 경우 '의사소통기능' '상호작용능력'을 단계별로 구체화하며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 '모국어의 중요성' '문화적 정체성'등을 강조한다. 의사소통과 주의집중, 학습을 통한 만족과 기쁨, 협력적 활동, 생각하는 습관 등이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핀란드교육에 대한 비고츠키의 영향은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학제를 포함한 기본 골격과 세부적인 교수-학습이론에 이르기까지 공교육 전반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성인교육과 노동권 문제 등 사회전반적 정책에도 개입한다.

나. 학교개혁 모델 : 사토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

최근 비고츠키교육학을 적용한 '학교개혁 및 교수-학습론'으로 부상한 것으로 사토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가 있다. 우선 배움의 공동체의 개요를 대강 살펴보자.

< 배움의 공동체 개요 > (손우정, '배움의 공동체와 학교혁신'(2010) 중에서 요약)

0 이론적 원리

★ 철학적 원리 : '공공성 (public philosophy)', '민주주의(democracy)', '탁월성 (excellence)'(타인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의미에서의 우수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추구한다는 의미)의 세 가지로 제시

★ '배움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개혁을 위한 우선과제 설정

- 교실에서의 배움을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실천으로 재구성
- 학교를 교사들이 공동으로 함께 성장하는 장소로 개혁하는 일. 교사 상호간에 전문가로서 서로 성장하는 '동료성(collegiality)'을 형성
- 학부모와 시민이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활동에 참가
- 학교조직의 구조와 교육행정과의 관계를 민주화
- 학교를 자율적인 '전문가조직'으로 재조직하는 일. 그 전문가란 '기술적 숙달자'가 아니라 '반성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로서의 전문가를 의미.
- 수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내연수

★ '구성주의'학습론

- 구성주의에서 '배움' : 소정의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이 아니라 학습자가 사물이나 사람을 매개로 한 활동을 통해서 의미와 관계를 구성하는 일을 의미
- Vygotsky의 배움의 이론에 근거 : '심리적 도구'로서의 언어에 의한 의미의 구성. 발달은 우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외언'의 획득으로서 성립하고 다음으로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내언'으로 '내화'하면서 진행. 학습자의 배움이 '근접발달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 Vygotsky의 이론은 언어를 매개로 한 활동적이고 협동적인 배움을 추진하고 협동학습이나 동료지도(peer tutoring)를 도입한 수업을 촉진. Vygotsky의 배움의 이론은 사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대상적 활동과 친구와 의사소통을 전개하는 대인관계와 자기 사고를 구성하는 자기 내 관계로 구성.

★ '배움'의 재개념화

- 사토 마나부(佐藤学, 1999) 는 배움의 대화적 구조에 착안하여 '배움'을 ①교육내용인 대상세계(사물)와의 만남과 대화, ②그 과정에서 수행되는 다른 학습자의 인식이나 교사의 인식과의 만남

과 대화, ③새로운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로 특징지움. -> '배움'은 세계만들기(인지적 실천)와 동료만들기(대인적 실천)와 자기만들기(자기내적 실천)의 세 가지 차원에 걸친 대화적 실천에 의해서 수행되며 이 세 가지 대화적 실천이 삼위일체가 되어 '의미와 관계를 엮어가는 영속적인 과정'이 배움이라는 것. 사물과 도구와 교재와 사람으로 '매개된 활동이 바로 배움.

0 활동·협동·표현의 수업만들기

1. 활동적인 배움 :

- 수업에 '주변 사물과의 접촉', '구체물의 조작', '체험'을 포함시킬 것.
- 소재(텍스트)와 몇 번이고 만나게 하기

2. '협동적인 배움' : 모둠 구성원은 가능하면 4명이 가장 적절하며 남녀 혼합을 기본

- ① 개인과 개인의 생각을 서로 조정하는 협동적인 탐구
- ② 상호교류하는 일
- ③ ㄷ자형 책상배치와 남녀혼합 4인 모듬구성

3. '표현적인 배움'

- 가. '집단 속의 나'를 표현하게 하자
- 나. 자기답게 배우게 하자
- 다. 친구로부터 촉발된 표현

0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내연수

- 수업관찰 및 기록, 일상적인 수업연수 강조. 사전 검토보다는 사후 반성에 주력.

0 수업에서의 교사의 역할 : 듣기, 연결짓기, 되돌리기 등.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시.

0 배움의 공동체의 완성 : 학습참가

- 학습참가 : "교사와 아동 이외의 제3자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진행해 가는 수업"
- 종래의 수업참관처럼 학부모들이 단지 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학습 속에 학부모들이 함께 참가하자는 바람에서 출발한 개념
- 학습참가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관계의 변화, 학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 아이와 부모의 관계 변화, 수업의 가능성 확대, 수업에 대한 교사의 성찰기회 제공 등을 추구

* 배움의 공동체와 비고츠키

사토마나부의 배움의 공동체는 수업개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학교개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협력', '언어와 매개', '근접발달영역 창출로서의 도움주기' '반성적 활동' 등 몇 가지 주요한 비고츠키교육학의 개념을 수업 및 학교개혁의 근간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4인 모듬활동, ㄷ자형 책상배치, 수업관찰과 기록의 방법,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수업과 학교활동 참여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배움의 공동체는 일제식, 강의식 수업이 강요되는 일본,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적 교육현실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개별화된 경쟁에 대해 협력을 제시하고, 무매개적, 일방적, 강의식 수업방식에 대해 매개적 활동과 모듬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적 수업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지닌다. 그러한 경쟁적, 일방적, 강의식 수업이 강제되는 평가체제, 교육과정, 선발체제가 함께 변화되지 않을 경우 현실가능성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배움의 공동체는 핀란드의 예와 달리 교육전체의 변화가 아니라 '학교

내 개혁'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성과 역시 상황에 따라 다기하게 나타난다.

비고츠키의 실천적 적용과 관련 배움의 공동체는 제한적, 부분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협력과 매개적, 반성적 활동 등 주요 개념과 원리들의 적용 대상을 '수업'과 '학교'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발달단계와 고등정신기능의 관계, 제 기능의 총체적 연관, 역동적인 생애발달의 원리, 교수-학습의 통일성 등 주요한 핵심개념과 원리들이 빠져 있다.

또한 수업과 관련해서도 비고츠키가 일면적으로 적용되는 점들이 있다. 비고츠키 협력교육에서 협력은 학생간의 협력 뿐 아니라 일차적으로 교사-학생 간 협력이 중요하며, 발달을 이끄는 교사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배움의 공동체에서 교사는 지원, 조력자로 위치하고 선도적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비고츠키의 통일된 '교수-학습'이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분리된 채 학습자의 배움으로 중심이 이동되어 있다. 이는 비고츠키의 구성주의적 해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사토마나부는 비고츠키를 구성주의의 대표자로 위치시키면서 구성주의의 학습자중심주의와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비고츠키는 학습자중심주의가 아니며 교수-학습과정의 통일성, 교사의 선도성을 강조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나친 정식화(모델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비고츠키는 발달에 이르는 과정은 수천, 수만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수-학습과정을 정식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교사, 학생, 주제영역 등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학습, 상호작용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4인모둠, ㄷ자형 배치 등은 상황에 따라 적절할 수도 있지만 또한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배움의 공동체에서 제시한 방안을 우리는 하나의 예시로 바라보아야 하며 중요한 것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비고츠키의 실천적 적용과 관련 배움의 공동체는 비고츠키를 구체화하는 노력인 동시에 협소화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배움의 공동체에서 제기하는 방안들을 정식화된 모델로 경직되게 바라보기 보다는 협력, 매개, 활동 등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고민이 중요하며 이후 비고츠키교육학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적용의 영역과 범위를 교육전반으로 재구성,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다. 기타 사례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비고츠키를 사회적구성주의의 원조로 위치시키면서 비고츠키의 주요 개념을 적용한 교수-학습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화학습법(월취)
- 도제 학습법(러고프)
- 소집단 프로젝트학습(말라구찌) :

월취의 대화학습법은 비고츠키의 역동적 상호작용 개념을 적용하여 대화학습법을 제시한 것이고 러고프는 근접발달영역 창출에 초점을 두면서 '시범 -> 도움주기 -> 혼자하기'로 이루어지는 도제 학습법을 제안하였다. 말라구찌의 소집단 프로젝트학습은 동료 간 협력학습에 초점을 둔 방안으로서 '주제 평가(흥미도 등) -> 과제 해결 전개 -> 정리, 표현(전시회,

발표회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더 많은 교수-학습 모델이 있다.

이 방안들은 협력, 상호작용, 근접발달영역 등 비고츠키의 주요 개념들을 교수-학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안된 것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비고츠키의 주요 개념의 일부만을 도입한 것으로서 매우 부분적인 적용이라는 한계들을 지니며 전체적 관점에서는 구성주의적 왜곡의 문제점을 지닌다.

2. 비고츠키교육학의 실천적 적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고츠키교육학의 실천적 적용 문제

가. 적용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핀란드교육과 같이 하나의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비고츠키교육학의 제한적, 부분적 적용들이다. 핀란드교육도 뜯어본다면 핵심원리와 방향의 전반적 적용이고, 그러한 노력의 경향이지 완전한 적용은 아닐 것이다. 사회현상에서 어떤 이론이 실천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적용되는 경우란 없다. 그러나 하나의 전체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교육현상에서 어떤 원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한계를 지닌다.

제한적, 부분적 적용은 대상의 한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실천 자체도 한계지우거나 왜곡시킨다. 더구나 한국교육에서 대학서열화와 입시를 그대로 두고서 교육실천의 실제적 변화를 꿈꾸는 것은 낭만적 환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아직 핀란드처럼 국가전체 차원에서 비고츠키교육학을 적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당장 매일매일 살아가는 입장에서 수업상황과 학교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비고츠키개념을 적용한 몇 가지 교수-학습 모형들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된다면 유의미할 수도 있다.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형이 아니라 ‘적절함에 대한 판단’이다.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 모든 교과 및 주제 영역에 맞는 정식화된 교수-학습 모델이란 있을 수 없다. 강의식이든, 대화식이든, 모둠수업이든, 도제식이든, 프로젝트학습이든 교사와 학생들의 구체적 상황, 교과 및 주제의 성격에 맞게 수업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동일한 수업모형도 상황에 따라 천당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나. 일반화된 모델이 아니라 상황과 학습자의 이해이다.

사실 제반의 수업모형은 비고츠키교육학 이전부터 있어 온 방식이다. 실제로는 비고츠키교육학의 개념을 빌어 그러한 방식들의 교육적 의미를 재구성했을 뿐이다.

문제는 적절함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선 학습자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과 주변 여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비고츠키의 관점과 관련 배움의 공동체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4인모듬이나 ㄷ자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관찰’의 강조에 있다. 그런데 관찰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냥 쳐다본다고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준 없는 관찰은 생활기록부에 서술하는 수준의 태도나 능력에 대한 포괄적 판단만을 가능케 할 뿐이다. 교육적 이해를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입각한 정신기능을 기준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 발달적 차원에서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다. 비고츠키교육학의 관점에서 교육노동의 전문성이란 학습자 이해의 전문성이다.

다. 관점과 원리의 적용이다.

어떤 수업모형이나 정식화된 활동양식에 초점을 두고 비고츠키의 실천적 적용 여부를 찾는 것은 비고츠키교육학 나아가 이론과 실천의 관계 일반에 대한 오해이다. 어떤 이론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다양한 상황과 상관없이 일률적 방식의 실천으로 전화될 수는 없다. 더구나 교수-학습 과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라는 변수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른 조건의 다른 곳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학습모형을 그냥 적용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속에서 만이 우리는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고츠키교육학의 실천적 적용은 수업모형이 아니라 관점과 원리, 방향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관점과 원리의 적용과정으로 볼 때 비고츠키교육학의 실천은 어려워지는 동시에 훨씬 용이해지기도 한다. 어떤 정식화된 방식을 찾아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어려워지지만 다양한 층위에서 조금씩 혹은 급격하게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해진다. 예컨대 발달이라는 개념만 보더라도 '학업성취도'에서 '발달'로 교육을 바라보는 근본시각을 급격하게 전환하기도 하고, 미시적으로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발달기능을 기준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점차 익혀나갈 수도 있다. 협력의 문제만 하더라도 온전한 협력수업을 바로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상호간의 긍정적 태도와 대화 등 상호작용의 폭을 점차 넓여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는 시적이 될 수 있다.

* 관점의 재구성

- 학업성취도에서 발달로
- 경쟁에서 협력으로

관점의 문제를 비실천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관점의 재구성이야말로 새로운 실천의 동력이며 시작이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 심화되고 재구성된다. 관점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교육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진전시키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대화의 내용을 상승시키며, 행동양식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아가 집단적 실천을 통해 상황전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 학습자 이해의 변화

- 발달기능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관찰과 이해
- 태도가 아니라 기능이다.

제도변화나 수업모형의 변화 이전에 미시적으로 아이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불손한 듯 한 언사나 행동의 대부분은 의사

소통기능의 미발달로 인한 것인데 이를 태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능의 문제로 볼 때 훨씬 더그렵고 감정적이지 않게 대할 수 있다. 이는 관계의 악화를 막아주고 이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감정적, 적대적 상호작용을 줄여주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확대함으로써 교사-학생 간 관계가 점차 개선될 수 있다. 이는 비고츠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실천적 적용이며 변화이다.

좀 더 심화되고 체계적인 부분은 발달기준을 중심으로 한 관찰과 이해의 확대이다. 예컨대 초등단계 발달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주의집중기능' '자기규제력' '의사소통기능' 등이 있는데 이는 학교학습과 공동체생활 그리고 협력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다. 발달단계에 따른 약간의 세부 기준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경우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이해가 체계화된다. 교육적 이해가 진전될 경우 그에 따른 처방이 훨씬 명료하고 구체화될 수 있다. 학부 모와의 관계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적 이해는 신뢰의 강화로 연결된다. 그리고 기능의 미성숙 상황에 대해 그를 감안한 대응을 해나감으로써 상호작용의 적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는 단번에 될 수 없는 점진적 과정이며 과도한 학생수 등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발달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으며 이 역시 비고츠키를 통해 경험하는 변화이다.

* 관계개선과 상호작용의 확대

비고츠키 협력교육은 어느날 갑자기 비협력에서 협력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협력의 폭과 수준을 높여 나가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교사-학생 그리고 동료 간 관계는 이미 기본적인 협력이 내재되어 있다. 서로 간에 상호 인정하고 최소한의 협력을 주고 받지 않는다면 관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문제는 어떻게 협력을 높여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하고 접촉면을 넓히면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의 혁신학교 선사고의 사례는 비고츠키교육학의 작지만 좋은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선사고에서는 교과부 식의 복수담임제가 아니라 실제로 반을 둘로 나누고 담임 교사를 배치해 보았는데, 여건 상 수업은 묶어서 했지만 담임-학급활동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줄면서 접촉면이 확대되고 상호이해와 긍정적 태도가 강화되면서 교사-학생 관계의 전반적 개선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담임부담이 줄고 학급학생과의 관계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학교전체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는 수업과 학생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선사고 사례는 관계 개선과 상호작용확대의 선순환적 진행을 보여준다. 선사고는 접촉면의 확대에서 출발하여 관계개선으로 나아갔지만 개별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나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작은 시도들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대화식교수법을 도입하고자 할 때 어느날 갑자기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답의 빈도를 점차 높여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상호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물론 자기스타일과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관계와 상호작용의 선순환적 확대를 위한 노력을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선사고처럼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관계개선과 협력교육의 성립에는 경쟁과 입시교육, 경직된 교육과정과 일제식평가체제라는 구조적 장애가 있다. 따라서 협력교육 수립을 위한 노력은 현장에서의 미시적 노력과 시스템 변화의 노력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학교·학년(급)교육과정 구성방법에 대해서

서울강명초등학교 교사 이 부 영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를 보면 교무부, 연구부, 00부.....해서 학교교육이 ‘교육’이 아닌 ‘업무’만 있고, 학교마다 서로 베껴서 다 비슷비슷하다. 심지어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속에 다른 지역과 학교 이름과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거나 용어와 내용, 국가교육과정 내용도 옛날 것 그대로인 것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분량은 400쪽 안팎이 될 정도로 두꺼워서 인쇄비가 300만원을 훌쩍 넘기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두껍기만할 뿐 대부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또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다보니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과 실제 교육모습은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 책자 구성내용을 보면서, 학교교육과정 책자의 모습이 바로 그 학교의 모습,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교육과정부장으로서 세 해째 학교교육과정 책자 구성을 책임지고 작성하면서 학교와 교육의 혁신을 할 때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 구성에 관한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를 구성할 때, 기존의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만의 ‘철학’과 ‘교육’을 담아낼 수 없을까를 고민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3년째 서울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본교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을 세 해째 진행해 온 과정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II. 학교와 학년(급)교육과정운영 계획서에 대한 기본 질문

학교와 학년교육과정운영 계획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는 왜,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

둘째, 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는 누가 만드는가?

셋째, 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하는가?

넷째, 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는 언제 만드는가?

다섯째, 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Ⅲ. 학교·학년(급)교육과정 운영계획서의 문제와 대안

두껍긴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인가? 학교교육계획서인가?

현재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과 ‘학교교육계획서’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두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가 정리가 된다. 내 생각에는 ‘학교교육계획서’라 해서 ‘업무부 계획서’까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그대로 실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업무부 계획서는 별도로 파일로 놔 주고(또는 한 부정도 인쇄해서 놔두고)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는 업무부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담아내야 한다고 본다. 이름도 ‘운영계획’이나 ‘교육계획서’라는 말을 빼고, ‘학교교육과정’이라고 붙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2. 학교교육과정 운영 평가와 계획 수립 절차의 문제

대부분 학교에서 12월에 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평가와 다음 학년도 계획 수립시 교사들이 배제된 채, 관리자와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서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또는 간단한 문서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 수립 때 일반교사가 배제되는 것이 현재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서가 학교교육과 겹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12월(원래는 1월 방학 때 해야맞지만)에 학교교육과정 평가와 다음해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전 과정에 전체 교사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서 학교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학교장 경영방침이 들어가는 문제

학교마다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관련법, 각시도교육청 방향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학교장 교육 경영관’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장이 바뀌면 바로 ‘학교장 교육 경영관’이 바뀌어서 학교가 갑자기 확 바뀐다. 요즘 ‘브랜드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학교에서 내 세우는 구호도 바로 달라진다. 이러다보니 학교는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확확 바뀌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자, 학교장이 바뀌면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가? 학교장에 따라 교육내용이 좌지우지되어야하는가? 아니다! 학교장의 생각에 따라 학교 교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더라도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져야한다. 학교장은 자기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를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학교장 교육 경영관’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다.

4.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상부기관인 교육청의 시책을 반영해야하는 문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정책이 아래로부터의 교육정책이 아닌 위로부터 쏘

아내는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학교장이 바뀌면 학교교육이 확확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바뀌면 시도교육이 확확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부기관인 교육청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지시하고 시달한다. 학교평가에 반영한다하니 학교에서 안 넣을 도리가 없다.(2013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뀌면서 ‘정약용 프로젝트’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라고 해서 학교들이 온갖 난리를 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말은 권장이지만, **교육 몇 시간, @@교육 몇 시간..... 넣으라고 온갖 지침이 쏟아져 내려온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학교교육에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이 넣으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다.

5.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한 문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은 작성하기만 힘들지 별 필요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학교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만 넣을 수 있게 내용의 다이어트가 절실하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무엇을 꼭 넣어야 하고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의 학교교육과정 차례를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다.

-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수립에서 swot 분석은 필요한가?
- 학교교육과정운영평가 설문조사결과, 학교장 경영관, 학교 예산 편성, 교과목별 목표 내용체계는 넣어야 하나?
- 각 업무부서별 계획은 다 넣어야 하나?
- 중장기 발전계획은 꼭 넣어야 하나? ‘중장기’의 기준은 무엇인가? 교장 임기기간인가?
-

6. 편집 방법의 문제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보면, 모두다 똑같이 A4 사이즈이다. B5사이즈나 신국판 사이즈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 크기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을 보면 편집이 얼마나 황폐한지 모른다. 실제로 교육부 100대 교육과정 선정과정을 봐도 그렇고 내용보다 편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이 내용이 중요하지 편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한다. 학교교육과정 편집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7. 인쇄책자의 문제

학교교육과정을 인쇄할 때 드는 비용이 매우 많다. 그런데 교육청은 인쇄책자를 내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파일도 올려놓으라고 한다. 교육청에서 인쇄본을 내라고 하지 말고 파일상태로만 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획은 계획일 뿐 얼마든지 도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8.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그대로 지키는 문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다.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치밀하게 짜 넣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은 1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 움푹달라지지 못하게 숨통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초에 작성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계획’이고, 얼마든지 바꾸어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서울강명초 학교·학년(급) 교육과정 구성 사례

1. 우리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과정

대부분의 일반 학교들은 먼저 관리자와 부장들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만든다. 교사들은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낸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학년과 학급 교육과정을 짜게 된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와 반대로 진행된다.

먼저 12월에 하는 학교교육과정 평가회에서 전체 교사들이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다음 해에 학교와 학년에서 할 일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것을 학년교육과정에 담고,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나는 교사들이 함께 의논한 학교전체 내용을 담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편집하면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체제로 운영되는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교사들은 이미 논의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사들의 논의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교운영계획서가 다른 학교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학교장 경영방침’이다. 다른 학교 학교운영계획서에는 빠짐없이 ‘학교장 경영방침’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학교장 경영방침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아니라, 전체 교사들의 논의로 이루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교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답답하다.)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나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편집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점은 우리 학교 교사들이 여러 날을 함께 논의한 결과를 어떻게 잘 담느냐이다. 기존의 다른 학교 교육계획서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베끼지 않고, 우리 학교의 철학을 담은 우리 학교만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내느라 표 하나하나 우리 학교 내용에 맞게 새로 다 만들고 바꾸었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다. 그러면서 수많은 날 동안 오며가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용을 앞뒤로 이리저리 바꾸고 또 바꾸기를 여러 번 하는 바람에 다른 학교보다 학교운영계획서 발행이 늦어졌다.

교육청에서는 제출기일이 넘었다고 빨리 안 낸다고 독촉을 했지만, 도저히 정리가 덜 된 채로 서둘러서 만들거나 또는 다른 학교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낼 수 없었기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나온 것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이다.

<진행 과정>

- 12월 중 : 학교교육과정 만족도 조사(교사, 학부모, 학생)
 - : 학교교육과정 운영평가(학습동아리, 학년교육과정운영, 업무부)
 - : 다음 학년도 계획 세우기(학사일정 외)-전체 교사회
- 12월 말 : 부장과 학년 결정- 전체 교사회
- 1월 중 : 학년 연계활동 정리(체험학습, 문예체교육, 기본교과활동) -교육과정 TF
 - 당해 년도 교육과정 최종 정리. 파일 제출 -구동학년
 - 신학년 계획 -신동학년
- 2월 중 : 신학년 교사들에게 구학년 교육과정 전달연수 -신,구동학년
 - : 신학년도 교육과정 틀 짜기 -신동학년
 - : 업무조정 -신업무부장
 - : 구학년도 업무부서별 계획 정리해서 신업무부장한테 넘기기-구업무부장
 - : 신학년(급)교육과정 기본틀 마련해서 알리기-교육과정부장
- 3월 초 : 신학년도 업무계획 내부결재받고 교육과정부장한테 넘기기-신업무부장
- 3월 중 : 신학년도 학년(급)교육과정 정리해서 교육과정부장한테 넘기기-교육과정부장
 - : 신학년도 학년(급)교육과정 내부결재 맡기 -교육과정부장
 - : 학교교육과정 정리하기-교육과정부장, 교사회

2. 우리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책자 구성 과정- 3년의 흐름

첫 해인 2011년에는 구성체제를 업무 중심이 아닌 서울형 혁신학교 6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업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 보자고 했다. 전체 쪽수는 178쪽이었다. 진행해 보니 서울형 혁신학교 6대 과제로 구성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내용을 담는데 한계가 있었다.

첫 해에는 학년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완성하지 않고, 1년 동안 필요한 내용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실제 진행한 내용을 채워갔다. 그래서 학년교육과정은 1년이 지난 뒤인 이듬해 1월말에 정리를 했다. 이후부터 학년교육과정을 1년이 지난 뒤에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 해인 2012년도에는 학교교육과정 책자 구성에 대한 TF팀을 꾸려서 검토를 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 구성 체제를 우리 학교 네 가지 바탕으로 다시 잡았다. 네 번째 바탕에 우리 학교 교육내용들을 간략하게 담고, 나머지 업무부 계획은 결재를 맡아서 언제든지 별도로 볼 수 있게 파일로 올려 두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에는 업무부 계획을 모두 담지 않고, 중점내용만 강명교육 네 가지 바탕으로 묶으면서 네 가지 바탕에 자세하게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은 별도로 ‘교육과정 운영지원 체계’라는 장으로 빼 두었다. 그리고 학교 현황은 뒤쪽에 ‘부록’으로 빼두었습니다. 2012학년도 전체 쪽수는 96쪽이었다.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으로 운영계획 책자를 인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책자를 인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필요한 대로 각자 별도로 인쇄하려다보니 인쇄할 때 들어가는 종이값, 프

린터 잉크값, 인쇄하는 데 들이는 비용으로 볼 때, 기본 부수를 인쇄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100부 인쇄를 했다.

세 번째 해인 2013학년도 올해의 고민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 2012학년도에 중점내용을 중심으로 96쪽으로 간략하게 묶다보니, 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할 때, 또는 외부에서 학교교육과정 책자만 보고, 강명은 이런 교육도 안하고 저런 교육도 안한다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부 계획에 있고, 학년 교육과정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학교교육과정 책자에 있으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고, 학교교육과정 책자에 없으면 교육을 안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마다 학교교육과정책자를 두껍게 내는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교육청에서 하라는 것, 강조하는 것을 모두 다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야 ‘교육한 것’으로 쳐서 학교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했는지 안했는지만 보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보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모든 교육은 교과시간에 다 포함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교과서 집필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해진 교육과정만 충실하게 하면 모든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을, 국가시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범교과 학습주제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을 그대로 교육과정에 반영하라고 교육청에서는 자꾸 지시(?)하고 있다. 해마다 연말에 진행하는 교육과정부장 워크샵에 참여해 보면, 1박2일동안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OO교육 몇 시간’, ‘**교육 몇 시간’.....을 학교교육과정 편성할 때 꼭 넣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이런 교육은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의무 시수도 아닌 데다가 또 모든 교육은 교과시간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도 말은 ‘권장사항’이라하면서도 거듭 강조하다보니 학교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속에 온통 별도의 ‘OO교육 계획’, ‘**교육 계획’이 가득차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행사 계획이 잔뜩 들어있게 된다. 그러나 내용은 대부분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다른 학교 것을 베껴 온 것으로 채우게 된다. 그동안 학교는 이런 ‘OO교육’, ‘**교육’ 때문에 오히려 실제 본 수업을 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외려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다.

현재 우리 나라 학교 교육은 본 수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본 수업은 어찌 되었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한 학교가 훌륭하게 교육을 많이 한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학교 평가영역을 봐도 본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 평가를 할 수 없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공개수업 횟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참여하는 아동 수, 토요프로그램 운영 여부, 별도의 독서 행사 수, 학교폭력교육 횟수, 창의인성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비롯한 별도 행사 실시여부같은 양적 평가가 학교평가 점수에 높게 반영된다. 독서교육만 하더라도 국어 교과 시간에 통합적으로 알차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학교 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의 시작이라고 본다.

우리학교는 그동안 학교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한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별도의 특별한 행사

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일상의 수업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모든 교육을 특별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단위의 남의 눈에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를 구성할 때도 전체적인 학교 교육 철학과 맥락만 담고, 자세한 운영내용은 학년교육과정에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 구성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전이어서 2013학년도에는 우리 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단지, 학교교육과정에 안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안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청에서 ‘꼭 넣어야 한다’는 내용,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보는 것으로 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업무부 계획에 따로 넣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에서 늘 쓰는 말이지만 중언부언하거나 허황된 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은 되도록 한번 읽고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 학교 철학에 맞게 바꾸어 넣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숫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료를 최대한 찾아보았다. 전체 편집 디자인도 되도록 요란하지 않게 심플하게 했다. 올해도 작년처럼 업무부 계획이나 예산계획, 작년 학교교육과정 평가결과는 별도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별도의 파일로 보관해 두고, 한 부는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교육지원실에 비치해 두었다. 2013학년도 책자 쪽수는 작년보다 더 줄어서 85쪽이다.

한 해 한 해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며 그동안 ‘보여주기식 종합선물세트’같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와는 다른 실질적인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었는데, 해 보니 1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전체 내용의 ‘통합적인 재구성’ 작업이었다. 세 해 동안 우리 학교 방식의,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담는 학교교육과정 구성체제를 고민해 왔는데, 개인적으로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은 50쪽이내로 정리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3. 학년(급) 교육과정 구성 방법

학년(급) 교육과정은 3월 전까지 1년 전체의 틀(시수편성,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평가계획...)을 정하고, 4월초에 내부결재를 맡아놓는다. 그 뒤 실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모두 다 차례로 철회 놓는다.

원래는 교사마다 자신의 교육과정이 따로 존재해야한다. 그러나 차선으로 학년에서 공통으로 갈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달리 가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넣는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3공파일을 나누어 주고, 실제 내용을 계속 보탠 뒤에 1월말에 정리해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마무리한 내용은 다음 학년 계획을 세울 때 요긴한 자료가 된다. 그래서 학년의 연계성과 맥락성을 가질 수 있고, 우리 학교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뉴얼화와 형식화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V. 나가며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교육과정운영 계획서 구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나싶다. 계속 우리 학교도 지난 3년의 고민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알차고 새롭게 구성해 가야겠지만, 우리 학교가 해 온 고민을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 정리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 아닌, 그 학교만의 내용을 담아낸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 구성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학교의 고민과 노력이 더 나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책자를 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1. 일반 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차례

I. ** 교육과정 수립의 기저	
1.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분석	3
2. 서울 교육 방향	4
3. 강동 교육 방향	5
4. **교육의 실태 분석	6
5. 2012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분석	8
6. 2011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11
II. 학교 경영의 방향 및 교육 목표	
1. 학교장 경영관	17
2. ** 교육 목표	18
3. 교육중점 실천 과제	19
4. 특색 교육 활동	22
5. ** 중·장기 발전 계획	30
III.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	35
2. **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36
3. ** 교육과정의 연간 시간 운영 계획	37
가. 2012학년도 연간 학사일정	37
나. 교육과정 자율화에 의한 **교육과정편제	38
다. 2012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주간 시수 편성	44
라. 2012학년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운영 계획	46
마. 2012학년도 월별 주요행사 일정	48

바. 2012학년도 교과전담교사 시간 운영 계획	54
4. 교육과정 지도중점 계획	58
가. 교과 교육과정 지도중점	58
나.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중점	71
다. 재량활동 지도중점	74
라. 특별활동 지도중점	78
5. 수준별 수업 운영 계획	81
6. 토요학교 운영 계획	84
7. 집중이수제에 따른 교과 미이수 전입생 지도 계획	89
IV. ** 교육활동 평가 계획	
1. 평가의 기본 방향	93
2. 교과학습 평가 계획	94
3.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계획	97
4. 재량활동 평가 계획	99
5. 특별활동 평가 계획	100
6. 행동발달상황 평가 계획	102
V. 교육과정 운영 지원계획	
1. 교원행정업무 경감 계획	109
2. 학급임원 및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 계획	110
3.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 계획	111
4. 임원 교육 추진 계획	113
5. 학급편성 계획	114
6. 차세대나이스 학적관리 계획	115
7.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116
8. 입학식 추진 계획	117
9. 졸업식업무 추진 계획	119
10. 학교신문 발행 계획	120
11. 어린이날 선행어린이 시상 계획	120
12. 계시교육 추진 계획	121
13. 학교 설명회 학부모단체 운영 계획	122
14. 반부패 청렴교육 계획	123

교육과정부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계획	127
2. 수행평가 추진 계획	128
3.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	129
4. 특수학급 운영 계획	133
5. 경진대회 및 인증제 운영 계획	140
6. ** 교육과정 운영 평가 계획	141
7.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계획	143
8. 학년 학급 교육과정 편성 계획	145
9. 교실수업개선 추진 계획	146
10. 교내 자율장학 추진 계획	149
11.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 계획	155
12. 신규교사 연수 계획	158
13. 교사 연수 계획	160
14. 교과연구회 운영 계획	162
15.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추진 계획	163
16. 영어 인증제 운영 계획	165
17. 체험중심의 성일영어캠프 운영 계획	166

생활안전부

1.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계획	171
2.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추진	173
3. 학생 자기관리능력 신장교육 계획	177
4. 존중과 배려를 위한 이름표 착용 운동	178
5. 생활예절 교육 및 예절실 운영계획	179
6. 안전교육 계획	181
7. 녹색어머니회 활동계획	187
8. 안전등지회 활동 계획	188
9. 학교보안관 활동 계획	189

10.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190
11. 경제교육 및 경로·효친·이웃사랑 실천계획	192
12. 감사편지쓰기 운동	194
13. 통일교육 추진 계획	195
14. 생명존중 의식 함양 교육계획	197
15. 상담 및 진로교육 계획	202
16. 환경 구성, 청소, 봉사활동 추진 계획	204
17. 학부모 상담 계획	209

체육교육부

1. 체육교육 운영 계획	213
2. 학생 수련 활동 계획	214
3. 체육자료실 계획	215
4. 학교 운동장 개방 계획	216
5. 전교 체육관·운동장 운영 시간표	217
6. 줄넘기 (인증) 지도계획	218
7. 7560+ 운동 계획	219
8.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계획	221
9.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운영 계획	222
10. 성일 축제 운영 계획	223
11. 교내 학년별 육상대회	224
12. 수영장 운영 계획	225
13. 수영기능 신장을 위한 수영지도 계획	227
14. 교내 학년별 수영대회	230
15. 수영부·다이빙부 운영 계획	231
16. 청소년단체 운영 계획	232
17. 학교보건 관리 및 성교육 계획	233
18. 학교 급식 지도 계획	234
19. 영양 상담실(비만) 운영계획	237

과학정보부

1. 과학정보부 운영 계획	241
----------------------	-----

2. 과학 실험실 운영 계획	245
3. 과학 자료실 운영 계획	248
4. 과학 행사 계획	249
5. 환경교육계획	251
6.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운영 계획	253
7. 영재교육 운영 계획	255
8. 방송반 운영 계획	256
9. 실과실, 교재원 및 기상대 운영 계획 계획	257
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계획	258
11. 정보보안 및 ICT활용 교직원 연수 계획	261
12.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	262
13.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및 교단 선진화 운영 계획	263
14. 정보통신기술교육 계획	264
15. 교원 정보 활용 능력 제고 추진 계획	267
16. ICT 소양 능력 인증제 운영 계획	268
17. 발명영재단 운영 계획	269

문화예술사업부

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73
2. 토요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278
3. 독서·토의·토론·논술교육 운영 계획	279
4. 정보 독서실 운영 계획	281
5. 동아리(계발) 활동 운영 계획	283
6. 재능 기부 및 명예교사 운영 계획	284
7. 예술 행사 계획	285
8. 다문화 교육 계획	286
9. 평생교육 계획	287
10. 성일축제 운영 계획	288
11. 돌봄 교실 운영 계획	289

학년별 운영 계획

1. 1학년 운영 계획	293
2. 2학년 운영 계획	294

3. 3학년 운영 계획	295
4. 4학년 운영 계획	296
5. 5학년 운영 계획	297
6. 6학년 운영 계획	298

□ 부 록

1. 2012학년도 교실배치도	301
2. 2012학년도 담임 배정표 및 생활 시정표	302
3. 2012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업무 분장	303
4. 각종 위원회 운영 계획	304
5. 서울성일초등학교 연혁	305
6. 2012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306
7. 2012학년도 전교시간표	319
8. 2012학년도 학교운영비 집행계획	325

2. 2013학년도 서울강명초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차례

I. 강명교육의 바탕

1. 서울형 혁신학교.....	5
2. 법적 근거.....	6
3. 국가수준 교육과정.....	7
4. 서울교육과 강동교육 방향.....	8
5. 강명교육 환경.....	9
6. 강명교육 과제.....	9

II. 강명교육의 틀

1. 강명교육의 상.....	12
2. 강명교육의 바탕.....	12
3. 강명교육과정 편성 방향	
가. 기본 방향.....	13
나. 교육과정 운영 방침.....	13
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조직.....	14
라. 교육과정 편제.....	14
마. 교과 지도 계획	15

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16
4. 강명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	
가. 주요 행사 일정과 수업 일수.....	18
나. 교육과정 시수 편성.....	19
다. 연간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20
라. 교과관련 중점 지도 내용.....	22
마.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내용.....	31
바. 범교과 학습주제 지도 계획.....	31
사. 교과통합 체험학습 운영 계획.....	34
아. 학교·학년·학급 특색교육 활동	36
자. 창의·인성교육 내용.....	37
차. 학교교육과정 운영 평가 계획.....	38

Ⅲ. 강명교육의 내용

1. 배움이 즐거운 학교	
가. 4학기제 운영.....	39
나. 블럭 수업 운영.....	40
다.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아침 열기’.....	41
라. 30분 ‘노는 시간’.....	41
마. 넓고 깊은 배움.....	41
바. 교과 통합 체험학습 ‘가람빛 학교’.....	42
2. 마음이 행복한 학교	
가. 감성을 깨우는 문화예술교육 ‘가람결 배움’.....	43
나. 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46
다. 자연과 함께 하는 배움.....	49
라.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2
마. 진로·상담교육.....	53
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53
사. 다문화·탈북자 이해교육.....	55
아. 장애 이해 교육.....	55
자. 보건·성교육.....	56
차. 정보통신윤리·저작권교육.....	56
카. 과학·영재교육.....	58

타. 체육교육.....	59
파. 방과후 교육활동.....	60
3. 가르침이 보람된 학교	
가. 교사 연구 조직 구성과 운영.....	63
나. 수업혁신을 위한 교내 장학 활동과 교사 연수.....	64
다. 교무행정업무 전담팀 운영.....	66
라.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 평가.....	67
마. 교원능력개발 평가.....	69
4.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가. 민주적인 학교운영.....	70
나. 나눔과 봉사활동 교육.....	75
다. 학교 신문 ‘가람빛 알림터’ 발간.....	75
라. 학교 홈페이지 운영.....	76
마. 정보공시제 운영.....	76
바.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77
IV. 학교 현황	
• 학교 상징.....	78
• 학교 연혁.....	79
• 학급과 학생 현황.....	79
• 교직원 현황.....	79
• 학급담임 현황.....	80
• 시설 현황.....	80
• 업무 나눔표.....	81
• 교실 배치도.....	82
• 학생의 자리에서 본 국가수준 교육과정 흐름.....	83
• 2013학년도에 사용하는 검정 교과서 채택 현황.....	83
• 서울강명초등학교 학칙.....	85
• 학교 연락처.....	89
<별책 안내>	
• 2013년 학교교육활동 계획	
I. 각 업무부서별 교육계획	
1. 교육지원부	
2. 교육과정부	

3. 수업연구부
4. 문화예술부
5. 과학정보부
6. 생활체육부
- II. 예산 계획
- III. 201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결과
- IV. 그 밖에 교육활동 관련 자료

• 2013학년도 학년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

- 2013학년도 1학년(급) 교육과정운영계획
- 2013학년도 2학년(급) 교육과정운영계획
- 2013학년도 3학년(급) 교육과정운영계획
- 2013학년도 4학년(급) 교육과정운영계획
- 2013학년도 5학년(급) 교육과정운영계획
- 2013학년도 6학년(급) 교육과정운영계획

3. 2013학년도 5학년 학년(급)교육과정 차례

I. 5 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바탕

1. 학교 운영의 틀
 - 가. 강명교육의 상1
 - 나. 강명교육의 바탕1
2. 5 학년 교육과정 운영 중점2
3. 5 학년 어린이 발달 특성2
4. 학년 조직 구성3

II. 5 학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운영

1. 학사일정 및 수업 일수, 하루 시간 운영
 - 가. 학사 일정4
 - 나. 수업 일수4
 - 다. 하루 시간 운영5
2. 5 학년 교육과정 편제
 - 가. 5 학년 교육과정 편성 시수5
 - 나. 5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6
3. 요일별 수업시수 및 학년 시간표
 - 가. 요일별 수업시수6
 - 나. 5 학년 시간표6

4. 5 학년 연간 수업시수 운영 계획	7
5. 5 학년 교과별 수업시수 및 행사 계획	9
III. 5 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	
1. 5 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가. 학년 교육과정의 흐름	11
나. 교과 통합 및 재구성	20
다. 가람결배움	37
라. 가람빛학교 계획(교과통합 및 체험학습)	40
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계획	41
바. 평가 계획	45
<부록>	52

교육내용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방안

- 교육철학 및 교육목표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최 탁, 조현초등학교 교사

I. 조현교육과정을 생각하다!

1.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가?

학교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다고 한다. 괴로워서 떠나는 아이, 정말 심각한 선택을 하는 아이도 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아이들이 그렇다. 그런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교사로서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했다. 긴 협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그 모습으로 교사가 행복하고자 했고, 그런 학교와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우리학교가 그리는 비전은 아이들이 제각각의 빛깔로 세상을 색칠하는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보다 자신의 장점을 찾아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높은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기를 바라고 넓은 아량으로 자신의 약점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가꾸어가기를 바란다.

학교는 배우는 공간이다. 본래 배움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흐뭇해야 한다.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열된 수많은 공부거리를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부할만한 가치로만 따진다면 잠을 없애도 부족할만큼 많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공부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의견을 묻고 아이들이 선택한 것을 중심으로 충분히 느끼게 하여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할 수 있게 하는 감동을 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공부가 아이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 싶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살아간다. 아이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능력 중에서 학교는 몇 가지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존재한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여 살아가는 아이들을 몇 가지 잣대로 제단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잘하는 점을 찾아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범하는 실수를 교과서 삼아 함께 공부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란다. 스스로를 가꾸어갈 힘이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함께 함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고 싶다.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하면 더욱 즐겁고 더욱 쉬우며 더욱 커다란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고 싶었다.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 귀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하며 선택할 기회를 주고 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늘 이야기하며 살아간다.

2. 어떻게 구성하였나?



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교과서를 벗어나고 아이들의 삶을 담고 시대와 아이들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공통적으로 실천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언어와 수리의 기초학습능력이 충분해야 한다.
- 나. 교과서를 따라가면 가르칠 양이 너무 많아 충분히 겪을 수 없으므로 교과를 통합하여 체험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 다. 감성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수준 높게 진행되어야 한다.
- 라. 지역의 강점이 건강한 생태환경이므로 생태를 통한 교육이 적극 실시되어야 한다.
- 마. 자신의 장점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 바. 학교를 아이들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 학생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 사.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II. 함께 실천하다!

1. 디딤돌 학습: 언어와 수리 기초학습능력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배움 활동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학습능력이 필요하다. 국어과의 읽기와 독해능력, 수학과와 사칙연산 능력을 학습활동의 기초학습능력으로 선정하였다. 기초학습능력은 특별한 수업이나 일시적인 활동에 의해 신장되기 어렵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신장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가. 국어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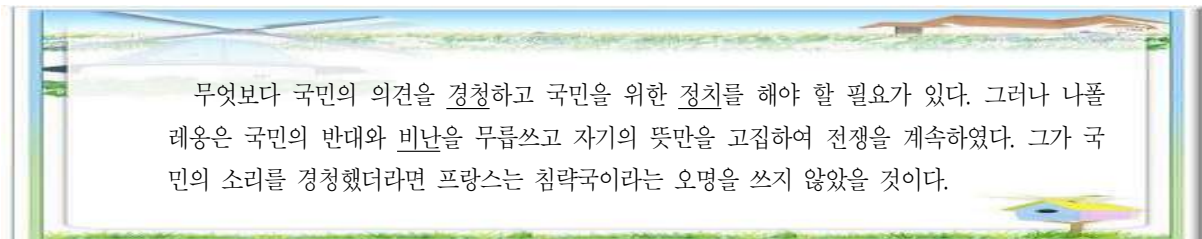
읽기 능력은 저학년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능력이다. 저학년 단계에서 소리내어 읽기가 반복되지 못하면 고학년 학습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1~2학년 단계에서 소리내어 책 읽기를 주로 하고 3학년 이상에서는 독해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6-1-36

독해력 향상을 위한 국어 디딤돌

조현초등학교 6학년 이름 ()

※ 아래의 글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의 뜻을 공부해 봅시다.



1. 위 글을 읽고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짐작하여 써 보세요.

경청 :

정치 :

비난 :

2. 국어사전으로 위의 낱말의 뜻을 찾아 써 보세요.

3.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의 낱말을 찾아 보세요.(가치사전 형식으로 쓰세요.)

4. 낱말을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를 해 주세요.

나. 수학디딤돌

수학의 연산능력은 사고력보다는 기능에 가깝다. 기능은 지속과 반복을 통해 신장되는 능력으로 수학시간 시작과 함께 20분 동안 실시한다. 매우 기초적인 내용을 시간을 다뉘 해결해가면서 연산하는 원리를 터득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11	2012년 ()월 ()일	6학년 디딤돌 학습지	걸린 시간 : ()초
조현초등학교 6학년 이름()			
1.	$\frac{9}{6} =$	5.	$\frac{8}{3} =$
2.	$\frac{8}{7} =$	6.	$\frac{25}{2} =$
3.	$\frac{9}{8} =$	7.	$\frac{5}{4} =$
4.	$\frac{3}{2} =$	8.	$\frac{66}{5} =$
9.	$\frac{7}{2} =$	10.	$\frac{51}{8} =$
		11.	$\frac{38}{5} =$
		12.	$\frac{5}{3} =$

2. 다지기 학습: 리코더와 줄넘기

교과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경험하고 습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능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교과교육과정을 통해 기능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필요하다. 조현초등학교는 음악과의 리코더와 체육과의 줄넘기를 함께 실천하는 예체능기능으로 선정한다.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과학습, 학급놀이, 공동체적인 학생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학년	학습 내용
1학년	· 리코더 구조와 자세 및 리코더 잡는 방법 배우기 · 리코더 소리내기 · 왼손(시라솔)으로 리코더 연주하기
2학년	· 왼손(도레) 리코더 곡 연주하기 · 오른손(파미레도) 리코더 곡 연주하기
3학년	· 양손 사용하여 리코더 곡 연주하기 · 높은음(미파솔라) 리코더 곡 · 소프라노 2중주 합주하기
4학년	· 높은음(미파솔라) 연주하기 · 소프라노 2중주 합주하기 · 반음 연습하기 · 알토 리코더 왼손(도레미파솔) 리코더 곡 연주하기
5학년	· 알토 리코더 오른손(라시도레) 리코더 곡 연습하기 · 알토 리코더 반음 연습하기
6학년	· 알토 리코더 양손 연습하기 · 알토 리코더로 2중주 합주하기 · 소프라노, 알토 4중주 합주하기

<표 1 리코더 학습 과정>

3. 통합학습: 적게 깊게 넓게

감동이 있는 배움은 개인을 성장시키고 관계를 넓히며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해와 깨달음의 대상이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경험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더욱 다양한 흥미와 능력을 갖게 된 학생에게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당연한 일이다.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한 블록수업은 두 차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대체로 한 차시의 목표를 한 블록 시간에 학생 주도의 활동과 토론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과간의 재구성과 통합수업이 요구된다. 또, 교과 간의 통합의 폭이 클수록 각기 다른 능력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높은 흥미와 감동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합학습은 대체로 많은 시간과 넓은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동의 요소가 발견될 수 있도록 운영하며 비고츠키의 E(경험)-T(교재)-R(관계)의 원리가 살아있고, Bethel과 Maine가 밝힌 Learning Pyramid의 구조

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위의 개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학급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6학년 1반이 실천한 통합학습계획의 한 면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통합학습 주제	환경과 생활				학습형태	프로젝트학습
통합학습 목표	♣ 기후, 지형, 문화 등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상을 원인과 결과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통합학습 장소	양서면 양수리 일대				통합학습 시기	4월 2주 금요일
통합교과	단원	학습주제	차시	평가	비고	
국어	2. 정보와 이해	- 여러 매체에서 정보를 찾을 때 주의할 점 알기: 목적, 조사범위, 정확한 정보 검증, 사진과 그림 자료	1		사전활동	
국어	3. 다양한 주장	- 토의 절차 알고 토의 알기: 학습장소 토의하여 결정하기	2	관찰평가	사전활동	
	토의 절차: 전체토의주제 정하기→1차, 2차 토의주제 정하기→1차 주제 의견나누기→의견 모으기→의견 결정하기→2차 주제 의견 나누기→의견 모으기→의견 결정하기					

국어	6. 타당한 근거	- 원인과 결과의 짜임으로 보고서 작성하기	1		사후활동
사회	1. 우리 국토의 모습과 생활	- 기후와 우리 생활 - 지형에 따른 생활모습 - 지형이 생활에 미친 영향 확인하기	4	논술평가	사전활동 본활동
미술	3. 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	- 체험장소를 나타내는 간판, 표지판, 상징물 만들기	2	수행평가	사후활동
음악	가창	- 지역이나 특산물과 관련된 노래 찾아 부르기	1		사전활동
도덕	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 자연, 인문 환경이 만들어 낸 다양한 문화의 존중	2		본활동
실과	2. 인터넷과 정보	- 인터넷으로 정보 찾기 - 컴퓨터를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하기	4	수행평가 (정보검색능력)	사전활동
수업의 흐름					
사전활동	1. 사회과 1단원 우리국토의 모습과 생활 중 지형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공부하기 2. 우리 지역의 특산물, 문화시설, 주택단지, 병원 등 지역 정보 수집하기 3. 우리 지역의 예술인, 체험 장소 등 문화예술정보 수집하기 4. 탐구하고 싶은 대상을 모듈별 토의를 거쳐 결정하기 5. 학습 계획 세우고 역할분담 정하기				
본활동	1.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 정보와 안내 부탁하기 2. 관찰, 면담, 탐구 등 학습 계획서에 따라 학습하기 3. 모듈별 학습 결과 정리하기				
사후활동	1. 모듈별 학습 결과 발표하기 2. 학습 장소를 알리는 모듈 작품 제작하기 3. 개별 보고서 작성하기				

<표 2. 통합학습 운영 사례>

4.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 학습

학생의 삶을 가꾸는 지역화교육을 위하여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일상으로 접하는 생태환경을 적당한 수준의 체험과 놀이, 관찰, 기여활동을 통해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의 원리를 실감하게 한다. 생태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생명력과 이야기를 들으며 대상과 관계 맺고 세상을 알아가는 원리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고차원의 능력은 교사의 설명과 이끔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흥미롭고 지속적인 활동과 학생 상호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 주변 논농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주제	활동내용	관련교과 단원	장소	시기
생명의 시작, 습지 생태	모내기 - 논에서 사는 것 찾기 - 논에서 살아가는 것들의 이야기(동화, 전설 등) 쓰기	국어 1. 상상의 세계	논	5월
달팽이를 기르다	달팽이 방사하기	실과	논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팽이 조사하기 - 논을 살펴보고 달팽이가 논을 벗어나지 않도록 논둑 살피기 - 달팽이와 모에게 엮서 보내기 	4. 동물과 함께 하는 생활	교실	
음악을 들려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코더 2중주 - '소금' 2중주 - '할아버지 헌 시계' 2중주 - 음악을 들려준 마음을 시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5. 마음을 담아 국어 7. 문학의 향기 	논	7월
가을을 소개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리의 가을을 알리는 뉴스 기사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기 - 색의 느낌을 살려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3. 문제와 해결 미술 4. 관찰 표현 	논	10월
벼를 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과 1. 일과 진로 	논	10월
논에서 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공으로 주먹 야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3. 경쟁활동 	논	11월

<표 4. 6학년 생태학습 운영 결과 예시>

5. 삶을 맛보는 문화예술교육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예술교육과는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타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이야기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 교과와 지도 요소인 연극, 디자인, 뮤지컬, 무용 등의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 삶, 타인, 사회, 지역의 소중함을 깨닫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지향하므로 예술활동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역량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계획이었다. 예술기능을 연마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학생들의 삶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예술이 학생들의 삶과 유리될 때 예술적 감수성과 소양능력은 길러지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전문 연극단, 디자인전문가, 무용전문가, 마당극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공동 실천하며 교사들의 문화예술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4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극, 마당극, 무용 등의 결과는 학교축제로 이어진다.

연도	적용 교과(영역)	적용 학년	비고
2012	국어(연극)	1-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과정에 타 교과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 - 예술교과의 영역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구안하여 적용한다.
	체육(무용)	3~4학년	
	음악(마당극)	5-6학년	
	미술(디자인)	1-6학년	

<표 5. 조현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다음 쪽이 <표 6>은 조현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디자인 수업의 학년별 주제와 위계이다. 디자인은 사물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이다. 그것도 가장 배려하는 방법으로 연결시켜준다. 아이들은 디자인 수업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술은 소통이다. 말과 글, 몸짓과 신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보다 감동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결국 문화예술교육은 소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학년	학습개념	주제영역	핵심활동	소재	학습 프로그램	학습 목표	차시
1학년	탐색	몸과 공간	감각 경험	학교 건물 안	학교 공간, 몸으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생김새, 쓰임새 이해 ● 용도와 소재의 이해 	16
2학년	발상	공간	감각 경험	학교 전체	나의 소중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생김새, 쓰임새 이해 ●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16
3학년	탐색	나와 너	감각 경험,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외모, 취향	달라도 괜찮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친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 및 차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 	12
4학년	상상	사회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사물들	사물아, 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에 대한 새로운 상상 	12
5학년	인식	생태	디자인리터러시,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환경, 건강	먹을거리와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먹을거리와 환경, 인간, 디자인의 관계에 대한 인식 	12
6학년	발견	지역·사람·이야기	심상의 시각화	지역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우리 동네 보물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여러 공간과 사물, 사람에 대한 이해 	12

<표 6. 디자인 수업의 학년별 주제>

아래의 <표 7>은 6학년 학생들이 경험한 디자인 수업의 구체적 내용이다. 총 12차시로 진행된다.

차시	학습주제	단계(시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1	우리 동네와 나 1	도입(15분)	토마가 가장 좋아하는 곳, 어린왕자가 그의 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을 들어본다. _너희들도 너희들만 알고 있는 소중한 공간을 소개해주겠니?	#ppt 자료(강사 준비)
		전개(25분)	작은 상자와 여러 가지 부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공간을 꾸며보자.	#작은 상자, 모루, 셀로판지, 뽕뽕이, 성냥스틱, 포장지, 도화지, 리본지끈 등
2	우리 동네와 나 2	전개(30분)	친구들 앞에서 나의 소중한 공간을 발표, 공유한다.	.
		정리(10분)	꼭 찾아가보고 싶은 공간들, 꼭 친구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공간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 이야기해보자.	
3	무엇이 보물일까?	도입(20분)	보물이란 무엇일까? _보물의 이미지를 찾아보자. 해적들은 무엇을 보물이라고 하나? 4~5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보물'이 무엇인지 정의해보자. (이때, 보물을 정의하는 단어 카드를 활용한다.)	#워크시트
		전개(20분)	정문으로 이동, 학교 버스를 타고 가장 오래된/낡은, 비밀스러운,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의 공간/사람/사물을 찾아 조사해본다.	#워크시트, 디지털 카메라, 사인펜

4	우리 동네 보물찾기 1	전개(30분)	학교 버스를 타고 가장 오래된/낡은, 비밀스러운,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의 공간/사람/사물을 찾아 조사해본다.	#워크시트, 디지털 카메라, 사인펜
		정리(10분)	모둠별로 워크시트를 정리한다.	
5	우리 동네 보물 찾기 2	도입(10분)	지난 차시에 작성하던 워크시트를 다시 나누어받고 정문으로 이동한다.	
		전개(30분)	모둠별로 속도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동수단(걷기, 경운기, 버스, 자동차 등)을 이용해, 가장 오래된/낡은, 비밀스러운,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의 공간/사람/사물을 찾아 조사해본다.	
6	우리 동네 보물 찾기 3	전개(30분)	모둠별로 속도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동수단(걷기, 경운기, 버스, 자동차 등)을 이용해, 가장 오래된/낡은, 비밀스러운,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의 공간/사람/사물을 찾아 조사해본다.	
		정리(10분)	모둠별로 워크시트를 정리한다.	
7	우리가 제일 잘 나가	도입(15분)	모둠별로 워크시트를 나누어받고 모둠별로 발표할 내용(우리 동네 탐사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보물들- 공간/사람/사물을 포함)을 정리해본다.	
		전개(25분)	모둠별로 찾아낸 우리 동네 보물들을 발표, 소개한다. _이때, 가장 인정할 만한 보물을 뽑아 타당한보물상, 가장 이상한 보물을 뽑아 이상한보물상 등을 수여한다.	#상장 및 부상(강사 준비)
8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입(10분)	보물상 수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물들이 있는지 찾으러 나가보자.	
		전개(25분)	학교와 학교 주변의 보물들을 찾아보자. _이때, 역시 공간, 사람, 사물들을 모두 포함한다.	
		정리(5분)	모둠별로 워크시트를 정리한다.	
9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말해주자 1	도입(20분)	지난 차시에 두번째로 리서치한 것들을 발표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중에서 가장 ()한 것에 대해 상을 수여한다.	#상장, 및 부상(강사 준비)
		전개(20분)	이번엔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네 100과사전을 만들어보자. _우리 동네의 요모조모, 이곳저곳을 말해주는 우리만의 백과사전이 될 것이다. _그동안의 워크시트, 사진, 사인펜 등 100과사전 만들기 재료를 받는다.	#그동안 작성한 워크시트, 사인펜, 지난 차시의 사진들(미리 출력 및 인화)
10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말해주자 2	전개(30분)	우리 동네 100과사전 만들기를 진행한다. _이것은 모둠별로 만들지만 반 전체의 활동이 하나의 100과사전이 된다.	#그동안 작성한 워크시트, 사인펜, 지난 차시의 사진들(미리 출력 및 인화)
		정리(10분)	모둠별로 100과사전 만들기를 하며 느낀 점, 아쉬운 점 등을 나누며 정리한다.	

11	우리 동네 보물지도야 1	도입(5분)	지난 차시의 활동들을 리뷰, 이것을 종합하는 활동으로 우리 동네의 보물 지도를 그려보자.	
		전개(35분)	_조현초 인근 답사 지역을 4개로 나누어 표기(큰 길과 소수의 랜 드마크만을 표기)해놓은 4절지를 모둠별로 나누어준다. _모둠 내에서 찾은 보물들의 위치를 고려해 4절지에 표현한다. (이때, 크레파스나 사인펜 외에도 지끈, 스펅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_15분마다 4절지를 모둠별로 바꾸어 보물지도를 그린다.	#4절지, 색종이, 사인펜, 크레파스, 스펅글, 성냥스틱, 지끈, 마스킹테이프, 만능본드, 셀로판테이프
12	우리 동네 보물지도야 2	전개(25분)	_모둠 내에서 찾은 보물들의 위치를 고려해 4절지에 표현한다. (이때, 크레파스나 사인펜 외에도 지끈, 스펅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_15분마다 4절지를 모둠별로 바꾸어 보물지도를 그린다.	#4절지, 색종이, 사인펜, 크레파스, 스펅글, 성냥스틱, 지끈, 마스킹테이프, 만능본드, 셀로판테이프
		정리(15분)	지도를 이어붙이고 서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말해보자.	

<표 7. 6학년 디자인수업 세부 내용 >

6. 학생자치: 어울마당과 동아리활동

어울마당과 동아리활동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어울마당은 학생회에서 행사를 기획하여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알뜰시장 등을 열어 수익금으로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하여 기부하기도 한다. 또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이 동아리를 개설하고 운영한다. 스스로 동아리박람회 참여하여 동아리를 홍보하고 조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흥미롭고 예측 가능한 것에 놀라운 창의력을 보여준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개설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이제는 열 개가 넘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역		학교교육과정 편성내용	비고
자율활동	적응활동	어울마당, 인권교육, 보건교육	34차시
	자치활동		
	행사활동	시업식, 방학식, 개학식, 수련회(오후 4차시)	9차시
	창의적특색활동	창조학습	16차시
동아리 활동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활동, 실습노작 활동, 특기(취미)활동	34차시
봉사활동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독거노인 방문 등	4차시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상담),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교육	5차시
계			102차시

<표 8. 창의적체험활동 편성표>

		
어울마당 회의	어울마당 물놀이 행사	어울마당 알뜰시장
		
과학상자 동아리활동 모습	댄스 동아리 활동 모습	요리동아리 활동 모습

7. 발전 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학생 주도의 교육을 위하여 활동 중심 수업, 프로젝트학습, 토론헌습 등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고 있으나 목표와 내용은 교과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학생 주도 학습은 아니다.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갖게 된 흥미, 의문, 호기심 등을 탐구하거나 신장시켜갈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주고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가 매우 조심스럽게 지원하도록 한다. 학생에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운영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업이나 통합학습, 문화예술교육이 아이들에게 제한적인 주도권을 제공하고 있기에 발전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의 결정권을 온전히 주도록 한다. 아이들이 선택한 주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름	연구 주제	연구 자료	지도 내용	특기
김00	야구와 내가 좋아하는 야구선수 소개하기	인터넷 사이트	컴퓨터 활용	야구, 축구, 정리하기, 농구, 배드민턴, 수학
김00	학교생활을 만화로 표현하기	만화그리기 도서	함께 읽고 즐기기 만화그리기 도서 구입	정리, 공부, 말하기, 프로젝트수행하기, 노래부르기
박00	우주에 대해 조사하기 에니메이션 만들기	책, 인터넷 사이트	보고서 작성 지도	그림 그리기, 말하기, 독서하기, 자기, 사회공부
윤00	피아노 일기 쓰기	성찰	읽고 상담하기	피아노, 역사, 그림그리기, 수학, 축구
이00	살아기는 이유 찾기 동음이의어로 이야기 만들기 에니메이션 만들기	성찰 창작 인터넷 사이트	읽고 상담하기 읽고 즐기기 애니메이션 제작 카페 소개	혼자 놀기, 과학책 읽고 상상하기, 공부하기, 지적하기

<표 3. 발전학습 운영 결과 예시>

Ⅲ. 변화

1. 교육과정 특성화와 변화

가. 학생수의 변화

2009년도 재학생수	2010년도 재학생수	2011년도 재학생수	2012년도 재학생수	2013년도 재학생 수
100	168	233	321	340여명

나. 만족도의 변화

자녀가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73	65	13	3	0
	48%	42%	8%	2%	0%
자녀의 올해 일 년 동안의 학업성취(교과학습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9	82	37	7	0
	19%	53%	24%	4%	0%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 능력과 학생들의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어울마당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90	54	10	0	0
	58%	35%	7%	0%	0%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자녀의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73	73	8	0	1
	47%	47%	5%	0%	1%

다. 학교문화의 변화: 교사 설문

영역	설문 항목	그렇다	보통	아니다
학교 풍토	▪ 개방적 풍토가 조성되었는가?	14	0	0
	▪ 교직원들은 학교 경영에 참여하였는가?	14	0	0

라. 학교공동체의 변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매우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랑스럽냐는 질문에 8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교사들의 평균 전보 인원은 1~2명이다.

바. 학생문화의 변화

-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졌다.
- 표현능력이 향상되었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 학생들이 행사를 기획하는 능력이 높아졌고 적극적인 참여와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공연, 환경에서 공감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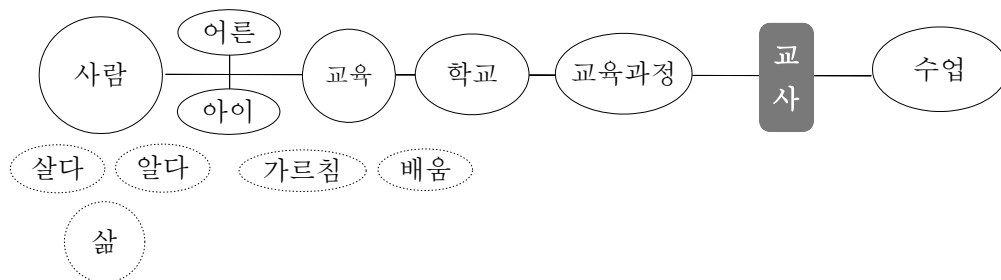
삶을 가꾸는 ‘학교교육과정’ 꾸리기

남한산초등학교 교사 윤승용

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완성하는 일은 가능할까? 시대의 흐름, 교육적 고민, 배우는 이에 대한 관점, 구성원의 요구 등 고려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달라지기에 언제까지나 학교교육과정은 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과정’은 늘 역동적이어야 한다. 이야기에 이야기가 섞이는 과정에서 숙성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부족하지만 남한산초등학교교육과정을 소개하면서 그 지난함을 이야기하기로 한다.

1. 교육과정과 수업

학교교육과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학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육, 지식,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두서없이 흩어진 생각보다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그 흐름을 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삶이란 단순히 ‘살다’의 명사형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말에 담긴 ‘살다’와 ‘알다’가 더하여진 그 무엇이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것을 좀 더 따져보자. 도대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저건 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수많은 태양이 우주 공간에 있고, 저 빛은 많게는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안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목’이라는 말로도 표현 가능하다.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답을 찾으며 살아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질문과 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은 하나가 아니다. 말, 수학, 과학, 음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상을 보는 안목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어른)은 그 안목을 가지지 않은 사람(아이)에게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1) 안목이 부족한 이(아

1) 여기서 말하는 어른과 아이는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른과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어른과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궁금한 것을 어른에게 물어보거나 배우려고 한다. 어쩌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사람이 가진 본능이 아닐까 한다. ‘교육’이라는 말은 이렇게 싹틔운 것이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왔다. 교육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난다. 집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근대에 이르러 ‘학교’라는 제도와 공간이 국가기관에 의해 세워졌다. 학교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크게 빌어 출발했지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수준의 인력 양성, 서구학문의 일방적인 주입과 모방, 자녀의 출세, 교육열에 편승한 학교체제의 강화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다양한 기능을 학교가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과 교육을 섞어서 말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교육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교육인 것을 좀 더 학교에서 살려낼 때 우리네 학교는 살아 숨 쉬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나는 교육과정과 수업 사이에 존재했던 ‘교과서’를 ‘교사’로 바꾸는 노력이 이를 뚫어내는 시작이라 본다. 교과서는 그 기능면에서 지우개, 연필, 칠판, 가위 따위와 다를 바가 없다. 가르치고자 할 때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매체 구실을 하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부정적 위력을 발휘했다. 수업 매뉴얼, 평가의 기준을 넘어 교과서 때문에 비뚤어진 수업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다.²⁾

지금까지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해석된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에 있었다. 재구성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교과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각이었다.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서 행동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힘을 잃게 된다.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진다. 내가 아닌 다른 이가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교사는 언제나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단순히 전달해 주는 구실이 가르치는 행위라고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경력이 쌓일수록 가르치고 배우는 안목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육에서 멀어진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재구성권과 평가권을 거세했기 때문에 생겨난 자연스런 현상이다. ‘혁신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를 교사의 손에 쥐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할 것이다. 교재구성권이라는 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고, 평가권은 교사평가라고 불리는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평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진 힘이 별로 없다. ‘말의 세계’를 탐구하는 ‘국어’라는 교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스스로 기획하여 다른 학년과 연계하여 꾸릴 힘이 크지 않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과정이 있다. 교육과정도 따지고 들면 한 없이 따져야 하겠지만 일단 마련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하겠다. 더 다행인 것은 촘촘했던 과거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이 대강화 되고 있

2)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를 집어 던져버리자는 말은 아니다. 교과서는 그 자체로서 아주 훌륭한 수업의 자료다. 교육과정을 집필자들이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있어 많은 고민이 들어있는 도구임에 틀림없다.

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들의 적극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교과보다 현장성, 상황성, 맥락성을 따져야 하는 국어과에서 이는 옳은 선택이라고 보고 이 속에서 여러 실천과 생각이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2. 남한산초등학교교육과정 틀

1) 바탕

2) 묻다

3) 짜다

-상시활동 -월별활동 -교과활동 -교과통합(월기획회의, 예술수업)
-창의적체험활동(다모임, 여름계절학교, 학생동아리) -방과후활동 -편제 및 시간 운영

4) 보태다

5) 되돌아보다

6) 부록 (기초학습부진아 대책, 돌봄교실운영, 학교행사 기획안.....)

2. '바탕'에 대하여

학교교육과정이 실현되는데 최소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을 서술한다. 아무리 좋은 이상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조건을 수업, 교실, 학교, 가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 수업 혁신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함께 사용할 공책과 교재 개발, 수업 에세이 쓰기, 통지표 양식 개발, 성장이력철 양식 개발, 월기획회의 등이 있다.

2) 교실 혁신

학년 간 연계성 고려를 위한 것은 교실이라는 항목에서 서술한다. 년 2회 방학 중 자체 교육과정 연수를 에세이 쓰기로 전환하여, 수업, 학급운영, 업무, 자기 고유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이것이 다음 해 학급교육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공유와 공감을 통한 교실 문화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3) 학교 혁신

학교 구성원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모임도 학교교육과정의 기본 바탕이 된다. 학생자치회, 학부모자치회, 교사자치회의 조직 구성을 다듬고 여러 의견의 민주적 수렴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사조직을 재편하고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 무사가 행정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교육적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 2009년 새로운 안목으로 교육과정 꿰기

2010-11년 교육과정 실천과 평가 프로그램 및 나눔 프로그램 마련하기

2012년 교육과정을 안정화 시키고 수업 연구에 집중하기

2013년 교육과정 안정과 더불어 학생 연구에 집중하기

2014년 교육과정 거듭나기와 교과통합의 안목을 학생과 함께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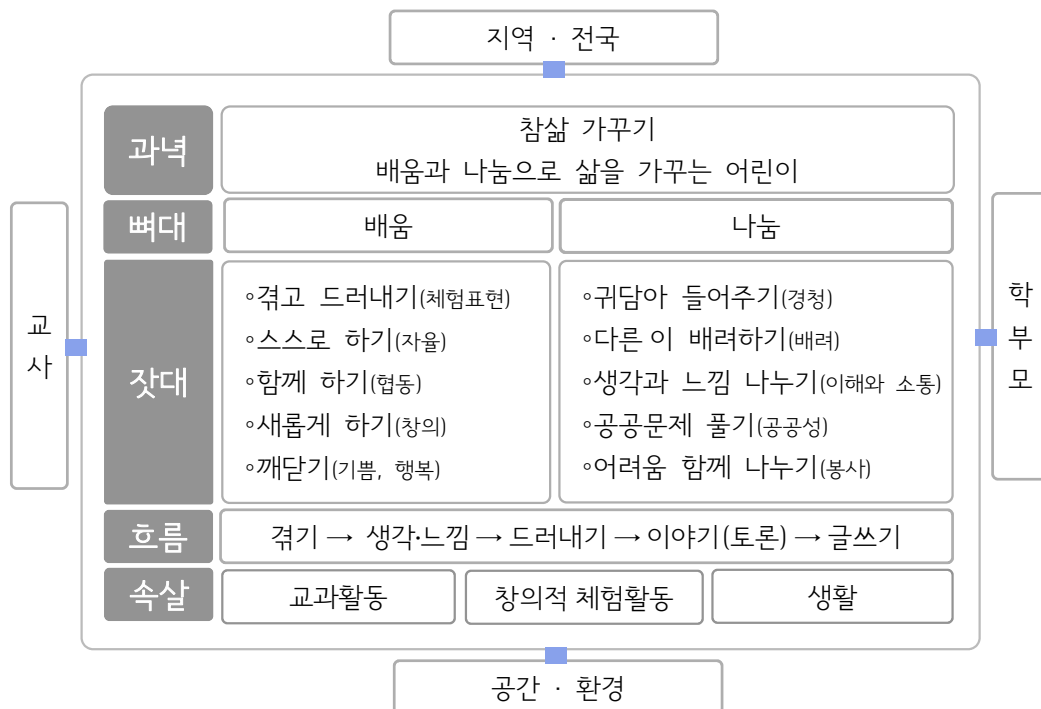
4)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할 일

- 넉넉히 잘 시간을(9시간에서 10시간) 확보해 준다.
- 알람장(자기시간관리)을 보고 시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사용 및 게임, 손전화 사용 등은 엄격히 제한하며 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논의하여 꼭 필요할 경우만 하도록 한다.
- 인스턴트식품이나 탄산음료 먹기를 자제한다.
- 가정에서는 하루 한 시간 정도 스스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사항은 꼭 지킨다.
 - 고운말 쓰기(욕하기 않기)
 - 친하게 지내기(때리지 않기)
 - 뒷정리하기

3. ‘문다’에 대하여

말의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알고 있다. 같은 낱말을 쓰더라도 달리 쓰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만난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물어야 한다. 서로의 말을 모아 하나로 합의하는 과정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 되면 무엇을 위해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구성원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남는 것은 국가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밖에 없을 것이고 학교교육과정은 생명력을 잃을 것이다.

1)교육이란 무엇인가? 2)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3)교육의 과녁은 무엇인가? 4) ‘삶 가꾸기’의 뼈대는 무엇인가? 5)배움의 잣대는 무엇인가? 6)나눔의 잣대는 무엇인가? 7)배움과 나눔의 과정은 무엇인가? 8)교과란 무엇인가? 9)창의적체험은 무엇인가?



4. '짜다'에 대하여

1) 상시활동

6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하는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무엇이든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책읽기 하나만 보더라도 일시에 좋은 프로그램 하나 아이들과 함께 나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글 쓰 기

- 겪고 나서 생각과 느낌을 나눈 뒤 글쓰기(일기, 체험활동 참여 소감문, 여행기 등)
- 책 읽고 독후감 쓰기(3~6학년, 주1회)
- 교과별 공책에 배움 내용 및 더 알고 싶은 것 기록하기
- 문집으로 모두의 글 쌓고 나누기

책 읽 기

- 일주일 책 한 권 읽고 함께 나누기 (온 작품 읽기)
- 읽은 책 독서수첩에 꾸준히 기록하기
- 남한산 노래집, 남한산 시집 나누기
- 도서관 및 학급문고 활용

숲 산 책

- 오감으로 느끼는 아침 숲 산책
- 숲속 놀이
- 계절의 변화 몸으로 느끼기
- '내 나무'와 함께 하는 한 해 살이 • 텃밭 가꾸기(5학년)

배 움 길

- 알림장을 통한 자기 생활 되돌아보기와 스스로 시간 관리하기
- 교과별·활동별 공책에 탐구과정 기록하고 소통하기(수학공책, 계절학교 활동책 등)
- '스스로 배움' 공책 마련하여 꾸준히 쌓아가기(5~6학년)
- 자람 나무(학생 배움 이력 첼)에 활동과정 쌓기, 상설전시회 갖기
- 글씨쓰기·낱말공부·수 공부·영어쓰기 교재 꾸준히 하기

나 눔 길

- '돌 봄 짝'과 함께 하기(선후배 서로 보듬기)
- 다모임을 통한 공공문제 함께 풀기
- 내 자리, 학교, 마을 청소하기
- 바자회, 이불 뜨기, 모자 뜨기를 통한 기부활동 참여하기

2) 월별활동

월별로 이뤄지는 학교행사, 전체학생 대상 프로그램, 남한산가족행사 등을 정리하였다. 날 짜를 꼭 정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간으로 설정한 것도 있는데 이는 매달 이뤄지는 '월 교육과정기획회의'에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

3) 교과활동

국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년별계열성과 꼭 성취해야 할 목표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어떤 교사가 어떤 학년을 맡더라도 나침반 구실을 한다. 학년 활동을 기획하고 실

행할 때도 기준이 된다.

<국어>

과녁

창의적 언어 능력 신장(우리말을 부려 쓰는 힘 갖기)

열쇠

삶 · 말 · 글

읽기	마음		깊이	
	1-2학년	즐기기	글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내용 이해
	3-4학년	생각 공유	글의 내용과 중심 생각을 명확하게 파악하며 읽는다.	주제 파악
쓰기	5-6학년	생각 비평	다양하게 찾아 읽고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읽는다.	관점 이해
	기능		깊이	
	1-2학년	글자	글자를 익혀 겪은 일을 짧은 글로 쓴다.	문장
	3-4학년	맞춤법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게 두세 문단 정도의 글을 쓴다.	문단
	5-6학년	다듬기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다양한 글을 쓴다.	글

상시 활동

글쓰기, 문집, 온 작품 읽기, 시 배움 책

<수학>

과녁

수학적 의사소통

열쇠

계기 · 사고

	기능	개념	꾸준한 활동으로 연산 원리 알기
1학년	◦가위 사용 - 자르기 ◦선 긋기	◦10이하의 수 ◦100이하의 수	◦가르기와 모으기로 10 만들기 ◦(두 자리 수) \pm (한 자리 수)
2학년	◦자 사용 - 길이 구하기	◦10000이하의 수 ◦곱셈의 의미 ◦길이의 의미와 Cm, m	◦가르기와 모으기로 100 만들기 ◦(두 자리 수) \pm (두 자리 수) ◦곱셈 구구
3학년	◦기본도형 그리기 ◦컴퍼스 사용 - 원 그리기	◦10000이상의 수 계열 ◦나눗셈의 의미 ◦분수의 개념과 크기 비교 ◦소수의 개념과 크기 비교 ◦각, 직각, 삼각형, 사각형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과 관계 ◦길이, 둘이, 무게의 의미와 단위 (Km, mm, L, mL, Kg, g)	◦(네 자리 수) \pm (네 자리 수) ◦(두 자리 수) \times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 \div (한 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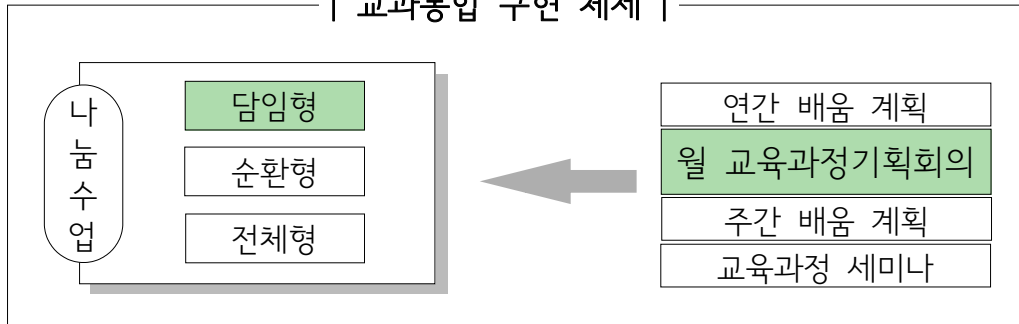
상시 활동

생각 열고 탐구하는 수학적 경험(수학공책 활용)

4) 교과통합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과정은 지나치게 분권화되어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학년군과 교과군으로 묶으려는 노력 또한 여기에 터한다. 교과를 통해 주고자 하는 지식이 아이와 함께 살아나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아이들 속에서 배움의 기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 통합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의 교육기획에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안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구현하기는 현재로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년 학기별로 가져갈 주제에 대한 논의와 학년별 계열성에 고려 등 따져볼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금씩 교사들의 안목을 채워가고 교사들의 협력하는 배움을 통해 통합교육과정도 구현되리라 생각하면서 2013년은 지난해에 이어 다음과 같이 길을 다져나가야 한다.

| 교과통합 구현 체제 |



<월배움계획의 예>

11월	월	화	수	목	금
2주	5 글 나누기 글쓰기	6 (수학) (몇 십 몇)÷(몇)	7 (국어) 문단의 짜임	8 (수학)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	9 <순환수업>
	(영어)11. I want a robot. Writing Test (컴퓨터)타자연습	(미술)캐릭터 스티커 만들기	(음악) 국악 (국어) 문단의 짜임	(과학)물과 기름 분리하기	박용주 선생님과 함께 (전래놀이)
	(체육) 피구	(영어)11. I want a robot.	(과학)자유탐구확인하기, 과학이론용어한자	온 작품 읽기 《반 토막 서현우》	(체육) 발야구
4주	19 글 나누기 글쓰기	20 (수학) 들이의 단위	21 (사회) 우리고장 둘러 보기 마무리	22 (수학) 들이의 어림, 합과 차	23 수학의 날
	(영어)11. I want a robot. (컴퓨터)타자연습	(미술)재미있는 수목 화	"우리 고장 지도 그리기"	(과학)물과 기름 분리하기	
	(체육) 패들티킥 이어달리기	(영어)12. Put on your coat.	(과학)자유탐구확인하기, 과학이론용어한자	온 작품 읽기 《물입 천재 클레멘 타인》	(체육) 시간제 원형 피구
활동	성교육, 수학의 날, 텃밭 수학 학년별 봉사 활동(개인 봉사, 이불조각 뜨기, 모자 실뜨기)				

<온작품읽기수업>

매주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일주일에 한 블록의 시간을 두어 함께 나눈다. 선정된 책은 무조건 다 읽고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반드시 독후감을 써와야 한다. 쓴 독후감을 바탕으로 책 감상 나누기-함께 읽을 부분 찾아 소리 내어 읽기-관련 활동하기 차례로 일년동안 서른 권 정도의 책을 나눈다. 반 아이들과 서른 여 권의 책을 공유한다는 것은 위의 교과별 '성취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작품이 가지는 맥락과 상황은 날개로 쪼개진 여러 활동과 지식을 묶어주는 구실도 한다.

(수업사례) 우리가 바라는 도서관 :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중간놀이와 점심놀이 시간이다. 넉넉한 시간인데도 짧게만 느껴지나 보다. 운동장, 놀이터, 뒤뜰, 숲, 교실

앞마루에서 뭘 하고 노는지도 모르게 열심히도 논다. 중앙현관에도 아이들은 가득하다. ‘북카페’라고 이름 붙인 곳인데, 낡았지만 아늑한 소파에 앉아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잡지에 빠져있는 아이도 보인다. ‘북카페’ 뒤쪽으론 웅달샘이라는 도서실이 있다. 웅기종기 모여 앉아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서선생님과 함께 책을 나누고 있다. ‘맞책’ 시간이다. 학기 초에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매주 학년마다 요일을 정해 책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때론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기도 한다. 몇 명만 앉아도 지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좁고 책으로 가득 차 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도서실이지만 푸근한 사서선생님과 책을 아끼는 아이들의 사랑으로 늘 아늑하기만 하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학생들과 책으로 도서실을 보는 선생님들의 근심은 깊어만 간다. 올 해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문제로 수차례 의견을 나누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교장 선생님이 발 벗고 나서는데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도립공원 안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헤집고 나갈 길이 어렵게만 느껴진다.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맡아 진행해도 표준화된 건물만 덩그러니 버릴 것 같아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도서관에 가지 마, 절대로』(이오인 콜퍼, 국민서관)이 있다. 오 형제로 북적거리는 집이 난장판이 되자 아빠는 큰 아이 둘을 도서관에 정한 시간 동안 있게 한다. 월과 마티가 그 아이들이다. 월과 마티에게는 도서관은 끔찍한 곳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자신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 무엇이었고, 더군다나 월과 마티가 가게 될 도서관엔 무시무시한 감자 총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다. 생긋 웃다가 내쫓길 수도 있고 킁킁대다가 감자 총을 맞을 수도 있다. 큰 소리로 웃다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무서운 사서 선생님 밑에서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척 하고 있기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뛰쳐나가지도 못하는 신세라니. 매일 읽는 척 하기도 지겨웠나 보다. 책의 한 구절에 꽂혀 자기도 모르게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고, 서가의 책을 모두 읽게 되는 과정이 웃음 짓게 하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우리 학교 사서선생님이 무섭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진짜 감자 총이 있으면 좋겠다는 조금 익살스런 반응까지 여러 말이 나왔다. 무엇보다 자기가 빠져 읽어 보았던 책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시간을 줄 모르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간이 지나 도서실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교 도서관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연일 선생님들이 회의하는 주제가 도서관이라고. 내년에는 지어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아이들의 의견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간 도서관을 지어 누구나 사랑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남한산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한옥 단층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선생님들이 미리 살펴본 도서관 중에 ‘구로 어린이 도서관’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더니 입이 떡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부러워한다.

“여러분이 바라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인가요?”라고 물어 보았다. 바로 장난기가 발동해 “수영장이 크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었으면 해요.” 하면서 나오는 웃음 멈추지 않는다. 내가 정색을 하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이 회의할 때 여러분이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회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고가도로도 유치원 한 아이가 그린 그림 때문에 세상에 나온 것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학교와 함께 할 우리 학교 도서관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이 바라는 도서관 안 모습을 나타내보세요.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했더니 금세 진지해진다. 미심쩍은 얼굴로 “진짜요?”하면서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미 쏟아낸 말 그냥 웃을 뿐이다.

너무 큰 결과를 기대한 활동이 아니었고, 잠깐 생각해 보자는 생각에서 한 활동이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시간도 많이 주지 않았다. 중간놀이 시간이 되자 선생님에게 내고 나가게 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밀조밀 그리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다. 규리는 일층 빼곡하게 책을 채워놓고 높은 곳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했다. 학년별로 읽는 공간도 달리했다. “공간만 충분하다면 이렇게 따로 해도 괜찮겠네. 그런데 이렇게 책을 꽂아두면 찾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했더니 “일단 도서관은 책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른 책 아이 책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읽고 싶은 책 읽으면 되니까요.”한다. 명답이 아닐 수 없다. 유난히 몸에 열이 많은 준겸이는 시원한 것을 좋아한다. 한 여름 교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도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이런 준겸이는 도서관에 피서방과 따뜻한 방을 만들어 놓았다. 책 읽기에 알맞은 온도를 찾아 읽으면 좋단다. 지하실을 만들어 수면실도 그려 넣었는데, 폭신한 침대에서 누워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피곤하면 쉴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아 걸어 하나씩 살피면서 교무실로 가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창현이와 현이가 왔다.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내일까지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한다. 그러라고 했더니, “아직 선생님들 보여주시면 안돼요!”하면서 좋아라 한다. 내가 너무 ‘뽕’을 쳤나 싶어 살짝 미안했다.

다음 날 교실 게시판에 아이들의 설계도를 붙여 놓았더니, “야! 이걸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 일층인데 굳이 엘리베이터로 움직이냐?”, “오호! 수영장을 기어코 그렸네! 뭐 이 정도면 괜찮겠네.”하며 자기네들이 그린 도서관 설계도를 떠나지 않는다. 어서 빨리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예쁘고 아늑한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2011.10)

내가 원하는 우리 학교 도서관은 일단 가는 곳마다 방식이 폭신하게 깔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발은 벗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일단 도서관처럼 분류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인 대출, 반납대도 만들고 도서관 카드와 도서 검색대도 있으면 좋겠다. 주로 소설이 많았으면 좋겠고 목이 마르니까 정수기도 있으면 편하겠다. 또 DVD를 볼 수 있는 방도 두 개가 있음 좋겠다.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헤드폰을 끼고 여럿이 앉아서 TV를 보면 좋겠다. 학교에서 빌린 DVD를 이곳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락방에서는 맛책을 하거나 숙제, 독서, 토론 등을 하면 그곳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한 책장에는 잡지책이나 어린이 잡지가 있으면 따로 잡지를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친구들과 비밀 이야기 같은 것 할 수 있는 수다방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은 정말정말 꼭 필요한 것 같다. 읽던 책을 손에서 놓기가 싫은데 또 저 건물까지 가기는 싫을 테니까 화장실도 꼭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서관 이름은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책벌레 어린이 도서관, 쉼터 도서관 등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최신식 도서관이 있을 정말 도서관에만 꼭! 박혀 있을 것 같다.(4학년 민술)



<예술수업>

겨울계절학교에서 뻗어 나온 논의가 학생 동아리라는 하나의 축을 낳았다. 이는 자발성, 자

을, 스스로라는 말로 대표되는 아이에게서 출발하는 교육과정의 큰 축을 잡은 것이다. 선택형과 무학년제의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 풀어질 것이다.

겨울계절학교의 다른 한 축이었던 ‘예술문화체험’ ‘공연예술체험’의 의미를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인가도 또 다른 화두였다.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는 여름계절학교, 동아리, 다모임 시간으로 대부분 채워졌기에 남는 시간은 없다. 이야기 끝에 교과활동의 두 줄기가 주지교과와 예술교과임을 확인하였다. 교과에서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눈)이다. 대상을 말로 보는가, 수로 보는가, 음으로 보는가에 따라 대상은 달리 보인다. 그리고 깊게 보인다.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눈이고, 여러 교과로 나누어져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교과로 나누어 조각을 바라보게 하면 통합적 안목을 잃어버린다.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교과통합이라든지 융합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우리 학교는 이 통합의 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체험과 ‘온작품읽기수업’으로 대표되는 주지교과통합수업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예술교과는 그렇지 못했다. 교사들마다 가지는 기능과 안목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학년 담임교사가 음악에 안목을 가지고 있어 해당 교과시간에 충분한 체험과 주고받음을 있다고 가정할 때, 운 좋게 그 담임을 만난 아이들은 해당 영역에 있어 기능은 물론이고 안목까지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긴다.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예술 영역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졸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를 조금이나마 보충하기 위해 ‘순환수업’이라는 형태도 몇 해 유지하였으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었다. 논의 끝에 기존의 순환수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에게 학년 수준에 맞게 예술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영역을 크게 나누어 6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두루 경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학년마다 예술영역의 중심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따른 활동과 체험을 가져가자는 것이다. 지도교사는 담임이 아닌 학년 고정으로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학기 또는 일 년 동안 같은 주제 중심으로 예술교과(국어, 체육, 음악, 미술)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이 운영을 바탕으로 학년말 발표회가 이뤄질 것이다.

5) 창의적체험활동

학생다모임 : 다모임은 학급다모임과 전체다모임으로 나뉜다. 학급다모임은 학급생활을 학생 스스로 누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급자치회를 꾸려 나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전체다모임은 남한산 학생자치회가 공식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열어준 길이다. 이 시간엔 남한산 모든 학생이 모여 학생자치회 활동 보고 및 안전토의를 하고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여러 공공의 문제를 풀기도 한다.

학생동아리 : 학교 교육과정의 두 뼈대로 ‘배움’과 ‘나눔’이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배움의 잣대로 ①겪고 드러내기(체험·표현) ②스스로 하기(자율) ③함께 하기(협동) ④새롭게 하기(창의) ⑤깨닫기(기쁨·행복)가 있다. 이 다섯 잣대로 우리는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움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스스로 하기’를 뽑을 수 있

다. 배운다는 것은 배울 사람이 스스로 배울 것을 정하고 배울 사람을 찾고 스스로 노력해야 배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사가 기획한 틀 안에서 움직인다. 수업할 때도 아이들보다는 교사의 안목과 기획 안에서 움직인다. 아무리 흥미를 돋운다고 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스스로가 아니라 이끌림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것을 찾고, 배울 사람을 찾고 만나 배워나갈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해 교사에서 출발한 배움 말고 학생에게서 출발한 배움은 어떻게 가능할까? 일 년 동안 아니면 6년 동안 한 번 만이라도 이 잣대에 어울리는 활동을 겪게 하는 것은 가능할까? 쉽지 않은 질문이고 가능한 뚜렷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배움의 잣대로 잡은 ‘스스로’가 그르지 않다면 차근차근 의미를 되새기며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답일 것이다.

거듭되는 고민과 질문은 주어진 현실을 뚫을 수 있는 계기는 되나 무엇 하나 이루어낼 수 없다. 고민과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학생 동아리 활동을 2학기에 운영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배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다. 무엇보다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가 쌓여가야 할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쌓일지 기대된다.

대상 : 3~6학년 (1,2학년은 학급활동에서 구현)

시간 : 월 2회 격주로 운영하며 금요일 2블록.

-전체 다모임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배치

-9월 27일(27일 예정 다모임 9월 6일로 변경). 10월 18일. 11월 1일. 11월 15일. 11월 29일. 12월 6일. → 총 6회(12시간. 2014학년도는 1학기부터 시작하니 시수가 확대될 예정.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일정

① 전체 설명회(3~6학년, 전체다모임, 8월 19일 개학일)

-동아리 활동의 취지, 운영 방법, 묻고 답하기, 여러 가지 예

② 선호도 조사(~8월 30일)

-참여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는지,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지 자유롭게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두고 의견 묻기,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만들고 싶은 동아리 이야기 나누기

③ 발족기간(~9월 6일, 대표 뽑기, 이름 정하기, 5인 이상 회원 확보 방안 논의)

-선호도 조사에 기초하여 동아리를 발족하는 기간을 둠

④ 동아리 홍보/회원 모집(~9월 6일)

-발족한 동아리는 대표를 중심으로 회원을 적정한 회원을 확보

-동아리 등록 신청서 작성(회원명부, 활동계획이 들어감. 교사가 만들어 배부)

⑤ 동아리 등록(~9월 9일)

-동아리 등록 신청서 접수

-접수 과정에서 ‘폭력성’, ‘안전성’, ‘사행성’, ‘선정성’의 심사가 이루어짐.

(교사회회의)

-지도교사 배치(교사회회의)

⑥ 동아리 활동(9월 13일 2블록 첫 모임)

-모임 장소는 교사가 마련하여 줌.

5. ‘보태다’에 대하여

교사 연수, 학부모 다짐 및 회 운영계획

6. ‘되돌아보다’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이야기 : 어떤 종류의 평가든 간에 그것이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그 평가가 진정 어떤 목적을 지니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맹목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평가의 목적은 비교적 자명하다. 간단히 말해서, 그 평가하는 대상세계의 목적에 종속해야 한다. 정치를 평가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경제를 평가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얻어진 정보가 관련 분야에 반영되어 다음의 실천에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 교육평가가 바로 서고 정상화될 때, 교육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연상되는 것들은 출세를 위한 점수경쟁, 불안과 공포,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어떤 것, 학교성적, 교과서 위주의 일률적인 정답, 객관식 시험, 평가방식에 적응하는 훈련, 능력의 우열에 따른 승자와 패자, 만족과 좌절 등이다. 이런 의미의 교육평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학교 경험을 연상시켜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학교붕괴’라는 유행어가 지칭하듯이 근래에 학생들이 학교체제를 선호하지 않는 주된 원인 가운데에 이런 그릇된 ‘교육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진실로 소망하는 교육의 정상화는 그런 그릇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올바른 교육평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통상 교육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것이 옳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평가는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부단히 지속되어야 할 활동이다. 한 번의 교육은 다음에 더 좋은 교육과 연결되어야 하며, 전자는 후자의 것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점을 유의하여 일부 사람들은 기꺼이 스스로 교육평가를 교육활동의 일부로 편입시켜서 매번 실행할 것이다. 이 말은 교육평가의 주체와 교육의 주체가 일치해야 함을 요청한다. 그 임무는 교육 주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이해범위를 확장하는 범위 안에서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족한 평가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내부의 메커니즘을 유의한다면 아무나 교육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것이 제멋대로 이루어져도 된다는 의미와 사뭇 다른 맥락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교육을 위한 평가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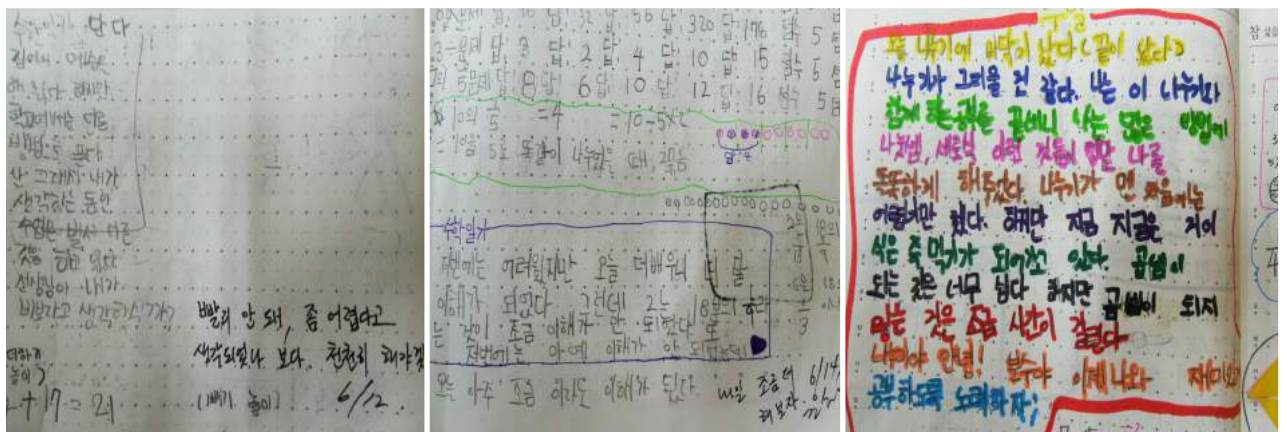
1) 수학 일기

수학수업은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여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늘 노아가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우리 반 전체에게 선물을 가져왔네요. 모두 60개인데, 몇 개씩 나누어 먹으면 좋을까?” “한서가 알까기 시험을 하는데, 바둑알을 두 개씩 12줄을 놓았어. 모두 몇 개를 놓은 거니?” 와 같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조금은 장난스럽게 들려준다. 몇 번 하다 보니 “에이, 선생님 또 수학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라고 야

유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즐겁게 수학수업을 여는 시작이다. “선생님처럼 곱하기를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 보자.” 라고 제안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관심사에 따라 개미, 공기, 리코더, 간식 등 숫자, 곱셈, 생활이 결합한 이야기를 한참 나눈다.

나눈 이야기 중 하나를 골라 공책에 쓰게 하고, 혼자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거나, 덧셈을 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짝끼리 모둠끼리 해결한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함께 칠판에서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교사인 난 새롭게 도입할 계산법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나온 여러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골라 칠판에 쓰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어느덧 수업은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이번 시간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수학일기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걷은 공책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난 주제에 대해 내가 이끌었던 수업 차례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각자 어려워하거나 흥미 있어 하는 장면을 찾거나 도움말을 써 주기도 한다. 필요한 과제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얻은 생각은 고민을 거쳐 다음 시간에 반영되기도 하고, 주간학습 또 월 계획안에 포함시켜 흐름을 유지한다.



2) 글 소식지

일주일 동안 글쓰기 공책에 썼던 글을 모아 글 소식지를 만들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월요일 1블록 시간이다. 다양한 소재와 여러 아이들 글을 인쇄된 글로 함께 보는 시간이다. 같은 소재로 쓴 글은 같이 모아두기도 한다. 갈래에 따라 소식지의 내용을 구분한다. 독후감, 일상 글, 시, 보고서, 주장 글, 만화, 이야기 짓기 형태로 나누어 구분을 두기도 한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10분 정도 읽고, 마음이 가는 글에 댓글을 다는 활동을 한다. 함께 읽어볼 글을 추천받아 내가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읽기도 한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이야기 나누기도 한다. 웃긴 이야기는 웃긴 대로, 생각해볼 글은 있는 그대로 느끼고 나누는 시간이다. 이후 10분 또는 20분 동안 하나의 글감을 잡아 글 쓰는 시간을 갖는다.

일 년 동안 나누면 30호 정도 나눌 수 있다. 처음엔 모든 아이들의 글을 신지 않았고,

몇 개만 선별하여 싣는 소식지였다. “어? 내 글은 없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 3호부터는 빼놓지 않고 글을 싣었다. 호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의 글은 점점 길어지고 생동감 넘친다. 소재와 갈래 또한 다양해지고 재밌어진다. 뒤로 갈수록 소식지 편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적게는 세 시간 많게는 다섯 시간까지 타이핑과 편집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도 월요일 아침 소식지를 기다리는 아이들 때문에 꼭 참고 발행하고 있다.

글 소식지의 목적은 몇 가지 있었다. 첫째, 글 쓰는 능력은 다른 이의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속에서 향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글 특히 옆에 있는 친구의 글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소재가 겹치는 경우 따라 배우기에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다. 숲 산책으로 무슨 쓸 말이 있을까 싶었지만 같이 경험한 숲 산책이 한 편의 글로 그려지는 것은 누구에게는 신기한 경험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독후감 또한 마찬가지다.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자각은 글을 읽고 생각하는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생각의 소통에 있었다. 한 반에서 생활하면 대부분 말로 생각과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통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순한 의사전달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글이 가지는 속성 중에 되돌아봄과 생각의 정리의 성질이 있다. 다른 아이의 일상과 생각을 글로 엮봄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싶었다. 셋째는 국어과 운영과 관련이 있다. 일상의 대화와 글쓰기가 주요 소재인 국어과에서 한 단원에 머무는 활동으로는 우리말을 부려 쓰는 힘이 쉬 길러지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꾸준히 할 어떤 활동이 필요했었는데, 글 소식지 나누기가 그것이다.

글 소식지를 나누는 중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글을 모두에게 내놓아야 했고, 다른 이의 글을 들여다보았다. 난 여기에서 자기평가와 상호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장면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평가는 온전히 자신의 능력향상으로 이어졌다.



선택한 글 목록

제시된 글 목록을 보는 것은, 본교 모든 학생들에게 제시된 글 목록을 보고, 선택한 글(가) 포함하여 제시된 글 목록 중에서 선택한 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글 목록을 볼 수 있는 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001	선다물공소곡 001(001) (1)	김영환	12-08-04	104
002	선다물공소곡 001(002) (1)	김영환	12-08-07	102
003	선다물공소곡 001(003) (1)	김영환	12-08-08	117
004	선다물공소곡 001(004) (1)	김영환	12-08-09	85
005	선다물공소곡 001(005) (1)	김영환	12-08-25	112
006	선다물공소곡 001(006) (1)	김영환	12-08-30	154
007	선다물공소곡 001(007) (1)	김영환	12-08-31	129
008	선다물공소곡 001(008) (1)	김영환	12-08-08	128
009	선다물공소곡 001(009) (1)	김영환	12-08-27	144
010	선다물공소곡 001(010) (1)	김영환	12-08-28	117
011	선다물공소곡 001(011) (1)	김영환	12-08-31	138
012	선다물공소곡 001(012) (1)	김영환	12-08-08	113



산마을 글 소식지 제16호

2012. 6. 25.(월)

시인의 마을

숙제

송혜교

숙제가 꼭 있어야 돼요?
윤샘, 숙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산마을의 하루

아빠가 오는 날 정현지

오늘 아빠가 온다. 후다닥, 준비하고 산을 내려갔다.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설렌다. 000이라는 곳에서 아빠를 기다렸다. 000은 마트에서 장도 보고 햄버거도 먹었다. 그 때 전화가 걸렸다. 피리리링. 아! 아빠가 왔나보다 했는데 하는 말이 11시 반으로 시간 밀렸다 였다. 흠, 조금 뒤 반이 될랑말랑 할 때 피리리링 전화가 왔다. 벌써 왔나 했더니 12시에 갈 게 흠, 속상하다. 엄마와 나는 잠을 좀 보다 의자가 있길래 쉬었다. 그러자 근새

3) 보고서 쓰기

학기 초 3학년 사회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다. 3학년 과정은 예전 한 번 경험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통스러웠던 과목이었다. 이번 오랜만에 3학년을 맡고나서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이 사회과 지도서와 교과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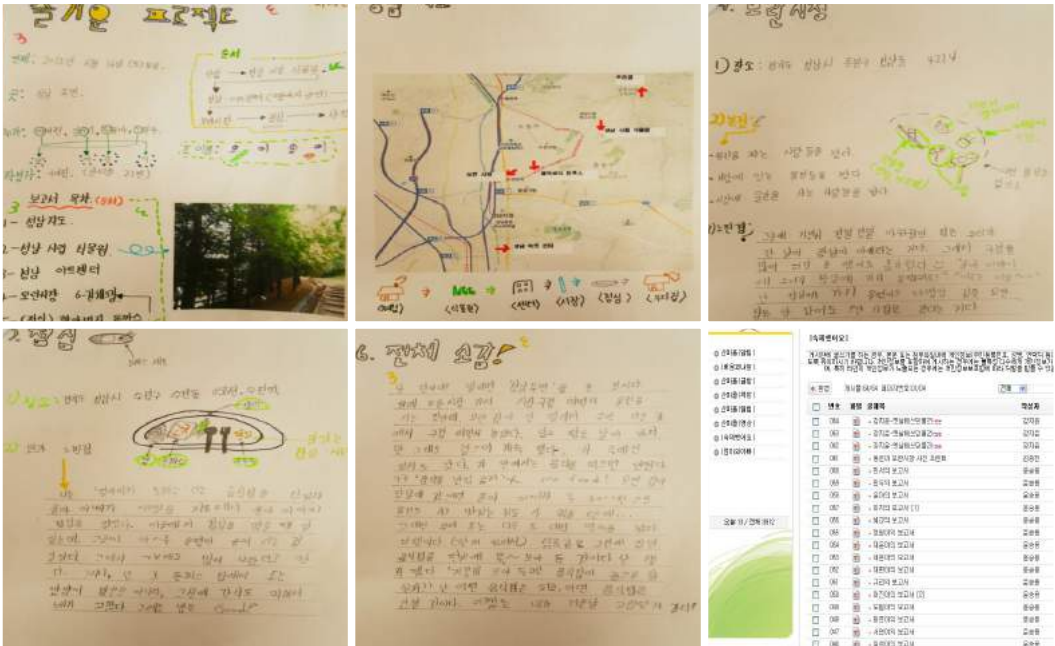
우리고장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었다. 지도 공부,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행사, 인물 등을 단원 나눠 배치해 놓았다. 사실적인 몇 가지 정보를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한다면 무의미해 보였다.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우리고장을 몸소 겪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반 전체가 현장학습을 모든 곳에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이동하여 겪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선 가만히 바라봐야 할 대상은 멀어져 버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에 치일 것이란 생각과 집단이 함께 겪어야 할 것과 소수가 함께 할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도 함께 했다.

고민 끝에 ‘우리고장 둘러보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우선 전체형과 모둠형으로 나누었다. 전체형은 우리 반 전체가 함께 경험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했고, 모둠형은 4~6명의 소수가 경험했으면 하는 것으로 짰다. 전체형은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모둠형은 주말에 아빠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전체형은 학교 주변 마을, 학교 주변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축제참가하기, 한강 거슬러 자전거 타기로 정했다. 모둠형은 우리 고장에서 일곱 곳을 선정하여 모둠별로 순환하면서 둘러보는 것으로 했다. 현장학습을 가기 전 무엇에 초점을 두어 활동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다음 날 다녀온 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서는 모둠별, 개인별로 쓰기도 했고, 모둠 일정이 불가피하게 맞지 않았을 경우 과제 형식으로 썼다. 보고서는 쓰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았고, 게시판 또는 둘러보기,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같이 보기 형식을 취했다. 전체 소감문은 몇 편을 골라 글 소식지를 통해 나누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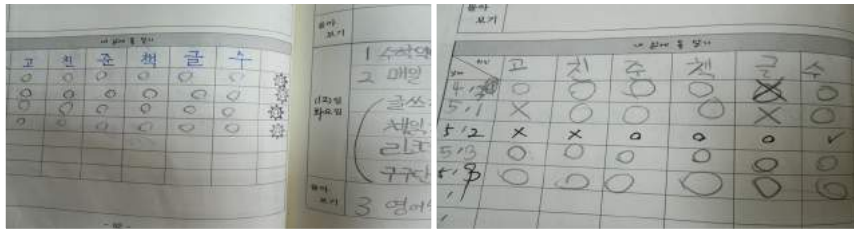
처음 받아보았던 보고서는 꾸미기에만 열중하여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현장학습을

단순히 재미로, 교실에서 수업하지 않고 밖에 나가 노는 것 정도로 인지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였다. 보고서를 서로 나누는 속에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자 현장학습의 참여 자세와 보고서의 질이 조금씩 달라졌다. 물론 “소감은 몇 줄 정도 써야 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음, 우리가 다녀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한 바닥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와 같은 강요도 있었지만 말이다. 개인별로 쓴 소감문은 ‘자람 나무’ 라고 하는 파일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새로 보고서를 쓸 때마다 다시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평가는 있었을까? 난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경험치를 체계화하여 드러내는 능력은 향상되었다고 믿는다.



4) 내 삶에 뜻달기

학교에서 개발한 알림장 양식이 있다. 단순히 학교에서 전달하는 내용만 적어가는 메모장이 아닌, 시간을 계획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알림장으로 기획하여 만든 것이다. 알림장 양식 중 ‘내 삶에 뜻달기’ 라는 것이 있다. 학기 초 담임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 매일 스스로 체크하는 곳이다. 우리 반은 고(운말 쓰기, 욕하지 않기), 친(친하게 지내기, 싸우지 않기), 준(준비물 잘 챙기기), 책(매일 책 읽기), 글(매일 글쓰기) 다섯 영역에 대하여 매일 체크한다. 모두 통과하면 조그만 도장 하나를 받는다. 도장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보상을 주거나 그렇지 않는 않다.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것뿐이다. 모두가 약속한 삶을 모두가 지킬 수는 없다. 자기 삶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삶, 성찰이 답일 것이다.



5) 스스로 통지표 쓰기

우리 학교 교육의 과녁, 뼈대, 잣대가 정해지고 이것을 반영할 통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 과녁은 배움과 나눔으로 삶을 가꾸는 어린이, 뼈대로 삼은 두 축은 배움과 나눔이다. 배움을 알아볼 수 있는 잣대는 겪고 드러내기, 스스로 하기, 함께 하기, 새롭게 하기, 깨닫기로 나눔을 알아볼 수 있는 잣대로 귀담아 듣기, 다른 사람 배려하기, 생각과 느낌 나누기, 공공문제 풀기, 어려움 함께 나누기이다.

학기마다 나가는 통지표는 이런 학교교육의 과녁에 비추어 학생 자신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한 진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새롭게 통지표를 기획, 제작하게 되었고 학부모에게 한 학기에 한 번 통지하게 된다. 1학기 통지표의 작성은 방학 중에 이루어지게 되고, 개학과 동시에 배부된다. 이 통지표는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점에 있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선된 진술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학기를 마무리하기 전 스스로 통지표를 쓰는 시간을 갖는다.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쓸 수 있다. 한 학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만의 언어로 쓰는 것이다. 가는 길 중간에 자신을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한다.

2011학년도 2학기 **배움과 나눔 함께 보기**

듣마를 이름 : 권성민

• **배움으로 삶 가꾸기**

들음으로 겪기(체험) _____

스스로 하기(자발) _____

꾸준히 하기(성실) _____

함께 나누기(협동) _____

새롭게 하기(창의) _____

교과	비고	보개와 쓰기
국어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 학업기 토론 글쓰기 </div> <div> *글을 읽고 생각을 자세히 밝히기는 글쓰기 활동을 꾸준히 하면 중입니다. *누구에게 제안하고, 무엇을 제안하는지 분명하고 제안에 어울리는 자료를 바르게 제시하며 제안하는 글을 씁니다. </div> </div>	

2011학년도 2학기 **배움과 나눔 함께 보기**

듣마를 이름 : 민솔

• **나눔으로 삶 가꾸기**

마음 나누기
(경청, 배려, 소통) _____

다들여 살기
(공공성, 봉사) _____

말과 행동	잘 함	보통	노력이 필요함
준비를 잘하기	○		
말과 글(사건계획) 확인하기	○		
과제 해오기	○		

6) 월 배움 계획과 한주 배움 계획

아이들과 한 해를 꾸러가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해 동안

올해부터 함께 실천하고 있는 ‘월 배움 계획’이 있다. 한 주 동안은 계획하여 안내하는 ‘한주 배움 계획’을 한 달로 확대한 형태인 것이다. 매달 시작하기 한 주 전에 월 기획 회의를 하는데 모든 교사는 자신의 가르침 계획을 일정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우선은 교육기획력을 스스로 높여보자는 의도가 강하다. 한 주 동안은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은 단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마는 대부분의 학교의 주간학습 안내보다는 실질적이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배움을 기획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교과간의 통합에 대한 안목도 길러보자는 의도도 컸다. 물론 월 배움 계획은 한 주 배움 계획에 반영된다. 하지만 배움의 장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월 배움 계획은 수정되고 한 주 배움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이는 학급교육과정에 정리되어, 교육이력철 구실을 한다.

한 주에 한 번씩 열리는 교사회의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누는 주제는 한 주 동안의 ‘학급 살이’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 고민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새로운 점 등 이야기를 꺼내고 꺼낸 이야기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고민되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들었던 문제가 쉬 풀리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한다. 교사들과 나누는 아이들 이야기는 중요한 평가의 장면일 것이다.

고민과 새로움의 기쁨은 교육일기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한다. 발견한 기쁨과 슬픔이 녹아있는 교육일기는 소중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평가일 것이다. 서로의 수업을 보고, 쓴 수업 참관 후기 또한 교육평가의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서로가 느끼고 생각하는 교육에 관해 좀 더 정선하여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배움은 기쁨 그 자체다.

-78-

평가의 본질(참평가)은 성취검사(비교·선발·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 결과의 평가)가 아니라 학습평가(학습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이다. 참평가는 ㉠아이들 간의 성취비교보다는 그들 각자의 성장을 목적으로 ㉡수업 중에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의 평가를 말한다. 이런 참평가가 전제하는 학습은 그 자체가 목적인 학습이다. 학습활동의 존재 이유를 그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는 학습, 결과의 비교가 아닌 과정 자체에의 몰입에서 찾는 학습이다. 이런 참평가 전제하는 학습은 그 자체가 목적인 학습이다. 학습활동의 존재 이유를 그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는 학습, 결과의 비교가 아닌 과정 자체에의 몰입에서 찾는 학습이다. 요컨대 참평가는 “학습과정의, 학습과정에 의한, 학습과정을 위한” 평가이다.

이런 논의에 더해, 외부평가와 결과중심의 평가는 지양 아닌 없어야 할 것이다. 찾고 다져야 할 교육평가는 공식적인 평가이기보다는 “비공식적 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일제평가기기보다는 개별평가이고, 규칙적 평가이기보다는 수시평가이다. 그것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과 밀착된 평가일 것이다. 학습에 거의 무관한 평가가 실은 학습에 거의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외부평가와 결과평가가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내부평가와 과정평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사별 평가방식과 교육이력철에 의한 기록방식이 참평가에 가장 근접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교사별 평가는 ‘내가 가르친 학생은 내가 평가한다.’는 교육원리에 따르는 평가방식이다. 교사별 평가는 가르친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가진다는 원리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교사별 평가는 교사의 독창적인 코스워크 기획, 평가계획·내용·기준의 공개를 논리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그 자체 교사의 교육기획력이 살아나도록 유도한다.³⁾

며칠 전 참여하고 있는 교사모임 조직특위 회의에 다녀왔다. 나온 여러 이야기 중에서 현실의 척박함이 중심 화두였다. 수업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연수를 해도 돌아오는 질문은 “그 학교는 시험 안 보나 보죠?”란다. 외부에서 강요되는 평가가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교육의 단계가 준비교육만 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중등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대학입학을 위한 중등교육,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대학교육. 어디에서도 진정한 교육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교육에 대한 논의가 비뚤어지고 왜곡되다 보니 교육평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참평가를 찾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소중히 다져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7. 마무리하며

학교교육과정 소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이야기보다 질문만 남긴 것 같아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 남한산초등학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민한 시간이 짧아서 그런 듯하다. 함께 나누는 선생님들과 늘 묵묵히 이야기 나누고 다져가

3) 조용기의 『교육의 쓸모』와 김민남·손종현의 『한국교육론』의 논의를 가져왔다. 자세한 사항은 이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만 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아이의 성장과 배움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학교, 학교교육과정 이야기가 그 출발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학교교육과정을 짜고 다지는 일을 말 그대로 지난한 일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책상 옆에는 그 동안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회의록 모음이 쌓여 있다. 전사한 것이 아니라 수첩에 적어 두었던 걸 정리한 것이다.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선생님들의 저마다의 의도, 의지, 뜻에 맞게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어떻게든 정리를 하다 보면 모두 나의 낱말밭 안에, 나의 낱말 부림 안에서 정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리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또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쌓아가고 있다. 한 해 동안 시간 내서 특정한 날에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생각한다. 지속적인 주제잡기와 이야기 쌓기, 정리의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공부하는 분야에 나의 원고와 말이 도움이 되었길 바랄 뿐이다.

-끝-

즐거움 배움! 행복한 성장! 함께 하는 우리!

포남초등학교 교사 남정아

하나. 왜!

“제 머리가 심장을 잡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지난 3월,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겨둔 말이다. 입시지옥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은 경쟁교육에 매몰되어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성적’이라는 굴레속에서 배우는 즐거움보다 참고 견뎌내야 하는 지나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 아이의 마지막 말은 가히 폭력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우리나라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생들의 직접적이고 압축적인 울골은 교육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채학사가 사다였던 이 나라의 우장은 그릇한 명분으로 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럴 때 다가가게 하는 공부는 하류하류 뒤로 밀려나고, 데 어찌자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아. 이브라가 다브라 가적은 반드시 알아야.

어느 사교육업체의 광고문구에 등장하는 위의 말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친구는 경쟁대상일 뿐임을 강조하며 우정을 멀리할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이 문구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해 현재의 가치로움과 행복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생겨나면서 초등학교 교문앞에 버젓이 붙어있던 ‘6학년 목숨걸고 공부하는 기간’이라는 플래카드는 현재를 저당잡힌 채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아이들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나도 .. 당신도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도 그래라 그래라 하고, 학교도 어쩔수 없다고 그냥 내버려두는데...

애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지난 해 온전히 학교의 이야기만으로 우리나라 교육주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며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드라마 ‘학교2013’은 입시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 지, 어른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게 해준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함’을 잊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비교육적 행태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최고로 꿈꾸며 들어왔지만 우리들 중 누구도 그곳에 남아 있지 못했다."

우리나라 초호화 유치원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그려낸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라는 드라마는 입시와 경쟁교육이 결코 청소년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 아이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아주 어린 아이들의 삶 또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게 우리현실이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교육, 최고가 되어야 하는 교육, 두려움을 갖게 하는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라 이름 붙일 수 없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다시 던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실행해 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고민하며 올바른 방향을 정

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프리카 원주민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고 한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요인도 한 사람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교육을 꼽고 있다. 다수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서로가 경쟁하는 것만이 아닌 최후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교사와 교사가, 교사와 학생이, 학생과 학생이,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의 주체들이 ‘경쟁’이라는 굴레를 벗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본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할 것을, 배움에 있어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질 것을, 그리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는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란다.

희망은 원래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되는 것이다.

- 노신 -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 길을 만들고 있다. 희망을 만들어 간다. 행복더하기학교 2년차. 민주성, 참여, 자율이라는 틀거리를 짜고 모든 이가 함께 걸을 수 있는 탄탄한 길을 만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어깨 걸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고 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이 될 것이며 길이 될 것이다. 심심한 언덕도 지날 것이고 격정적인 파도도 헤쳐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 삶의 경험으로, 지혜로 쌓여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길찾기 한걸음.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학교 운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중심의 학교환경을 만들며 자율적 참여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운영문화를 추구한다.

길찾기 두걸음. 몸으로 부딪치면서 삶을 느끼는 살아있는 배움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직접 경험이 주가 되어 어린이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인 측면의 온전한 성장을 꿈꾸는 교육과정실현을 추구한다.

길찾기 세걸음.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성장을 꿈꾸며 협력하는 문화가 교사와의 만남, 학생과의 만남, 학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습 속에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길찾기 네걸음. 줄세우기와 경쟁보다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방법을 고민하여 교육적 가치

를 고려하고 실현할 수 있는 평가혁신을 추구한다.

길찾기 다섯걸음. 스스로 삶을 가꾸는 힘을 길러주는 학생자치, 나눔과 배려, 협력이 일상화되는 생활교육을 연구하여 학생문화혁신을 추구한다.

길찾기 여섯걸음. 배움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출발점들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꿈꾸는 돌봄과 배려의 교육문화를 추구한다.

둘. 포남교육이 꿈꾸는 모습¹⁾

현재 학교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 철학과 존재를 잃고 경쟁과 입시, 억압과 소외라는 미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는 학교를 혁신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교 구성원들을 살리고 교육의 본질에 다가서는 길이라는 윤리적 절박함을 느낀다. 지금의 학교와 교육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아 희망과 행복의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복더하기학교는 출발한다.

1. 철학이 있는 교육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주장은 넘쳐난다. 하지만 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없다.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이 빠져 있다. 학생들의 삶을 다루고 어떻게 삶을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대신 경제성장의 수단이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보거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도구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철학이 있는 교육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2. 존재를 찾는 교육

학생들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을 지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존재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교육을 출발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똑같은 존재의 무게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접받아야 한다. 특히 가장 약자인 학생들도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이것을 교육을 통해 느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학생들도 다른 존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이기도 하다.

3. 성장하는 교육

교육의 본질은 “성장과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배움”에 있다. 교육을 통해 자신과 우리를 변화시킬 수

1) 포남초등학교 한 해 살이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혁신학교연구회에서 함께 책 읽고 공부하며 정리한 학교혁신의 철학이다. 우리 교육에서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켜보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궁극적 가치를 담고자 노력했다.

있어야 한다. 새로움을 만드는 것, 변화를 만드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기존의 자기를 해체하고 새로운 자기를 구성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 과정은 존재들 간의 다양하고 우연하며 생성하는 만남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교육은 성장과 변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침묵을 깨고 부단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자아실현을 교육장면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4.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일제고사’, ‘암기식 수업’, ‘문제풀이 수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획일적인 교육을 바꾸기 위해 서라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 나무들은 서로 다른 땅을 밟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자라지만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태양과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각자의 다름을 발견하게 하고, 그 다름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것이 ‘다름’과 ‘함께’의 공존이며, 공동체 교육이다.

5. 서로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교육

배움은 마주침에서 나온다. 상처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며, 기쁨을 만나고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단절과 고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밀도 있는 관계 맺기 혹은 접촉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돌봄이기도 하다.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서로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창조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도 크지만, 함께하는 힘은 더욱 커진다. 그것이 ‘집단지성’의 역동성이다.

6. 삶을 다루고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

교육은 삶이다. 다양한 삶이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위한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이 교육이다. 교육이 삶의 수단이 아닌 삶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교육은 학교 구성원들의 삶을 다루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모든 희망을 미뤄둘 것을 강요하는 교육을 멈춰야 한다. 현실을 버리고 삶을 외면하는 교육이 미래를 담아내고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학교와 교육은 항상 학교 밖(외부)에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7. 물음과 배움이 있는 교육

지금 교육은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것을 반복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기존 질서와 스승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발견에 대한 기쁨이나 앎의 희열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힘들고 지남하며 피곤한 학습노동만이 남게 된다. 설명하기보다 질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은 지시하고 통제하기보다 자유롭게 사유의 날개를 펼치도록 자유의지를 키우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른들이 모든 배움의 과정에 대한 계획표를 짜 주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배움의 과정을 디자인하게 해야 한다.

8. 과정과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우리 교육은 수영장이나 물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는 듀이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패와 성공 여부를 떠나 체험 과정의 기억은 몸으로 남는다. 글자 그대로 ‘체험’이며 과정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험이 없고 배우는 과정을 잃어버린 교육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실패를 소중히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설프더라도 그 서툰 것을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이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9. 자율과 참여로 만드는 교육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각자의 몫이다. 학생들은 교육 속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자율이며 참여이다. 자유는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참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자율적 기획과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 감응이 있고 균형감을 갖춘 살아있는 교육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1등, 학벌, 입시, 문제풀이, 지시, 통제, 지식, 암기 등의 언어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균형을 갖춘 교육이 요구된다. 배움, 돌봄, 성찰, 앎, 깨달음, 사유, 행복, 생태, 평화 등으로 언어체계를 바꿔야 한다. 몸과 마음, 지식과 정서, 교과와 특별활동, 교과와 교과, 공간과 공간, 교장과 교사 간의 권력, 교사와 학생들,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갖춘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정보 제공’의 시대라고 하지만 훨씬 더 깊은 눈과 마음으로 ‘정신(감응)’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1. 꿈을 키우고 희망을 만드는 교육

많은 학생들이 꿈을 잃고 있다. 그 중의 일부는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직업이나 돈과 같은 수단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교육이 가져온 그늘이다. 자신의 꿈을 키우고 더불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면서 ‘지금-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꿈을 만들고 희망을 가꾸는 일에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픔과 눈물이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꿈과 희망은 미래의 현실에서 삶에 진정한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꿈을 만드는 과정이다.

셋. 포남교육의 밑그림

즐거운 배움! 행복한 성장! 함께 하는 우리!

‘즐거운 배움! 행복한 성장! 함께 하는 우리!’를 추구하는 포남초등학교는 ‘지금, 여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교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금’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꿈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들이 배우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 구조, 관계, 교육과정을 새롭게 하려는 근본적인 시도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가기 싫은 곳이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앓과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고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성장의 장이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목적을 제시한다.

- 학생 개개인이 학교생활 전체 장면에서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학교
- 학생 자신이 적성과 소질, 생각과 느낌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제공되는 학교
- 자연 친화적인 학교 시설과 환경 속에서 감성과 체험을 중시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와 동문이 학교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가 구현되는 학교

넷. 우리가 걷고 있는 길²⁾

학교혁신은 틀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본질을 무시하고 성장을 멈추게 하며 죽어있는 학교의 시간과 공간, 물적, 인적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과 학교를 그 뿌리부터 다시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하며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장으로 학교의 배치를 바꾸어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길찾기에 나섰다.

1. 길찾기 한걸음 -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학교 운영

학생 중심의 학교 환경 만들기

효율적 관리를 중심에 두고 학교 환경을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학교 환경을 만든다. 학생들이 즐겁게 놀고 배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학교 공간을 구성한다.

◎ 놀이와 배움이 있는 공간 만들기

- 숲속 놀이터, 실내 쉼터, 사육장, 발농사 실습지
- 실과 실습실, 학습준비물실, 음악실, 미술실

2) 학교혁신을 이야기하며 6대 과제를 설정했다.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혁신, 학교문화혁신, 평가혁신, 생활교육혁신, 돌봄과 배려의 교육복지. 이 글은 포남초등학교 한 해 살이에서 개별 과제들이 지향하는 점을 발췌하여 정리한 글이다.

- 어린이 회의실 및 동아리실

◎ 깨끗하고 맑은 교실환경 만들기

- 학년을 시작하는 준비기에 청소전문가를 활용한 교실 정비 및 청소를 마무리한다.



수업을 지원하는 학교 행정

학교의 모든 조직과 행정은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기존의 업무 중심의 학교 행정을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운영한다.

◎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포남 업무 조직

-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구성한다.
- 교무행정지원팀을 조직한다.
- 학년군별로 협력할 수 있게 업무를 배치한다.
- 5, 6학년 교사들은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하나의 업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학교전반적인 운영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학년별, 업무별 추진팀을 구성한다.

◎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원업무정상화

- 교감주도형 행정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교무행정사 제도를 활용해 교무업무를 지원한다.
-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권한이양, 위임 전결 규정을 확대해 업무경감을 이룬다.
-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장부는 폐지 및 축소한다.
- 불필요한 '잡무'와 꼭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여 업무경감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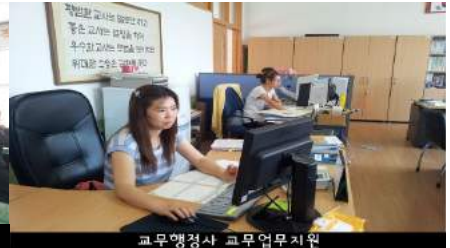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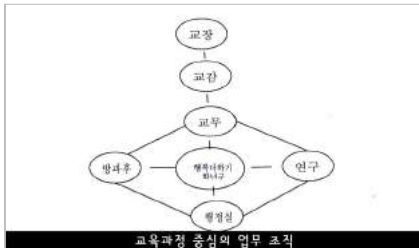
◎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운영

- 민주적인 예산 편성과정을 거쳐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는 예산을 집행한다.
-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학습준비물과 체험학습비를 학생 부담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

◎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행사

-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는 역할을 해 왔던 각종 대회와 전시성 목적을 가진 행사를 하지 않는다.

- 교육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비교육적인 각종 교육방법과 제도를 없애는데 주력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학교 행사를 추구한다.
- 교육적 효과가 탈색되고 부작용이 많은 수상 제도를 과감히 없애고, 내적동기를 강화하는 교육활동을 한다.
- 일부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도하는데 별도의 교사업무가 과중되는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지 않고 청소년 단체에서 배울 수 있는 활동을 교육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한다.



민주적인 참여구조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운영 원리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과 참여이다. 학교는 자율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포남 교사회

- 모든 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회의 시스템을 만든다.
-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의견이 다른 경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다.
- 업무의 효율성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적 판단을 중심을 두고 협의한다.
-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구조를 만든다.
- 교사들의 다양한 지원 요구와 개선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부장회의에서 결정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학년군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부장회의에서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학교 운영에 교사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내실있는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사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재논의는 교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제시한다.

◎ 포남 인사 원칙

교사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통한 학년 배정 및 업무 조직으로 교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도모한다.

- 기존의 업무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희망과 특성으로 학년 및 업무를 배정한다.
- 수직적 관료주의 체계에서 벗어나 동료성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
- 1인 책임 업무제를 지향하여 자발성과 책무성을 극대화한다.
- 업무처리를 간소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 학년 업무를 토대로 한 각 중 추진팀을 구성하여 여러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 포남 교사회를 통하여 학년 및 업무, 보직교사를 추천하고 임명한다.



포남 인사 원칙

- 열린 학년 및 업무 배정
- 동료성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
- 포남 교사회를 통한 학년, 교과전담 및 업무, 보직교사, 포상 대상자, 연수대상자 추천, 수업보결 순서 배정



2. 길찾기 두걸음 - 온전한 성장을 꿈꾸는 교육과정

어린이의 온전한 발달을 고려하는 교육과정 실현

어린이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 학습욕구 및 희망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디자인한다.

◎ 주제중심 교과통합교육과정

- 주제중심 교과통합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교과들을 수업의 장 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을 지어서 계획하고 가르치며 평가하는 활동을 말 한다.
- 교과별로 상호 관련되는 내용을 묶어 필수적인 교육내용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과들 속에 포함된 중복된 내용들과 중복된 기능들을 줄여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 교육내용을 배울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한다.
- 교과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교과학습과 생활과의 연관성을 높여 교과학습의 의미를 삶과 관련지어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선정하여 활동중심 교육과정을 만들며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획한다.

▣ 좀 더 자세히

< 4학년 주제중심 교과통합교육과정 구성 예시 >

3.4-4.20	주제	나너우리	수업일수	35	시수	186	누계시수	186
주 제 통 합 교 과								
교과	단원	학습목표 및 평가			수업 적용 팀	기간	시수	누계
듣말쓰	1.생생한 느낌 그대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친구들 앞에 쓰거나 말하기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발표시 발표내용 체크리스트에 기록)			나를 표현하기-듣기 싫은 말, 좋은 말, 내 소개	3월 1주 3월 2주	6	42
	3.이 생각 저 생각	토의가 무엇인지 알고 절차에 따라 토의에 참여하기(학급회의 시 의견 제시 내용과 횟수 체크)			게임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학급 규칙 정	3월	6	

			하기	1주		
	8.같은 말이라도	듣는 이의 처지를 생각하며 부탁, 거절하는 말하기	학급규칙-항상 배려의 말 사용하기	3월 1주	6	
	6.의견을 나누어요	제안하는 글의 짜임과 내용 알고, 문장성분에 주의하며 제안하는 글을 써서 발표하기(글쓰기 학습지에서 문장성분 파악)	게임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와 연계. 학급 규칙 관련 마무리로 글쓰기	3월 3주	6	
	6.의견을 나누어요	글을 읽고 등장 인물의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의 주의점 알고 판단하기	학급 회의시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	3월 2주	6	
읽기	1. 생생한 느낌 그대로	시와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기	생태감수성 키우기에 중점을 둔다.	4월 1주 4월 2주	6	
	살뫼의 거미줄/ 프레드릭 / 로알드 달의 발칙하고 유쾌한 학교/ 나쁜 어린이표	책을 읽고 자신과 연관 지어 짧은 감상문 쓰고 게시하기 (글쓰기 공책 활용하기)	모두 돌려 읽기. 주 1회 다함께 읽기. 들말쓰 1시간 확보하여 글쓰기, 프레드릭 읽어주기	3월 3주 4월 3주	6	
사	1.우리지역 자연환경과 생활	자연환경과 지도 속 요소들의 개념을 알고 지도를 읽어내어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소개하기(지도읽기 학습지 분석)	기본 개념 익히기 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넓혀주기	3월 3주 4월 3주	9	12
	3.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지역	선거 과정과 대표 선출시 고려할 기준을 알고 학급 대표 뽑기에 참여하기	학생회 일정 참고하여 적용	3월 1주	3	
	7.시각문화 환경과 미술	내 캐릭터를 만들어 학급 결개 완성하기에 참여하기	광목, 플로터 방법 정하기부터	3월 1주	6	
미	5.관찰표현	찰흙 만지기		3월 4주	2	
	1.형과 색	자연환경 속에서 비슷한 색과 반대 색 찾아보고 형과 색의 어울림 생각하며 표현하고 감상하기	개념 정리 후 아침 산책과 연계하여 진행. 복잡한 형태그리기	3월 1주 4월 2주	6	20
	5.관찰표현	세밀화가 있는 식물도감, 동물 도감 완성하기(도감 분석-1학기말, 스케치북 활용하기)		각주로	6	
음	1.종달새의 하루	기본 음표와 쉼표 이해하고 가사 바꾸어 나의 하루를 표현하는 곡을 완성하여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기(독창 및 합창시 체크리스트에 기록, 음표와 쉼표 학습지)	첫 주 나를 표현하기의 연장선상 으로, 자율 발표로 진행하며 모두를 평가하지 않아도 됨	3월 2주	3	
	5.방울꽃	리코더운지법(파샷) 알고 4박자에 맞게 연주하기 / 바른 자세로 실로폰 연주하기		3월 4주 4월 3주	4	7
	23. 이 몸이 새라면	리코더 시플렛 알고 2중주 하기	리코더 첫 수업시 따뜻한 숨 등 강조			
창	식물 도감, 동물 도감	자신이 그린 식물이나 동물을 조사하여 자기의 관찰 도감에 정리하여 적기	도감 활용법을 함께 숙지하고 이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월 2주	2	5
	덧발 가꾸기	이랑 만들기	과학교과와연계하여 진행	4월1주	3	86
독 립 교 과						
수	1. 큰 수	만~조까지 수의 순서와 크기 알고 비교하기(단원평가)	자리수 구분을 위한 칸 학습지 활용	3월 2주	10	
	2. 곱셈과 나눗셈	큰 자리수의 사칙 연산 하기(단원평가)		3월 4주	12	33
	5. 혼합계산	혼합계산 하기(단원평가)	순서 구분하기에 중점을 두어 지도	4월 2주	11	
과					18	18
영					12	12
체	전담교사와 협의하여 주제에 맞는 수업을 디자인한다.				12/4	16
도					6	6
음(국)					6	6
창(동)					6	6
창(자)	학급결개 및 게임 프로젝트 학습	게임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여 학급 규칙 완성하기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기 주1회 1시간	3월1주 ~3주	3	3 0

◎ 배움의 차이를 줄이는 기본학습 다지기

· 포남초등학교는 교과학습의 기본적인 배움부족과 기초 학습력의 배움부족으로 인해 학습에 있어 성장과 발달이 또래학생들보다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 칭한다. 이는 아이마다 그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지적, 신체적, 정의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배움에 있어 속도의 차이가 일어날 뿐 결국 초등학교에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이고 보편적인 학습력은 채워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있어 배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협력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언어로 배울 때보다 자신들의 언어로 배울 때 이해가 더 쉽다고 한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더 빨리 이해하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빨리 이해한 학생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문제해결 방식을 소개하면서 서로 듣고 들어주는 관계, 묻고 대답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적인 배움을 만들어간다.
-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배움부족 원인을 발견하여 학습부진 누적현상을 막고, 정상적인 학습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기 초 진단 활동 계획에 의거하여 학급별 진단 활동을 통하여 기초학습에 있어 천천히 배우는 학생과 기본학습에 있어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파악한다.
- 학부모가 별도의 전담 강사 활용 수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
-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력관리를 통하여 꾸준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기초학습력에 있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전담강사제도를 활용하여 배움의 보충을 돕는다.
- 1학년~5학년의 교과학습의 기본학습력은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관찰하고 교육하도록 한다.
- 6학년의 교과학습 기본학습력은 수학수업 보조강사제를 활용하여 배움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부족의 원인을 찾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아침 열기’

- 아침열기 활동은 수업시작 전 10~15분 동안 진행한다.
- 같은 패턴과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어린이의 감각 발달을 돕는다.
- 하루의 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감각을 깨우는 활동과 수업과 연계된 활동으로 구성한다.
- 협동심을 기르고, 언어 능력 신장과 삶의 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학급에 맞게 계획한다.
- 가급적 계절과 절기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한다.

▣ 좀 더 자세히

아침활동	활동내용	언제
아침 만남	매일 아침 인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아이들과 하나하나 눈 맞추고, 악수하기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상태, 기질 등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어려움과 좋은 일 등에 대해서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일별로 활동을 정하여 진행한다. · 아침산책은 학년군별로 요일을 정하고 다른 학년 군과 겹치지 않게 배치한다.
감각 깨우기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몸동작, 몸풀기	
아침시 낭송	삶의 지혜가 담겨있거나, 어린이들에게 꼭 함께 하고 싶은 가치,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 등이 담겨 있는 시를 함께 낭송함으로써 어린이들 마음 속에 깊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리코더, 단소	호흡 조절, 손가락 협응력, 화합을 목표에 두고 조금씩 연습한다.	
노래 부르기	계절, 자연 등을 소재로 한 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연다.	
이야기 나누기	주말이야기, 주변의 관찰한 것, 생활하면서 느낀 것, 책 읽은 후 느낀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다.	
아침 산책	뒷산 산책,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아침을 연다.	
아침 독서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마음을 살찌우는 책읽기를 양적 읽기가 아닌 질적 읽기로 접근하여 책읽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학교도서관이나 학급문고를 이용하여 조금씩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 나간다.	



삶을 느끼는 생생한 체험 학습 운영

교과서에 갇힌 얇은 삶에서 멀어진 굳은 지식이다. 직접경험이 주가 되는 체험학습을 통해 몸으로 부딪히면서 삶을 느끼는 살아있는 배움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

◎ 보래미 배움터 - 계절별 교육과정 보충심화정리기간

- 자연 순환체계에 다른 생태적인 감성을 키우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맺음주간 ‘보래미 배움터’를 운영한다.

- 계절별 배움터마다 학년군별 교과와 연계한 계절 및 주제에 맞는 체험활동, 즉 주제중심교과통합교육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평소 실현하기 힘든 집중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배치하여 생태 감수성과 함께 문화예술감각, 역사·인권의식도 키워간다.
- 이 시기에는 교과와 연계된 주제가 있는 현장체험학습, 보래미 1박 2일, 동아리활동 발표를 펼쳐보는 보래미 한마당도 기획한다.

◎ 교과서를 들고 세상 속으로 - 주제가 있는 현장체험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학년별 발달단계와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가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한다.
- 지역사회 시설 및 재능 지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 학년별로 주제에 맞게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다르게 선정하여 6년의 학교활동 기간동안 체계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현장체험학습은 계절별 '보래미 배움터' 주간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 무학년제 동아리 활동

-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장을 만들어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계발한다.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치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기존의 교사 중심 조직에서 벗어나 어린이 중심 조직이 되도록 한다.
- 고루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깬 다양하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한다.
-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개인 부담을 최소화 한다.
- 평가는 평소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변화 정도,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술식으로 한다.
- 어린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동아리를 조직한다.
- 1, 2학년군은 금요일 4, 5교시, 3, 4, 5, 6학년은 수요일 5, 6교시에 무학년으로 혼합하여 운영한다.
-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 및 학부모 명예교사의 보조를 받고 이때에는 반드시 정규 교사와 함께 협력 수업 형태로 진행한다.
- 방과 후 시간에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가 있을 경우 학교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한다.
- 1년에 1번 보래미 한마당에서 동아리활동 발표회를 가진다.

◎ 세상을 모듬다! - 감수성 키우기

- 내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속 자연과 만나며 점점 더 범위를 넓혀 주변의 숲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생태감수성을 키운다.
- 어린이들이 아름다움을 느끼며 활동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추구하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운다.
- 천천히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하여 삶의 의지력을 형성하고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창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자신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만들어 간다. 나의 앞일을 생각하고 희망을 만들며 세상속에서 나의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다양한 세상 속 일을 만나고 내게 어울리는 활동을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세상을 모듬는 포남어린이를 기

대한다.

· 감성을 깨우는 배움 학습으로 1,2학년군은 생태교실, 3,4학년군은 문화예술교실, 5,6학년은 진로상담교실을 운영한다.

· 생태, 문화예술, 진로교실의 전문강사는 세상을 모듬는 감수성키우기 교육목적에 맞게 담임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과통합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및 관련 교과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즐거운 배움과 협력을 중심에 둔 수업만들기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수업 문화를 만든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이, 학생과 학생이 서로에게서 협력하며 배울 수 있는 수업만들기를 깊게 고민한다.

◎ 깊고 넓은 배움이 있는 묶음 수업

- 교과 편제 중심의 고정화된 시간 운영 방식에서 학생의 학습력을 강화 하고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학사운영 편제를 구축 한다.
- 학습 목표, 방법, 형태, 평가 체제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재구성하여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깊이 있고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갖고,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전체적인 것으로부터 접근하여 부분으로 지도하여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낱말이 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자연과 삶으로부터 관찰하고 패턴을 찾아보면서 만물이 생성되는 근본 원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직관을 기르도록 한다.
- 80분 단위 수업으로 1일 3묶음수업으로 운영한다.
 - 1묶음 : 종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과
 - 2묶음 : 깊고 넓게 배운 내용을 다지는 교과
 - 3묶음 : 예술, 체육 중심의 감성을 키우는 교과

◎ 프로젝트 학습

- 학급경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구성에서 교과간 연계 및 재구성을 전제로 하여 주제중심교과통합교육 과정과 접목하여 운영한다. 각 교과에서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거나 가르쳐야 할 덕목이나 월별 학급 운영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나 행사를 재구성한다.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협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한다. 잘하는 모둠에게 스티커를 준다거나 하

는 모둠끼리의 경쟁은 지양한다. 모두가 도와서 수행에 성공했을 때 함께 한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함을 통해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일이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된 것인지 직접 느끼게 한다. 혼자서 배우는 수업이 아닌 친구들과 협력하여 배움으로써 협력심을 기르고 협력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들의 주체적인 참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을 기획한다.
-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보게 하여 지식, 기능, 태도, 영성 등의 유기적 연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협력수업

- 교사는 수업에 있어 ‘가르치는 기술’보다는 아이들의 ‘배움’에 두고 탐구한다.
-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와 만남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엮어가면서 배움을 형성해 나간다.
-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만들기는 교육과정의 단원을 ‘주제.탐구.표현’의 양식으로 디자인하고 ‘활동적이고 협동적이며 표현적인 배움’을 실현하는 것이다.
- 아이들의 배움이 풍부하게 확실하게 전개하는 교실은 교사에 의해 한사람 한사람의 아이디어와 이미지의 차이가 존중되고 풍부하게 교류되는 교실만들기에 노력한다.
- 교사는 수업에서 교재와 학습자를 연결 짓고, 학습자 간을 연결 짓고, 오늘 수업과 내일 수업을 연결 짓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 짓고, 어제 배운 것과 오늘 배울 것을 연결 짓고,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 짓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 일을 한다.
-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의 흐름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듣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에게서 협력적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노력을 한다.

◎ 다시 생각해 보는 독서교육

- 학교에서 독서교육은 늘 중요시 되어왔다. 그러나 독서교육을 강조하면 할수록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독서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만으로 책 읽기를 강요한 것은 아닐지 다시 되돌아 봐야 할 시기이다. 학생들은 독서교육의 명분 아래 독서는 힘든 것, 재미없는 것, 독후활동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것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습관화하는데 독서교육의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



3. 길찾기 세걸음 -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성장을 꿈꾸며 협력하는 문화

자율과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교사 학습공동체

교사 스스로 배우는 학습자로, 반성적 실천가로, 공동체적 수업의 전문가로, 동료교사의 협력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과 학생인권, 생활교육, 학급운영, 교육과정, 수업혁신에 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협력적 배움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의 숨결 하나하나를 느끼며 호흡할 수 있는 교사이기를 희망한다.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문화 속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수업전문성을 키워가는 노력을 한다. 이는 수업을 통해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일상적 협력과 소통을 지켜보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적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수업연구회

즐거운 배움이 있는 수업을 디자인하는 일은 교사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들의 배움의 실상을 눈으로 관찰하고 이를 교사들이 함께 반성하고 비평하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아이들의 배움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로잡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교사의 수업기술을 아이들의 배움을 통해 재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같은 동료들끼리만 배우게 되면 주관이 강해진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주관을 시정하기 위해 현장을 잘 알고 현장교사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전체적인 총평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배움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연구자를 초대하여 전문가의 지견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

< 수업연구회의 수업협의 과정 >

1) 참관자의 관점 및 태도

- 수업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관찰하기
- 아이들의 수업활동에 개입하지 않기
- 수업자에 조언이 아니라 **본인이 '배운 점'을 이야기할 것**
- 수업에서 좋았던 점, 느낀 점을 교류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기

2) 이야기의 대상

- 교사의 수업기술보다는 **학습자의 '배움'**을 관찰하고 이야기할 것
- 학습자가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주춤거리는가' 라는 사실에 주목할 것.
- 교사의 지시,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 학생들은 배움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가?
- 학습들 간에 의미 있는 모둠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교실에 배움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언어와 행동은 없었는가?
- 교사는 학습자 한명 한명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 학습자와 '학습자, 사물, 사건'과의 연결 및 관계는 어떠한가?
- 학습자의 점프가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교실에 서로 들어주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가?

- 협동적인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 ‘사실발견 -> 원인 찾기 -> 자신이 배운 점’에 대한 이야기
- 6개 모둠으로 나누어 관찰(1모둠 : 1학년, 비교과교사, 2모둠 : 2학년, 3모둠 : 3학년, 3·4전담, 4모둠 : 4학년, 5모둠 : 5학년, 5·6전담, 6모둠 : 6학년, 6전담)

3) 수업연구회의 진행

- 사회자에 의한 수업 및 수업자 소개 -> 사회자는 진행만 담당할 것
- 수업자에 의한 수업의 흐름 및 수업의도 소개
- 수업자의 자기성찰 -> 본시에서의 기대 ->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힘들었던 점 등
- 수업의 디자인 측면(주제, 목표,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 되돌리기, 연결 짓기, 교사의 개입 정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 등)과 학생들의 배움(배움이 일어나는 곳, 주춤거리는 이유, 모둠친구들과의 관계, 전체적인 학급의 협력분위기 등)으로 구분하여 이야기 나눔
- 모둠 토의 시 수업자는 토의 내용을 경청
- 모둠토의를 토대로 전체적 수업 비평

4) 함께 지켜야 할 사항

- 1대 1식의 대화는 하지 않기
 - > 참관자의 의문을 수업자나 관찰한 동료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여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생각하기
- 한사람의 의문을 모두가 함께 서로 이야기하기
 - > 예로,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 내 교과에서는 이렇다”등 자신의 체험과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기
- 전원이 최저 한번은 발언하기
- 가르치는 방식에 집착하지 말기
 - > 아이들의 자세와 사실로부터 배우기
-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만 편향하여 이야기하지 말기
 - >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1) 교사의 positioning

모든 아이를 교사의 신체이미지 속으로 끌어들이는 위치

2) 서로 들어주는 관계의 구축

솔직하고 진지한 경청의 관계 구축

3) 모르는 친구가 먼저 물어보는 관계의 구축

친구에게 물어보는 습관 형성할 것

4) 교사의 세 가지 역할 재인식

듣기, 연결 짓기, 되돌리기

5) 수업디자인의 3단계

점프하는 배움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HOPE, STEP 조직

6) 3학년부터 남녀혼성 4인 소집단 구성

점프하는 배움은 반드시 협동적 배움 활용

7) 수업연구회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배움이 어디에서 성립하고 어디에서 주춤거리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8) 참관자는 자신이 배운 것을 교류할 것

수업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참관을 통해 내가 배우는 것

9) 이야기 대상을 특정학생에게 두지 말 것

모든 학생을 대등하게 대할 것

< 수업 열기 참관 기록 >

()학교 제()학년 ()반				수업자 성명	
수업교과		지도단원		일 시	2013. . .()교시

I. 학습자의 배움	(1) 학습자는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주춤거리고 있는가?	
	(2) 교사의 지시(지도)에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3) 학생들은 배움의 맥락을 이해하는가?	
	(4) 학습과 관련한 의미있는 모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학습자의 점프가 있는 배움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II. 교사의 활동	(1) 교사는 학습자 한 명 한 명에게 주목하는가?	
	(2) 학습자와 '학습자, 사물, 사건'과의 연결 및 관계(되돌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교실에서 배움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언어와 행동은 없었는가?	

III. 교실에서 의 관계	(1) 교실에 서로 들어주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2) 협동적인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느낀 점 (배운 점)	
----------------	--

〈 수업열기과정안 〉

학교		학년	수업자		교직 경력	
수업교과		지도단원			차시	

주제	
수업의 흐름	
교사의 수업철학	

● 교사연수

- 교사 스스로가 배우는 학습자로, 반성적 실천가로, 공동체적 수업의 전문가로, 동료교사의 협력자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내 연수를 실시한다.
- 교사연수는 혁신학교 철학, 아동관, 교사관, 교육과정관, 수업 혁신에 대한 철학공유 및 실제적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매주 목요일은 교사 연수일로 한다.
- 교사들의 교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형성해 간다.

▷ 함께 듣고 나누는 원격연수

- 2013학년도는 수업 혁신을 중심에 두고 학기별로 원격연수를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
 - 1학기 :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손우정 교수)
 - 2학기 : 희망하는 주제로 정하기

▷ 아이 이해 연수

- 아이 이해를 위한 연수로 ‘미술치료’ 연수를 진행한다.
- 수요자 현지 직무연수로 신청하여 운영한다.(기간 : 5/9~6/13)

▷ 문화연수

-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학교 교직원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생태교육 교사 연구모임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한다.
- 현장교사와 생명의 숲 생태 해설사가 만나 생태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연구·공유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만든다.

◎ 책모임

- 교사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함께 책을 읽고 발제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토론회도 함께 한다.
- 책을 통해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다진다.

◎ 교직원 생일잔치

- 포남초등학교 교직원들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문화 만들기의 방법으로 교직원 생일잔치를 준비한다.
- 매월 말 생일에 해당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공동 잔치를 기획한다.
- 떡 케익, 도서상품권, 작은 화분, 격려의 글을 담은 엽서를 활용한다.

◎ 평가회

- 학기별로 전체 교직원이 평가회를 진행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기획한다.
- 평가회 주간 동안 평가자료집을 만들고 다음연도 해살이 교육활동 계획에 반영한다.

▣ 좀 더 자세히

< 학교준비 단계 연수 >

일정	내용	주관(강사)	시간	대상
2. 18	민주적 학급운영 연수 인권, 평화, 협력	행복더하기학교운영부장 서울 신현초 이영주	3	강원도 전체 교사
2. 19	교육활동 해살이 준비협의 담당, 업무 정하기	교무	2	교사
2. 19	생태교육 연구팀 구성을 위한 사전 협의	행복더하기학교운영부장 생명의 숲	2	1~6학년 교사
2. 20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및 포남교육 해살이 협의	교무 행복더하기학교운영부장	2	교사
2. 20	주제중심 교과통합교육과정 - 프로젝트 학습 실천하기 -	행복더하기학교운영부장 부산 금성초 박선주	3	강원도 전체 교사
2. 21	상시평가 시행을 위한 연수	행복더하기학교운영부장	3	강원도

	- 평가, 성장을 위한 대화 -	경기 조현초 최 탁		전체 교사
2. 28	학년교육과정 해설이 계획 발표회	행복더하기학교운영부장	2	교사
2. 28	새로운 입학식 및 시업식에 대한 논의 및 준비	교무	2	교사

< 학교운영 단계 >

일정	내용	주관(강사)	시간	대상
3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원격직무)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15	교사
	배움의 공동체와 수업 연구	강릉교육지원청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2	관내 교사
	학년연구회	학년(군)	2	학년(군) 교사
	수업연구회	연수 담당 교사	2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4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원격직무)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15	교사
	학년연구회	학년(군)	4	학년(군) 교사
	수업연구회	연수 담당 교사	2	교사
	수업열기(컨설팅)	연수 담당 교사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3	관내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5월	미술 치료(아이 이해 연수)	연수 담당 교사 (김창호 선생님)	12	교사
	학년연구회	학년(군)	4	학년(군) 교사
	수업열기(컨설팅)	연수 담당 교사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3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6월	미술 치료(아이 이해 연수)	연수 담당 교사 (김창호 선생님)	3	교사
	학년연구회	학년(군)	4	학년(군)

				교사
	수업연구회	연수 담당 교사	2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학부모 대상 수업 열기 및 상담주간 운영	행복더하기운영부장 연수 담당 교사	·	교사
7월	학년연구회	학년(군)	4	학년(군) 교사
	수업열기(컨설팅)	연수 담당 교사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3	관내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1학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평가	교무부장 행복더하기학교운영부장	3	교직원
8월	각종 교육 연수(희망교사)	연수 담당 교사	방중	교사
9월	교육철학 다지기	미정	2	관내 교사
	학년연구회	학년(군)	3	학년(군) 교사
	수업연구회	연수 담당 교사	2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10월	학년연구회	학년(군)	4	학년(군) 교사
	수업연구회	연수 담당 교사	2	교사
	수업열기(컨설팅)	연수 담당 교사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3	관내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11월	학년연구회	학년(군)	4	학년(군) 교사
	수업연구회	연수 담당 교사	2	교사
	수업열기(컨설팅)	연수 담당 교사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3	관내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12월	학년연구회	학년(군)	4	학년(군) 교사
	수업열기(컨설팅)	연수 담당 교사 (배움의 공동체 손우정 대표)	3	관내 교사

	생태교육 연구모임	남희정 생명의 숲	1	교사
	2학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평가	교무부장 행복더하기학교운영부장	10	교직원

< 교사들의 배움을 위한 책 >

순 서	분 야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1	수 업 혁 신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사토마나부	에듀니티
2		주제통합수업	김정안	맘에드림
3		공부상처	김현수	에듀니티
4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김태현	좋은교사
5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사토마나부	북코리아
6		수업을 왜 하지	서근원	우리교육
7		수업, 비평을 만나다	이혁규 외	우리교육
8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이혁규	우리교육
9		교과서를 믿지 마라!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바다출판사
10		아이들을 읽자 그림책을 읽자	최은희	우리교육
11		행복을 배우는 경제수업	박현희	우리교육
12		학교도서관에서 책 읽기	백화현	우리교육
13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	우리교육
14		인권교육 날다!(인권교육 길잡이~2)	인권교육센터 '들'	사람생각
15		내가 쓰는 한국 근현대사	한상철, 이영복	우리교육
16		아이들 삶을 가꾸는 이야기 수업	김영주	우리교육
17		배움을 키우는 교실 속 북 아트	곽지순	우리교육
18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실 속 책 만들기	우경희, 박광철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19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이오덕	보리
20		삶을 가꾸는 어린이 문학	이오덕	고인돌
21		대한민국 구석구석 교과서 여행	김수정	아주좋은날
22	학 급 운 영	아이들 삶의 리듬을 잇는 학급운영	박진환	우리교육
23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초등상담	이주영	우리교육
24		마음을 여는 초등 학급 상담	김명신 외	우리교육
25		가끔 아이들은 억울하다	김대유	우리교육
26		전래놀이 101가지	이상호	사계절
27		열두 달 자연놀이	북나무	보리
28	학 급	학교야 놀자!	박현웅, 공창수 박광철, 정유진	즐거운학교

29	영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 2	조셉 코넬	우리교육
30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책 이야기	권일한	우리교육
31		화내지 않고 말썽꾸러기 대하기	케네스 쇼어	우리교육
32		마주이야기 : 아이는 들어주는 만큼 자란다	박문희	보리
33		교실 밖 아이들 책으로 만나다	고정원	리더스 가이드
34		학급혁명	고니시 겐지로	사계절
35		쿠슬라와 그림책 이야기	도로시 버틀러	보림
36		아이들은 이야기밥을 먹는다	이재복	문학동네
37	학 교 혁 신	오늘의 교육	교육공동체 벗	교육공동체 벗
38		교육신화	아더 W. 콥즈	양서원
39		교육 개혁을 디자인한다	사토마나부	공감
40		핀란드 교육혁명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총서기획팀	살림터
41		행복한 혁신학교 만들기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살림터
42		왜 학교는 불행한가	전성은	메디치
43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배경내	우리교육
44		학교가 달라졌다	이중현	우리교육
45		학교를 바꾸다	김성천 외	우리교육
46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손석춘	우리교육
47		야누슈 코르차크의 아이들	야누슈 코르차크	양철북
48		민주교육으로 가는 길	이오덕	고인돌
49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글	이오덕	고인돌
50		교육 통념 깨기 (교육에 대한 환상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	편집실 엮음	민들레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사문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지시나 명령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연결된다.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협력하는 교사문화는 그동안 일방통행이었던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평등한 사람의 만남으로 바꾸어줄 것이다. 아이들을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대우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의 과제이다.

◎ 아침맞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 일의 성패에서 많은 무게를 차지한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포남초등학교의 구성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상하, 주종, 권위자와 피권위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함을 추구한다.

- 가급적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9시까지 등교하는 학생들을 포남초등학교 교직원 들이 교문에서 맞이한다.
- 모든 교직원들을 모둠을 편성하여 서로 다른 아침맞이 인사를 진행한다.
예) 손뼉 마주치기, 손으로 인사하기, 가볍게 안아주기, 가위바위보하기 등
- 교문지도의 목적이 아닌 반가운 벗을 만나는 느낌으로 서로를 맞이한다.
- 아침맞이 담당 교직원은 자율출퇴근제를 적용한다(8시 출근, 4시 퇴근)



아침맞이 (5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든다. 더 이상 학부모는 교육에 있어 동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교육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학부모 연수 및 동아리 운영

- 다양한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육 정상화, 행복더하기학교의 철학을 실행한다.
- 학부모는 학교 교육을 위해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정 활동에 함께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부모의 성장을 위해 교육철학을 다지고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한다.

- 보래미학부모 밴드 운영하여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 행복더하기학교 교육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월 1회 학부모회 협의회를 정례화 한다.
- 학부모 동아리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움을 준다.

▣ 좀 더 자세히

< 학부모 연수 일정 >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함께 하는 이
3월	신입생 학부모 연수	도서관	1시간	교무부장
	학교폭력 및 성교육 예방 교육, 포남 교육과정 설명회	도서관	3시간	외부강사 및 교무부장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부장
	학부모회 구성 및 학부모동아리 구성(사물놀이)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 지원			학부모회 담당 교사
4월 ~ 11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사유하는 부모 건강한 먹거리 교육 교육문화 들여다보기 진로교육 자녀와의 대화 기법 우리 아이 감수성 기르기 중 선택 가족숲체험, 기차여행 기획 한지공예, 목공 등 배움과 화합을 추구	도서관	2~3시간	외부강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또한 학교는 지역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한다.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든다.

◎ 지역사회 협의체

-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고 지역 공동체의식을 기른다.
- 아이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축제를 기획한다. 학교 축제를 마을의 공간을 이용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계획하여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함께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 네트워크 구성한다. 학교, 공공기관, 지역의 문화예술인 단체가 만나 지역 예술 문화 인력의 네트워크를 구성, 학교에서의 문예체 교육, 방과후 교실 등의 교육 활동에 지역문화예술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 지역 문예체 인적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의 다양한 시도로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높인다.
- 학부모교육에 활용하여 학부모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로 학부모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하는 단체
환경 생태 교육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살피 환경과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 잘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생명의 숲
농촌 문화 체험	· 사계절 절기마다 논, 밭 농사체험과 놀이체험을 실시 · 학교 주변 텃밭이나 상자 텃밭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주문진 장덕리 마을
올바른 먹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한 급식을 실시하여 자기 지역의 먹거리 생산물에 대한 관심 갖기	한살림

교육		
마을 벽화 프로 젝트	학교 담벼락 또는 길목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내 손으로 내 학교, 내 마을을 꾸민다. 공공미술의 개념 및 설명을 통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지니게 함. 또한 직접 벽면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통학 길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시각적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다.	공공미술 ANTS
지역의 문화유 적과 학습공 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 방문을 통하여 전문 작가들의 그림을 접함. 평상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림 설명을 통해 작품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여러 형태 및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지속적인 미술관 방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림을 관찰하는 시각을 기르고 동시에 감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 우리 고장에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를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해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 지역에 있는 유적지를 답사하고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 ·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심 갖고 지역의 역사와 형성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지역문화 해설사
진로· 상담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진로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심리 및 정서면에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안팎의 시스템 구축을 추구한다.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사회협 의회
전통 문화 프로 그램	학부모 사물놀이 동아리와 학생 관노가면극 동아리에 강사와 악기를 지원한다.	강릉문화원



4. 길찾기 네걸음 - 성장과 발달을 격려하는 평가

경쟁을 강조하고 서열화를 유도하는 비교육적 평가를 지양하고자 한다. 평가의 목적은 개인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의 발달을 이끄는 것이고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의 내실화로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 하는 걸음걸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확인 하는 것이며, 목표에 도달 하도록 안내 했다면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는 수업 방법을 고민하고, 개선 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시험 성적과 결과에만 관심을 두기보다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 했는지 개인의 발달에 관심을 두는 평가가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성장을 도와 전인

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도덕적이고 민주 적인 시민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제도

기존의 평가는 주로 학생을 줄세워 경쟁시키고, 배움을 가로막는 평가였다. 이와 같은 낡은 평가관을 버리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 배움을 향상시키는 평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 평가의 본질 찾기

- 모든 평가에 있어 서열화, 경쟁추구, 비교를 지양한다.
-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수업 담당 교사가 수시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학급별, 학년별 평가 시기 및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담임의 평가권을 온전히 인정한다.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일제식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과정으로 수행평가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교육활동과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도록 한다.
- 교과학습 발달, 생활태도, 학습활동, 학습태도 및 정의적 측면의 균형 있는 관찰을 통한 평가를 한다.
- 수행평가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지필평가, 관찰법, 역할극, 토론, 자기평가, 동료평가, 협력 학습 등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관찰하고 종합 기술한다.
- 지필평가는 성적 산출이 아닌 교수목표 도달도에 중점을 두어 학생의 학습 발전의 변화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수시 평가를 하도록 한다.
- 학년별 또는 학급별 수행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두어 평가 방침과 규정을 제정한다.
- 학생의 발달을 돕기 위해 상담 및 다양한 통지를 통해 학부모와 소통한다.
- 상시 평가에 따른 연간 2회 상담, 2회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 * 봄, 가을 보래미배움터 : 학생의 발달을 돕기 위하여 학부모와 상담
 - * 여름, 겨울 보래미배움터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필수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 및 현재 학습 상황, 재량활동, 특별활동 영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기술하여 통지
- 수행평가는 교과 단원 또는 영역별 교수·학습 목표와 관련된 평가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의한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 학년별 세부 평가계획서를 준거로 평가를 실시하되 학급별 평가 유형, 시기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수행평가 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 결과를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 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발달 평가의 상세한 계획은 학년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 진단활동

- 학년 초 진단활동은 교사와 아이들의 자연스럽고 행복한 만남의 교육활동의 하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하루 1회적이고 교과학습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3월 4일 학교여는 첫 만남 때부터 아이들의 신체 발달 정도, 생활태도, 사회성 발달 정도, 교과 학습 발달 정도 등 전 영역을 교육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기록하여 1년의 학급 운영과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 진단 활동 시기와 방법은 각 학년의 특성에 맞게 1~3주정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 * 평가결과를 숫자인 점수나 상중하의 측정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징을 기술한다.
- * 진단활동을 교수-학습 시간과 별도 과정으로 분리 운영하지 않고, 교수학습 활동 자체가 진단활동이 되도록 운영한다.

■ 좀 더 자세히

< 학년별 공통 진단활동 >

◆ 1학년

영역	진단 활동 내용
신체발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갈이 과정 살펴보기(학습준비 단계 진단) * 왼손을 머리위로 돌려 오른쪽 귀 잡기-반대방향도 함께 (학습 및 활동 의지력 발달 단계 진단)
감각발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동 따라하기(리듬감, 모방발달 단계 진단) * 눈 마주치고 인사하기(자존감 진단) * 신발 신고 벗기, 책가방 가지런히 놓기 (오른쪽 왼쪽 구분, 순서와 질서 인식단계 진단) * 화장실 사용하기(배변 발달 단계 진단) * 선 따라 걷기(균형 감각 발달 단계 진단)
인지발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듣고 인지하기(청각발달, 듣고 이해하는 정도 진단) * 주어진 선 따라 그리기(이해력 정도 진단) * 어제 있었던 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구분해 보기 (시간 개념 형성 단계 진단)
정서발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함께 부르기(사회성, 외향성, 내향성 진단) * 색칠하기와 그림 그리기(색감 발달 단계 진단) * 자기 소개하기(목소리 크기 및 태도 등 자신감 진단) * 친구들과 놀이하기(사회성 발달 진단)

◆ 4학년

영역	진단 활동 내용
인지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아가며 책 읽기(문자식별, 유창성, 집중력) * 이야기 들려주기(듣기 능력, 집중력) * 글쓰기(맞춤법, 문장 구성력, 자기표현) * 두 자리 수의 사칙연산(수리 연산력)

신체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노래와 손뼉치기(신체 협응력, 조절력) * 공동체 놀이. 술래잡기(운동기능, 사회성, 적극성)
정서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놀이하기(사회성, 의사소통,) * 자기소개하기(의사소통능력, 목소리 크기, 태도, 경청하는 태도)



5. 길찾기 다섯 걸음 - 인권이 살아숨쉬는 생활교육

아이들의 신체리듬을 고려한 생활교육

놀아야 사람이고, 놀아야 아이다. 놀이는 머리 좋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즐거울 때와 행복할 때의 느낌이 어떤지 알아야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무언가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놀이를 하고 있는 아동은 아무것도 학습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 아동은 매우 기본적인 것을 학습하고 있으며,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충분히 쉬고 자유롭게 놀면서 대화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

◎ 자유 활동 시간 운영

- 중간 놀이시간 30분(1블럭과 2블럭 사이), 점심놀이 시간 1시간을 운영한다.
-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해준다.
-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놀이 공간 확보	구름다리 및 복도, 학생회실 휴게 공간 마련	수시	학기초
놀이 재료 확보	학기 초 학생들 요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놀이기구·도구 지원	수시	학기초
놀이 관련	전통놀이, 교실놀이, 자연놀이 등 놀이화 할 수 있는 자료 발굴	연중	연중

교사 연수 진행	및 공유		
-------------	------	--	--

<학생회실 환경 구성 계획>

사물함		사물함	수납장
게시판	휴게 공간(온돌)	다모임 공간(책상)	철판
문	벽		문

스스로 삶을 가꾸는 힘을 길러주는 생활교육

작은 것부터 정성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자기관리력과 자기절제력을 기르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심에 둔 생활교육을 꾸준히 한다. 또한 다양한 진로상담 교육을 통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을 가꾸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

◎ 나눔과 배려가 녹아드는 생활교육

- 일상적인 실천 교육으로 기초 생활습관을 몸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학급·학년·학년 짝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계 속에서 나눔과 배려를 배우도록 한다.
-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학생회 주관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기초 생활교육	※ 교사, 학생의 약속 정하고 공유하기(인권) ※ 3월 학급 운영 계획 함께 세우기 ※ 학생회 주관으로 생활 캠페인 진행 - 일주일 또는 한 달 프로젝트로 전교생 참여 유도 (쓰레기 줄이기 일주일 프로젝트 등) -기초 질서 지키기 : 실내정숙, 뛰지 않기 -기초 습관 기르기 : 준비와 마무리교육 -타인 존중 태도 기르기 : 경청하기, 정중하게 표현하기, 대화와 토론 규칙을 따르고 익히기 -예절 갖추기 : 바른 자세로 반갑게 인사하기, 식사 예절	수시	연중

짝 학년 프로그램	-학교 행사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짝 학년(1-2/3-4/5-6학년) 프로그램 운영 <예> 어린이날 체육대회 짝 학년 축구경기, 놀이 진행		연중
나눔 인권 행사	-학년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거나 학생회 주관 행사에 포함시켜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 행사를 운영 <예시> 사랑의 모자 뜨기, 지역사회 복지시설 방문 및 관계 맺기(텃밭에서 재배한 작물 나누기 등)	1~2회	연중

◎ 학년별 진로·상담교육 진행

- 어린이에 대한 일회적인 처치가 아닌 지속적인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 매년 3,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객관화 검사(진로)를 실시한다. 이외 학년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한다.
- 학급별 시기에 알맞은 학급상담프로그램을 운영, 일상적인 상담활동을 실시한다.
- 연 2회 학부모 상담 주간을 지정하고, 학급별로 자유롭게 운영한다.
- 전문상담교사와 연계하여 5·6학년 진로상담교육 및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진로·적성·심리검사	매년 검사를 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급 운영, 학급상담 내용에 반영하여 지도	1회	학기 초
1~6학년 상담, 치료 프로그램 운영	학년별 희망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수시	학기 중
5·6학년 진로상담교육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도덕, 실과교과에서 15시간을 확보하여 진행 -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강사 섭외	15회	학기 중
5·6학년 진로상담	-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모둠 집단상담 진행	연중	학기 중
초청 인사 강연	각 분야의 유명인사 및 아동들이 원하는 분야의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		보래미 배움터 기간
진로상담 관련 교사 연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동 학년 협력문화 만들기	연중	

□ 학년별 진로·적성·심리검사 계획

학년	심리검사	내 용
1	KID종합검사	초등학교 입학생의 EQ, IQ, 창의성, 적성유형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함
2	행동발달 적응종합검사	초등학교 2학년의 발달과업과 교육과정에 맞게 EQ, IQ, 창의성, 적성 등의 행동발달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
3	아동용 성격검사	최근 문제시 되는 ADHD를 진단하며, 아동의 문제행동에 따른 인성지도 및 생활지도에 필요한 검사를 함.
4	학습능력 진단검사	아동의 학습능력과 성향, 부모의 학습관여도, 학습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5	다중지능 적성검사	기존의 언어, 수리영역에 치중한 검사 방법에서 탈피하여 Gardner 교수가 개발한 검사로 개인의 다양한 잠재력, 적성을 검사하고자 함.
6	진로 특기적성 종합검사	자기주도학습, EQ, IQ, 창의성, 진로적성 등의 행동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사함



협력이 일상화된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가르기’보다는 ‘모으기’를 통한 집단지성이 한 두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증명되고 있다. 협력과 공유는 집단지성을 만드는 핵심 역량이다. 나누고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직접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도록 한다.

◎ 권리와 책임이 조화로운 자치활동

- 선거 중심이 아니라 참여와 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조직한다.
-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자발성과 자립심, 주인의식을 기른다.

- 자유로운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시간, 예산을 지원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div> <div>학생회 조직</div> <div> <div> <div> <div>부서명</div> <div>활동 내용</div> <div>함께 하는 교사</div> </div> <div> <div>활동부</div> <div>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 기획 및 진행, 각종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진행</div> <div>김소영</div> </div> <div> <div>방송부</div> <div> <div>매주 1회(금요일) 방송 기획 및 진행</div> <div> <div>- 1주 : 학생회 소식</div> <div>- 2주 : 지식채널 e, TV 동화</div> <div>- 3주 : 기획 방송</div> <div>- 4주 : 사연 나눔</div> </div> <div>김유정</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전체학생회 사회자 : 학급대표가 윤번제로 맡아 책임감 기르기(전교학생회장은 선출하지 않는다)</div> <div>-학급대표 : 3~6학년 학급에서 선거를 통해 연 2회 선출 (1~2학년은 1인 1역할 중심의 자치활동과 모둠활동 병행)</div> <div>-각 부 부서장 : 5,6학년 희망자</div> </div> <div>-각 부 부서원 : 4~6학년 희망자(부서별 10명 내외)</div> </div>	2회	학기 초
<div> <div>자치활동 활성화</div> <div> <div> <div>- 학급 학생회</div> <div> <div>▶ 다모임 : 매월 창의적 체험활동(특별/재량) 1시간을 금요일에 편성하여 운영</div> <div>▶ 부서 및 행사는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div> </div> <div> <div>- 학생회 자율 운영</div> <div> <div>▶ 방과 후나 자유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div> <div>▶ 학급대표+부서장 다모임 진행(모듬토의→전체토의)</div> <div>- 월 2회(1주, 3주)</div> <div>▶ 부서 다모임 진행 : 자체 활동 기획 및 친화활동</div> <div>- 월 2회(2주, 4주)</div> <div>▶ 포남 학생 생활규정, 학생회칙 만들기</div> <div>▶ 리더십 캠프</div> </div> </div> <div> <div>-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학급 학생회</div> <div> <div>▶ 다모임 : 매월 창의적 체험활동(특별/재량) 1시간을 금요일에 편성하여 운영</div> <div>▶ 부서 및 행사는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div> </div> </div> </div>	수시	매월
<div> <div>지원체제 마련</div> <div> <div>- 학생회실 환경 구성+휴게 공간 마련</div> <div>- 학생회 자치활동 예산 편성하기</div> <div>- 학생과 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문제 해결하기</div> </div> </div>		수시	연중

◎ 스스로 만들어 가며 공동체를 배우는 행사활동

· 의식 및 시상 중심의 행사활동을 지양하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
여 만들어 가도록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즐거운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간다.

■ 좀 더 자세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참여
3월	학생회 조직	- 학급대표 선출 - 부서장 및 부서원 구성	3~6학년
	친화 활동 진행	- 학생회 구성원들이 서로 친해지는 프로그램 진행	3~6학년
4월	여는 다모임	- 학생회 소개 및 계획 이야기 - 포남 학생 생활 규정 만들기	1~6학년
	과학의 달 행사	- 대회를 지양하고 학생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코너 운영	1~6학년
5월	어린이날 주간 운영 [애들아, 놀자!]	- 시상 중심 행사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1~6학년
	스승의 날 행사	-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운영	
7월	보래미 야영 1박 2일	- 준비 ▶ 희망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 준비단 꾸리기 - 야영 중 학생회 주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교사가 회의에 참여하여 지원 - 마무리 : 교사와 학생이 모여 평가회 열기	1~6학년
7~8월	리더십 캠프	- 학급대표, 부서장, 부서원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책임감을 배우며 1학기를 평가하고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운영(2학기 학급대표 7월 말 선출)	3~6학년
10월	가을 보래미 배움터	- 나눔행사 진행(예시:사랑의 모자 뜨기 등 학년에 알맞은 행사 진행)	1~6학년
	한글날 행사	- 기획부터 진행까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함.	1~6학년
11월	보래미 한마당	- 준비 ▶ 희망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 준비단 꾸리기(동아리장 포함) - ‘학생의 날’ 관련 내용 준비 ▶ 교사가 회의에 참여하여 지원 - 내용 : 동아리 활동 공유 등 - 마무리 : 교사와 학생이 모여 평가회 열기	1~6학년
12월	2학기 평가회 진행	- 학급별로 학생회 활동 평가 진행 - 학급대표+부서장+부서원 다모임에서 평가 진행 - 기록으로 남김.	3~6학년

◎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선배, 후배, 교사, 학생, 교직원 등 서로 다른 연령과 서로 다른 성격, 그리고 취미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생활하는 그런 삶의 터이다. 학교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아직 성장의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기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점에 한계도 있다.
-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도 아름다워야 하기에 그 모든 과정은 ‘교육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처벌보다는 ‘교육활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추구한다.
- 학기 초에 아이들의 심리적인 면, 사회적인 면, 그리고 혹 따돌림이나 폭력으로부터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 사전·사후 관리에 노력하고자 한다.
-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현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이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처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포남교육은 교육과정, 학생회 활동과 연계하여 타인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맺는 일을 교육활동 속에서 녹아내려고 한다.
- 포남교사회에서는 학교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교실을 운영한다.



6. 길찾기 여섯 걸음 - 돌봄과 배려의 교육복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복지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 누구나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고 소외를 극복하며 배움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썩썩 배움터

-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학교 공간인 보래미 도서관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지적 탐구심 증진 및 심리·정서의 안정을 도모 한다.
- 단순한 개인 독서에서 벗어나 독서 토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 이상 조용히 해야

만 하는 도서관 이미지에서 탈피한다.

- 학생들이 도서관을 좀 더 친숙한 곳으로 느끼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독서 프로그램	독서 토론	선정 도서 읽고 집단 토론회 개최	·기간 : 2013. 04 ~ 2013. 12 ·대상 : 전교생 ·방법 : 월 1회 실시
	영화 감상	명작, 고전 및 위인과 연관된 영화를 상영하여 책에 대한 친숙감과 호기심 키워주기	
	비타민 데이	매 달 첫째 월요일 도서 대출하는 학생에게 비타민을 제공하여 도서관과의 친밀감 키우기	
꿈꾸는 독서활동	·교육복지 대상아동과 도서 사서교사와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실시		·기간 : 2013. 04 ~ 07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방법 : 연 4회기 실시

◎ 기초 튼튼 마음 튼튼

- 기초학력부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습 코칭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층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한다.
- 학생 간의 학력 격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학교 적응력 및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한다.
- 보육교실, 아동센터, 자비원과 연계하여 학습 및 프로그램활동에 지원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마음과 생각의 키 한 뼘 더	· 진로지도 및 자기주도학습 · 학습전략관리전략 지도 · 강릉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연계사업	·기간 : 2013. 3. ~ 12. 주1회 ·인원 : 4~6학년 10명 ·장소 : 교육복지실
파워 스터디 교실	· 강릉원주대, 관동대 교직이수 자원봉사 학습 멘토 연계 사업 · 읽기 쓰기 셈하기 1:2 멘토링 수업	·기간 : 2013. 3 ~ 12. 주2회 ·인원 : 1학년 4명 ·장소 : 교육복지실
행복한 보래미	· 앨범비, 발표의상대여비 지원 · 학습교재 지원 · 방학 중 보육교실 오후 운영비 지원	·기간 : 2013. 4~2013. 12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또 하나의 학교	·해누리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일시 : 2013. 3 ~ 2013. 12 ·대상 : 아동센터내 본교 복지대상

◎ 신나는 보래미

- 건강한 또래 문화 형성으로 자치능력과 학교적응력을 키운다.
- 토요일휴업일을 활용하여 역사, 문화 탐방 여행을 운영한다.
-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연대감을 형성한다.
-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기관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토요일휴업일 테마학습	· 토요일휴업일 테마 학습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강릉지역사회교육협의회 프로그램에 의한 문화·역사·환경 등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일정에 따라 문화와 역사 체험 참가	· 기간 : 2013. 4~ 12. · 대상 : 5~6학년
희망나래 한마음축제	· 동아리 및 방과 후 활동 작품 전시 · 학생들의 장기자랑 발표 · 골든벨! · 단체게임	· 기간 : 2013. 10 · 대상 : 15개 학교 키움이 · 인원 : 200명 · 방법 : 15개 학교공동축제

◎ 점프 점프 동아리활동

-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취미 및 특기 함양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연계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특기 체험 및 소질을 계발한다.
- 지역사회 행사 및 발표회, 학교 학예회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질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행복더하기 학교와 연계하여 알찬 동아리 활동을 운영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관노가면극	·외부강사를 영입하여 지도 ·행복더하기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	·기간 : 2013. 04 ~ 2013. 12 ·대상 : 3-6학년 동아리신청인원
톨페인팅	·외부강사를 영입하여 지도 ·방학 특강으로 진행	·기간 : 여름방학·겨울방학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수영	·국민체육센터를 이용 ·수요일 금요일 주2회 방과후에 진행	·기간 : 2013. 04 ~ 2013. 12 ·대상 : 1-2학년 8명
스포츠체험	·방학 스포츠 체험 (성덕초, 동명중 공동사업)	·기간 : 여름방학·겨울방학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장소: 알펜시아, 용평스키장 외 등
기타와 노래	·외부강사를 영입하여 지도 ·행복더하기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	·기간 : 2013. 04 ~ 2013. 12 ·대상 : 3-6학년 동아리신청인원
도토리학교	·외부강사를 영입하여 지도 ·행복더하기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	·기간 : 2013. 04 ~ 2013. 12 ·대상 : 3-6학년 동아리신청인원

◎ 사제동행 체험활동

-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에게 가정에서 결손 될 수 있는 정서·심리·문화적 부분을 지원한다.
- 사제지간 관계의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자존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다정한 사제동행 체험학습	·학기 중 학급별 체험학습 활동 지원 ·1~2학년 : 혁신학교와 연계하여 농촌체험활동 지원 ·3~4학년 : 도농교류 체험활동 지원 ·5~6학년 : 혁신학교와 연계하여 가족캠프 지원	·일시 : 학기중 ·대상 : 전교생

◎ 내 마음의 힐링 -개별·집단·가정·가족상담

-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욕구 해결 및 정서적 발달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며 건전한 성장발달과 가정기능 강화 및 심리·정서 통합서비스를 제공 한다.
- 학생들의 학교적응력향상 및 정서발달을 돕기 위해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개별상담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별상담 실시	·기간 : 2013. 04 ~ 2014. 02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사례관리	·가정환경 파악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 관리 ·사례회의, wee센터, 지역사회자원 연계	·기간 : 2013. 04 ~ 2014. 02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심리검사	·심리검사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 ·강릉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연계	·기간 : 2013. 04 ~ 2014. 02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가족상담	·조사 후 부모-자녀간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강릉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연계	·기간 : 2013. 04 ~ 2014. 02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초록농장 이야기	·부적응아동에게 식물 재배 실시 ·학교간 공동연계사업	·기간 : 2013. 04 ~ 2014. 02 ·대상 : 부적응아동 ·장소 : 보광체험학습장
가정방문	·교육복지대상자의 가정환경 파악 ·담당교사와 함께 가정방문 실시	·기간 : 2013. 04 ~ 2014. 02 ·대상 : 대상아동 및 담임추천 ·장소 : 각 가정
미술치료	·소극적이고 표현력이 부족한 아동의 자신감 및 자존감	·기간 : 2013. 04 ~ 2013. 12

	항상 프로그램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 ·수업 후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	·대상 : 대상아동 및 담임추천 ·방법 : 주1회 12회 실시
집단상담	·부적응 아동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수업후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	·기간 : 2013. 04 ~ 2014. 02 ·대상 : 대상아동 및 담임추천 ·방법 : 주1회 12회 실시 ·장소 : 교육복지실
가족캠프	·미술치료 및 집단상담, 개인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가족 관계 정립 및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제공 ·7월 보래미한마당과 연계하여 진행	·기간 : 2013. 05 ~07. ·대상 : 1-6학년

◎ 건강한 보래미 어린이 -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 질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쓴다.
- 저소득층 가정 중 안과, 치과, 소아과 등 질병으로 인하여 필요한 아이를 지원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건강나래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병원연계 진료지원사업	·일시 : 2013. 04~2014. 02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선명하게 보여요	·저소득층 자녀 중 안과진료비와 안경구입비를 지원	·일시 : 2013. 04~2014. 02 ·대상 : 교육복지대상아동

◎ 언제나 보래미 - 학부모 연수

- 자녀교육관 정립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교육에 관한 일관된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준다.
- 교육복지의 활성화를 이루고 인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가정문화 이해력 제고 및 가정-학교-지역사회간 통합하여 추진한다.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자녀교육	· 부모 및 아동 교육 및 본 사업 설명회 개최 · 혁신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기간 : 2013. 4 ~ 2013. 12. 6회기 ·대상 : 학부모 50명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과학교실	·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실험 실습 강좌 운영 · 부모님과 함께하는 과학캠프 진행	·기간 : 2013.4.~12. 10회기 ·대상 : 교육복지대상 아동과 학부모

◎ 밑알이 되어 - 교육복지사 및 복지 활동 지원

- 교육복지실의 다양한 업무지원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요구 수행
- 교육복지사를 활용하여 교육복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

■ 좀 더 자세히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학교사업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복지사 채용	·기간: 2013. 03 ~ 2014. 02 ·소요시간 : 09:00 ~ 17:00 ·장소 : 교육복지실
교육복지 홍 보	·교육복지사업 홍보를 위한 팸플렛 제작 홍보 ·교육복지의 의미와 역할, 교육복지사업 홍보 및 지역주민 관심 유도	·기간 : 2013. 04 ~ 2014. 02 ·시행횟수 : 수시 ·장소 : 교육복지실
교육복지 관련 추진협의회	·정기적 운영 위원회 진행 ·프로그램별 업무추진회의 진행 ·지역사회관련 기관 협의회 진행	·기간 : 2013. 04 ~ 2014. 02 ·시행횟수 : 수시 ·장소 : 교육복지실 및 지역사회기관
사업운영지원	·교육복지추진협의회 운영비 및 다과비 ·각 단위사업 협의회 및 사업평가회비 ·담당자 출장비, 연수비 지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소모품비 ·교육복지관련 행사 지원비 ·각 부서별 강사근무일지관리 인건비 지급 ·각 사업별 참여아동 출석관리	·기간 : 2013. 04 ~ 2014. 02 ·장소 : 교육복지실 ·방법 : 내부 결재 통해 수시 집행 및 관리

◎ 신나는 토요일(토요프로그램)

- 가정 여건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특기 향상 및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삶의 자세를 길러주고 여가시간을 제공한다.
- 개인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교육을 실시한다.

■ 좀 더 자세히

해당 학년	운영 프로그램	활동 내용	장소	담당교사
전학년	New sports 교실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체육관, 운동장	스포츠강사
1-2학년	토요돌봄교실	- 보육활동 - 여러 가지 표현활동	돌봄교실	돌봄 강사



다섯. 한 걸음 더!

아이들은 성적으로, 학부모는 돈으로, 교사들은 능력으로 ‘객관적 평가’라는 수치화된 허울속에 매몰되고 서열과 경쟁으로 내밀리고 있다. 일제고사, 학교별 점수 공개, 성과급, 교원평가, 특목고, 자사고, 비정규직...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정책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구분하고, 교사를 나누는, 뜻모아 하나되기 보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우리는 왜, 무얼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 살이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용케도 버티며 타성과 관행에 찌들어 살고 있다. 행복이란 단어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져가고 있다.

존재,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홀대받는 시대, ‘인적자원’이라는 원치 않는 이름을 달고,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에 갇혀 아이들을 점점 더 심각한 경쟁속으로 몰고가는데 나도 모르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자아실현, 더불어 사는 삶, 함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은 각박하다. 사교육에 내몰려 존재감을 잃을까봐 찾아야하는 제 모습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쁨의 경험이 교육을 하는 이유이고 본질이며 궁극적 추구인 행복더하기학교는, 교육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 협력을 노래하며 거꾸로 가는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이다.

권력 관계에서 벗어난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만남, 아이들 속에 폭 파묻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교사와 학생의 바램을 행복더하기학교의 깊은 고민 속에 담는다. 서로에게 배움과 돌봄이 일어나는 교육공동체를 꿈꾼다.

선진화,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 이런 말들로 행복더하기학교를 대표하기에

는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이 너무 크고 깊다. 오랜 시간 경쟁교육에 지쳐온 우리는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한 교육으로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다. 획기적이고 기발한 모습이 아니어도 그저 학교에 가고 오는 것이 서로가 즐겁고 아이들이, 교사가 행복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면 하는 그 깊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혁신이라는, 새학교 문화창조라는 새로운 그러나 본질적이고 정상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곳곳이 걸어 갈 우리들의 가치를 위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되어 새로운 학교문화를 추구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 학부모님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가 쌓여간다는 것, 교사들이 경쟁을 넘어 협력속에서 집단지성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것, 따뜻한 미소와 관심이 늘 아이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소통과 참여의 문화를 만들어 간 우리들의 이야기가 온세상에 울려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전근을 가더라도 이러한 참여, 소통, 배려, 협력의 문화가 모든 학교에 존재해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좀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학교에서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상황, 성과들을 알려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이루어가는 작은 희망들을 또 다른 학교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 혁신학교에서 만들어가는 협력의 문화를 증언하며 퍼져나갈 수 있는 한 톨의 씨앗,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원행복더하기 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이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보람을 교육적 가치로, 교육의 궁극적 목적, 본질로 지향한다. 그것이 삶 속에서 어우러지는 원래의 학교의 모습. 몇 등, 몇 점, 어느 학교, 어느 대학의 이름으로 표명되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존재들의 소중함을 키워가는, 그러한 주체들의 더불어 사는 삶, 만남, 협력, 상생, 공생을 향해가는 교육을 꿈꾼다.

몇 개 학교의 시도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혁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새로운 학교가 아닌 원래 우리 교육이 안고 가야 할 교육의 본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몇 몇 학교의 실험을 넘어 학교문을 허물고 지역사회 모든 학교들과 연대하고 소통하여 학교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 천천히. 조금씩. 함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의 성심포남초등학교 한 해살이 자료집을 존중하며 협력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징검다리가 되기를 표지그림이다. 포남교육이 일년동안 한걸음 한걸음 만들어 가는 우리들의 ‘희망’ 이기를!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기록한 생생한 발자취이다. 교사회 회의록부터 기획안, 추진상황, 연수기록, 연수후기까지.

저마다의 느낌, 생각,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를 담았다. 아이들 속에서 살아숨쉬며 동료교사와 함께 걷는 기쁨, 함께 하는 보람을 느낀다는 교사들의 숨결을 엮었다.

연구 보고서

I . 아이마중 학교교육과정의 기초

1. 학교 교육 목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탐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 양성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자신이 지나온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어린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아가는 어린이,
자신의 끼를 살려 의지를 펼칠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를
키워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중심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며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문화 전수의 터전이 아이마중 초등학교입니다.

2. 학교 어린이상

- 1) 협력하는 어린이 : 함께 공감하고 배우며 삶의 행복을 체감하고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는 어린이
- 2) 능동적인 어린이 : 적극적으로 배움에 나서고, 주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이

아이마중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21세기 대한민국 대다수 초등학생처럼 형제자매 없이 혼자 살아온 아이들이다. 또한 대다수 농촌 어린이처럼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부족하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적극성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학교 어린이상을 협력하는 어린이와 능동적인 어린이로 정립하였다.

3. 교육 중점 과제

- 1) 기초 학력 확보 : 국어와 수학
- 2) 협력 교수학습 : 교사와 학생의 협력으로 개별 학습자의 발달을 이끄는 수업 추구
- 3) 능력 향상 체험 : 리코더와 줄넘기
- 4) 주체적 삶 전개 : 학생 주도적 다모임과 동아리 활동

- * 국어와 수학에서 기초 학력을 확보한다는 통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는 현대 교육학의 패러다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인간 발달에 가장 중요한 문화적 도구인 언어, 국어를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살아가며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학 교과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농촌 학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 교수학습을 강조하였다. 협력 교수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발달을 위하여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고자 우선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는 교수학습이다. 이어서 학생들이 협력하여 학습하며 자연스럽게 발달 과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삶의 결정적 계기에서 습득한 다양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여 주체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학교에서 행하는 교수학습의 본질적 기능이다.
- * 6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중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반이 되며, 삶을 주체적·협력적·의지적으로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
- * 국가교육과정의 정해진 내용이 아닌,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에서 서로 협력하여 주변 환경을,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경험은 배움이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4. 교육과정의 편성 방향

- 1) 내용적으로 4학기제 지향
- 2)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을 모아 합리적으로 방향 모색
- 3) 지속적인 교육 활동으로 배움에 자신감을 주는 방향으로

- *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농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는 2학기제지만 내용적으로는 4학기제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운영방안은 교과에서 배우는 추상적, 이론적 지식과 학생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접하는 구체적, 체험적 경험을 연결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할 때 학생은 알고 있는 것을 이후 삶에서 잘 부릴 수 있다.
- *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나누었던 협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를 교육 3주체가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후 학교 교육과정의 배열과 강약이 결정

되어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면 졸업생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할 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정의적 능력인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능력은 장기간에 걸친 자신의 발달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변화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줄넘기 운동 능력과 리코더 연주 능력의 향상을 학습자가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

5.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

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 : 노동, 생태, 평화, 민주주의

* 학교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해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실정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가치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아이마중 학교교육과정은 농촌 지역의 실태와 연결되어 개념 형성을 하기 쉬운, 지역 공동체의 소망이 담긴 가치로 노동,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선정하였다.

나. 학생의 능력 신장 : 집중, 기억, 개념형성, 의지, 상상, 협력 중심

* 국가 교육과정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창의능력과 인성능력을 반영한 강원도 교육과정의 창의능력과 공감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특히,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농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아이마중 학교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자신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능력을 학교생활 전반에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경험을 조직하고자 한다.

다. 협력을 통한 운영 : 체험, 느낌, 바름, 숙달, 존중, 참여

* 교육 구성원이 모두 직접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감을 비롯한 학교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많은 능력은 자신의 것으로 되는데 오래 걸리고 활동 형태만 비슷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은 익숙함을 통해 올바른 방법과 내용을 숙지하여 체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어야 한다. 느낌도 빠름도 존중하여 바름으로 함께 참여하여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협력의 학급 문화, 학교 문화, 지역 문화를 창조하는 토대가 학교교육과정을 실천하며 만들어져야 한다.

6. 공유해야 할 핵심 개념

1) **아이마중 학교교육과정** : (가상의) 아이마중 초등학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세 가지 현실을 넘어서고자 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을 업무 담당자 혼자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평가지표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배열하는 학교교육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펼치는데 기초가 되는 철학이 없는 학교교육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첫걸음이지만, 명확한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관철하는 학교교육과정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며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조상님의 지혜로운 충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따르고자 노력했다. 학교에서 행하는 하나하나의 교육 활동은 개별적인 교육 활동 하나만 보면 어느 것 하나 빼 것이 없다. 이렇게 다 집어넣다보면, 차라리 적당히 한 것만도 못한 과잉된 내용의 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교육 가족이라면 다 알고 있다. 여유가 없어 반성할 틈도 협의할 틈도 없는 학교의 일상은 이를 대변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여, 느리지만 바르고 제대로 된 학생의 발달과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했다. 실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다듬어가는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한다.

2) **배움** : 인간은 일상적 삶에서 새로이 경험하는 것에서 느낌과 생각을 얻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배움이라고 한다. 새롭고 즐거운 것이거나 파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배움을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배움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겪은 일을 잘 기억하느냐로 판단된다. 늘 이루어지는 그저 그런 일은 배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습관처럼 무미건조하게 진행된다. 이런 일에서는 특별히 남는 기억이 별로 없다. 배움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삶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가깝다. 하지만 특정한 계기에는 배움이 기억을 넘어서는 정교한, 체계적인, 의도적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아간다.

3) **학습** : 인간은 이후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은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인위적인 과정을 거친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학습(學習)이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일들을 행할 때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과정은 잘 진행된다. 학교 교육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 학습자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의 문화(지식, 태도, 활동 방법 등)를 그들에게 익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갈등을 생기게 한다고 봐야한다.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 교육 내용을 익힐 때마다 백 번의 날개 짓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호랑이를 조련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익히는 과정이 수월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20세기 후반부터 교육계의 화두가 되었다.

4) 수업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사가 교수하여 학습자가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 학교 교육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우리는 교수와 학습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과정을 수업(교수학습)이라한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과 교사가 가르치고 싶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과 학생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상황예다가 과도한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특히 익히는 과정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방과후활동, 학원 등의 과잉된 수업은 물리적으로 익히는 과정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추상적인 교육내용을 학생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학습이 잘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교육학자들의 제언을 따르고자 한다. 특히 학습자가 다양한 능력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출발점과 같은 계기가 수업이라는 비고츠키의 조언을 따르고자 한다.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는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세상을 개척할 수 있는 문화적 도구를 학습자에게 전수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5) 협력 : 수업을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사가 지휘자이고 학생들이 각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전제하는 이런 비유는 우리 현실과 너무도 다르다. 지휘봉을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 보는 일이다. 학생들 간의 관계가 경쟁적이고 몇몇이서 자신들의 활동으로 일탈하려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도 언제나 경험하는 일이다. 수업은 둘이 하는 연주에 가깝다. 서로 서로를 의식하며 보조를 맞추어 가는 것이다. 교사라면 곡목을 선정하고, 연습하고, 분위기를 살리고, 연주하고, 평가하는 협력의 과정으로 수업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통적 수업에서는 교과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선정하는 첫 부분과 함께 반성하는 마지막 부분이 협력의 과정과 거리가 있었다.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도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의 의견을 동반자의 몫으로 반영하는 협력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심지어 교사들의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학교 교육 전반에서 협력의 과정이 넘치게 하고자 한다. 협력의 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 학교 문화의 가

장 큰 특징이 협력의 문화라고 이야기될 때, 미래에 가장 중요한 능력들의 핵심적인 기본 능력인 협력능력이 충실하게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전수될 것이다.

6) 발달 :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전인(전면적 발달)을 양성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초등교육에서는 홍익인간이 되는 과정에 요구되는 전면적 발달을 추구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활동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협력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또한 그 활동의 의미를 음미하고 반성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학습자가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후 이러한 능력들을 내재화하여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역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악동처럼 말썽만 부리고 자기만 고집하던 아이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홍익인간으로 나아가는 삶의 긴 과정을 시야에 두어야 한다. 올바른 인간으로 나아가는 발달 과정은 학교 오기 전의 과정과 학교를 떠난 후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려져야 한다. 이는 학교 입학 전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고 졸업 후의 발달 과정을 예측하는 작업과 어우러져야 한다. 6년의 교육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다양한 능력들을 아이마중 학교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Ⅱ. 아이마중교육과정의 편성

1. 편제 및 시간 배당

가. 교육과정 편제

1)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교육과정	학년	교 과	창의적 체험활동
2009개정 교육과정	1-2학년(군)	국어, 수학, 통합교과(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4학년(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체육, 예술(음악, 미술), 영어	
	5-6학년(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 미술), 영어	

2) 범교과 학습주제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도하여 체계적인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학년(급)별로 지도한다.

나. 시간 배당 기준

1) 시간 배당 기준표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 어	국 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 학	수 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 육		204	204
	예술(음악/미술)	슬기로운 생활 192	272	272
	영 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 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2) 시간 편성 기준

- 가)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나)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다) 학년군 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라)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 마)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바) 학년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영역	세부영역	1-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자치 32 행사 4 담임재량 16
	동아리활동	30
	봉사활동	4
	진로활동	6
총 계		102

4) 시간 운영 계획

- 가) 연간 수업일수는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로 총 190일 운영한다.
- 나) 연간 시간 배당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연간, 학기 간, 주간 및 일일의 운영 계획을 계절과 기후, 학년 및 학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수립하되 학기 간, 연간 총 시수는 이수하도록 한다.
- 다) 개별화 수업이 적용되는 교과는 학습자의 학습 속도와 깊이를 고려하여 학년 실정에 맞는 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라) 5·6학년은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연간 4시간, 보건교육은 연간 10시간을 실시한다. ????
- 바) 전일제체험학습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현장체험학습일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 학년(군)별 시간 편성

1) 1~2학년군

교육과정	학년 기준 시수	1학년						2학년					
		2014		2015		계	증감	2013		2014		계	증감
		1-1	1-2	2-1	2-2			1-1	1-2	2-1	2-2		
국어	448	98	112	127	111	448	0	98	112	127	111	448	0
수학	256	56	64	72	64	256	0	56	64	72	64	256	0
바른생활	128	28	32	36	32	128	0	28	32	36	32	128	0
슬기로운생활	192	42	48	54	48	192	0	42	48	54	48	192	0
즐거운생활	384	84	96	108	96	384	0	84	96	108	96	384	0
교과(계)	1,408	308	352	397	351	1,408	0	308	352	397	351	1,408	0
창체	272	119	47	48	48	262	0	133	46	65	40	284	+12
총 수업시간 수	1,680	836		844		1,680	0	830		850		1,682	0

2) 3-4학년군

교육과정	학년	3학년						4학년					
	기준 시수	2014		2015		계	증감	2013		2014		계	증감
		3-1	3-2	4-1	4-2			3-1	3-2	4-1	4-2		
국어	408	108	96	108	96	408	0	108	96	108	96	408	0
사회/도덕	272	71	65	71	65	272	0	71	65	71	65	272	0
(사회)		53	49	53	49	204		53	49	53	49	204	
(도덕)		18	16	18	16	68		18	16	18	16	68	
수학	272	72	64	72	64	272	0	72	64	72	64	272	0
과학/실과	204	53	49	53	49	204	0	53	49	53	49	204	0
(과학)		53	49	53	49	204		53	49	53	49	204	
(실과)		0	0	0	0	0		0	0	0	0	0	
체육	204	53	49	53	49	204	0	53	49	53	49	204	0
예술	272	72	64	72	64	272	0	72	64	72	64	272	0
(음악)	136	36	32	36	32	136		36	32	36	32	136	
(미술)	136	36	32	36	32	136		36	32	36	32	136	
영어	136	36	32	36	32	136	0	36	32	36	32	136	0
교과(계)	1,768	465	419	465	419	1,768	0	465	419	465	419	1,768	0
창의적 체험 활동	204	54	48	54	48	204	0	54	48	54	48	204	0
총 수업시간 수	1,972	986		986		1,972	0	986		986		1,972	0

3) 5-6학년군

교육과정	학년	5학년						6학년					
	기준 시수	2014		2015		계	증감	2013		2014		계	증감
		5-1	5-2	6-1	6-2			5-1	5-2	6-1	6-2		
국어	408	104	100	104	100	408	0	92	101	110	105	408	0
사회/도덕	272	70	66	70	66	272	0	66	62	73	71	272	0
(사회)		54	50	54	50			51	47	57	55		
(도덕)		16	16	16	16			15	15	16	16		
수학	272	72	64	72	64	272	0	68	63	71	70	272	0
과학/실과	340	86	84	86	84	340	0	83	76	94	87	340	0
(과학)		52	50	52	50			50	48	59	57		
(실과)		34	34	34	34			33	28	35	30		
체육	204	52	50	52	50	204	0	51	51	52	50	204	0
예술	272	68	68	68	68	272	0	76	68	68	60	272	0
(음악)		34	34	34	34			36	36	34	30		
(미술)		34	34	34	34			40	32	34	30		
영어	204	52	50	52	50	204	0	48	52	54	50	204	0
교과(계)	1,972	504	482	504	482	1,972	0	484	473	522	493	1,972	0
창의적 체험 활동	204	54	48	54	48	204	0	58	44	58	44	204	
총 수업시간 수	2,176	1,088		1,088		2,176	0	1,251		1,337		2,176	

2. 연간 시간 운영 계획

가. 연간 수업일수

<1학기 95일>

월	주	수업요일					수업일수	교육활동 및 공휴일
		월	화	수	목	금		
3	1	3	4	5	6	7	5	3. 입학식 및 시업식
	2	10	11	12	13	14	5	
	3	17	18	19	20	21	5	
	4	24	25	26	27	28	5	
4	5	31	1	2	3	4	5	2. 절기활동;화전구워먹기 16. 노작활동;고구마심기(1-6학년)
	6	7	8	9	10	11	5	
	7	14	15	16	17	18	5	
	8	21	22	23	24	25	5	
5	9	28	29	30	1	2	5	2. 어린이날 체육대회(1-6학년) ⑤ 어린이날 ⑥ 석가탄신일 7-9. 수학여행(4-6학년) 9. 현장체험학습(1-3학년)
	10	⑤	⑥	7	8	9	3	
	11	12	13	14	15	16	5	
	12	19	20	21	22	23	5	
	13	26	27	28	29	30	5	
6	14	2	3	④	(5)	⑥	2	2. 단오행사(1-6학년) 2-3. 야영(4-6학년) ④ 지방선거일 (5) 재량휴업일 ⑥ 현충일
	15	9	10	11	12	13	5	
	16	16	17	18	19	20	5	
	17	23	24	25	26	27	5	
7	18	30	1	2	3	4	5	16. 여름계절활동(1-6학년) 18. 여름방학식 7.19-8.24 (37일간)
	19	7	8	9	10	11	5	
	20	14	15	16	17	18	5	
1학기 소계		19	19	19	19	19	95	

월	주	수업요일					수업일수	교육활동 및 공휴일
		월	화	수	목	금		
8	1	25	26	27	28	29	5	25. 개학
9	2	1	2	3	4	5	5	⑧ 추석 ⑨ 추석연휴 ⑩ 대체휴업일 26. 현장체험학습(1-6학년)
	3	⑧	⑨	⑩	11	12	2	
	4	15	16	17	18	19	5	
	5	22	23	24	25	26	5	
10	6	29	30	1	2	③	4	③ 개천절 8. 노작활동;고구마캐기(1-6학년) ⑨ 한글날 (10) 재량휴업일 24. 아이마중축제한마당(1-6학년)
	7	6	7	8	⑨	(10)	3	
	8	13	14	15	16	17	5	
	9	20	21	22	23	24	5	
	10	27	28	29	30	31	5	
11	11	3	4	5	6	7	5	14. 김장담그기(1-6학년) 26. 겨울계절활동(1-6학년)
	12	10	11	12	13	14	5	
	13	17	18	19	20	21	5	
	14	24	25	26	27	28	5	
12	15	1	2	3	4	5	5	㉔ 성탄절 26. 진로체험의 날(1-2학년/3-6학년) 30. 겨울방학식 12.31-2.1(33일)
	16	8	9	10	11	12	5	
	17	15	16	17	18	19	5	
	18	22	23	24	㉔	26	4	
	19	29	30				2	
2	20	2	3	4	5	6	5	2. 개학 13. 졸업식 및 종업식
	21	9	10	11	12	13	5	
2학기 소계		20	20	19	18	18	95	
1학기 소계		19	19	19	19	19	95	
총계		39	39	38	37	37	190	

나. 일일 시간 운영 계획

일 일 계 획			주 간 계 획				
구 분	시종시각	시간	월	화	수	목	금
아침활동	08:30-09:00	30	학년별 아침 자율활동				
1-2교시(블럭)	09:00-10:20	80	교과학습활동				
중간휴식	10:20-10:50	30	자유놀이				
3-4교시(블럭)	10:50-12:10	80	교과학습활동				
점 심	12:10-13:10	60	점 심 시 간				
5-6교시(블럭)	13:10-14:30	80	교과/방과후 활동				

다. 학교행사 시수 반영

학교행사	실시일	해당학년	확보시수	관련교과
입학식 및 시업식	3. 3	전교생	1시간	해 당 교 과 및 창 체 (학년 교육 과정 참고)
절기활동(화전)	4. 2	전교생	4시간	
노작활동(고구마심기)	4.16	전교생	2시간	
어린이날 체육대회	5. 2	전교생	2시간	
수학여행	5. 7-5. 9	6학년	18시간	
현장체험학습	5. 9	1-3학년	6시간	
단오행사	6. 2	전교생	4시간	
야영 활동	6. 2-6. 3	4-6학년	8시간	
여름계절활동(물놀이)	7. 16	전교생	6시간	
여름방학식	7. 18	전교생	1시간	
안전예방교육	학기별 1회	전교생	2시간	
현장체험학습	9. 26	전교생	6시간	
노작활동(고구마캐기)	10. 8	전교생	2시간	
아이마중축제한마당	10. 24	전교생	6시간	
절기활동(김장담그기)	11. 14		4시간	
겨울계절활동(스케이트)	11. 26	전교생	6시간	
진로체험의 날	12. 26	전교생	6시간	
겨울방학식	12. 30	전교생	1시간	
종업식 및 졸업식	2. 13	전교생	2시간	

라. 교과전담 학년 시간 배정

학 년	교 과	주당 시간 수	총 시간 수	비 고
3	영어	2	2	
4	영어	2	2	
5	과학	3	6	
	영어	3		
6	과학	3	6	
	영어	3		
계			16	

마. 특별교실 시간 배정

교시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	3~6/1~6	3	1	3	6
2	1	3	1	3	6
3	2	4	2	4	
4	2	4	2	4	
5	5	6		5	
6	5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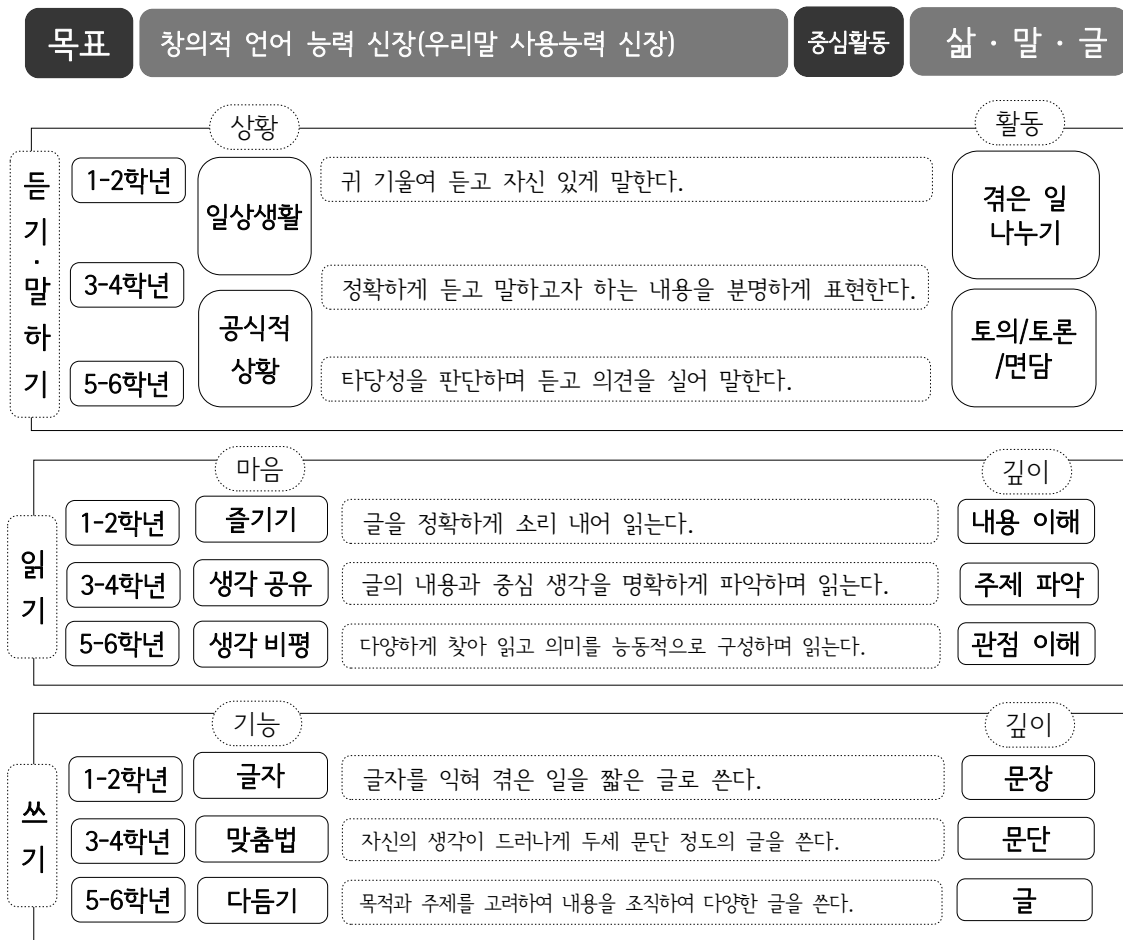
Ⅲ. 아이마중교육과정의 운영

1. 상시활동 (6년동안 꾸준히 하는 활동)

디딤돌 학습	언어, 수리 영역의 기초 기능 숙련을 위한 디딤돌 학습을 블록수업 중 10~20분을 할애하여 꾸준히 실시한다. (날말공부, 자연수의 사칙연산)
다지기 학습	음악과 악기연주 기능과 체육과 체력단련을 위한 활동을 블록수업 중 10~20분을 할애하여 꾸준히 실시한다. (리코더, 줄넘기)
배움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림장을 통한 자기 생활 되돌아보기와 스스로 시간 관리하기 교과별·활동별 공책에 탐구과정 기록하고 소통하기(수학공책, 계절학교 활동책 등) ‘스스로 배움’ 공책 마련하여 꾸준히 쌓아가기(5~6학년) 자람 나무(학생 배움 이력 철)에 활동과정 쌓기, 상설전시회 갖기

2. 교과활동 : 교과별, 학년군별 교육과정의 핵심요소

1) 국어



문 법	1-2학년	낱자의 이름과 소릿값, 다양한 고유어,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 문장 부호 사용
	3-4학년	소리와 표기의 다름, 표준어와 방언, 낱말 확장, 국어사전, 높임법, 문장종결 방법
	5-6학년	혼동되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맥락에 따른 낱말 뜻,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관용표현, 절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식, 문장성분과 호응관계.

문 학	중심	
	1-2학년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3-4학년	문학작품을 자신의 말로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5-6학년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찾아 구체화하고, 작품 수용과 표현의 수준을 높인다.

2) 수학

목표	수학적 의사소통		중심활동	경기·사고
	기능	개념	꾸준한 활동으로 연산 원리 알기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르기 선 긋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이하의 수 100이하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르기와 모으기로 10 만들기 (두 자리 수) \pm (한 자리 수)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이 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 이하의 수 곱셈의 의미 길이의 의미와 Cm,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르기와 모으기로 100 만들기 (두 자리 수) \pm (두 자리 수) 곱셈 구구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도형 그리기 컴퍼스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 이상의 수 계열 나눗셈의 의미 분수의 개념과 크기 비교 소수의 개념과 크기 비교 각, 직각, 삼각형, 사각형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과 관계 길이, 둘레, 무게의 의미와 단위 (Km, mm, L, mL, Kg,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 자리 수) \pm (네 자리 수) (두 자리 수) \times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 \div (한 자리 수) 	
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도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 수(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소수 세 자리 수와 크기 비교 예각, 둔각,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 자리 수) \times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div (두 자리 수)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면도형 그리기 선대칭, 점대칭 도형 그리기 입체도형 겨냥도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수, 공약수, 최대공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공배수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 사변형, 마름모(뿔, 돌레, 넓이) 합동, 선대칭, 점대칭 직육면체, 정육면체 무게와 넓이 의미와 단위(t, Km², 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바꾸기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개도 그리기 겨냥도 그리기 비율그래프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기둥, 각뿔, 원기둥, 원뿔 원주와 원주율, 원의 넓이 겉넓이와 부피, 부피 단위(Cm³, m³) 비와 비율(소수, 분수, 백분율) 비례식,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 평균 비율 그래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수와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3)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목표

바른 자세로 생활하며 나와 주변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중심활동

실천, 탐구, 표현

1,2 학년군	지식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상징 알기 - 계절의 자연현상과 날씨, 생활 모습, 건강한 생활 요령 알기 - 가족과 친척의 관계 알기 - 외국인과 다양한 가족에 대해 바르게 알기 -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의 주요 특징 알기
	기능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학교 생활 실천하기 -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실천하기(씻기, 양치질) - 공공시설의 바른 이용과 물건 소중히 하기 - 우리나라 상징 표현하고 전통문화 체험하기 - 계절활동 및 방학 생활 계획하기 / 조사하기 - 계절에 따른 놀이와 민속 놀이하기, 자연 모습과 생활 표현하기 (얼음땡, 얇은뱅이, 까막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망 줍기, 그림자 밟기, 한 발 뛰기, 신발숨기기, 8자 놀이) - 친구, 가족 등 타인에게 인사 잘 하고 예절 지키기 - 나의 몸, 나의 이웃, 생활 물건,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 등 알기 - 자연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고 곤충이나 식물, 동물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하기 - 학교, 친구, 가족과 친척, 이웃, 마을, 계절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조사하기 -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 - 친구와 놀이하기(학교 놀이, 병원 놀이, 가게 놀이, 직업 놀이)
꾸준히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 확인하기 ◦기초적인 실천, 탐구, 표현 기능 익히기 ◦주변에 대한 기초적인 탐구 활동 수행하기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기

4) 사회·도덕

사회

목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탐구능력 기르기

중심활동

이해, 탐구

3,4 학년군

이해

우리 마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사는 지역(광주,하남)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가 필요한 까닭과 방법 이해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탐구

우리 마을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그림지도로 나타내기(방위와 기호 사용)

우리가 사는 지역(광주,하남)의 자연적·인문적 환경 탐구활동(현장답사 및 보고서)

합리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체험활동(모의시장, 현장체험 등)

우리 지역 자치단체 기능과 역할 탐구활동(현장견학 및 보고서)

5,6 학년군

이해

우리나라의 자연적·인문적 환경 특성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인간과 환경의 올바른 관계와 역할에 대한 이해

탐구

여러 형태의 지도 읽고 해석하기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현장답사(수학여행, 현장체험 등)

인간과 환경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참여(캠페인, 모금활동, 봉사활동 등)

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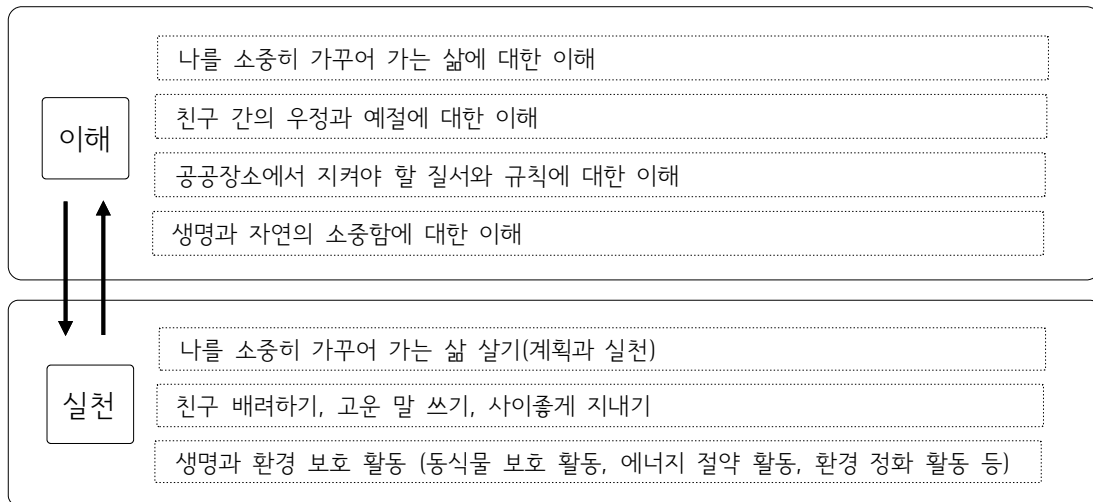
목표

규범 익히기와 가치판단력 기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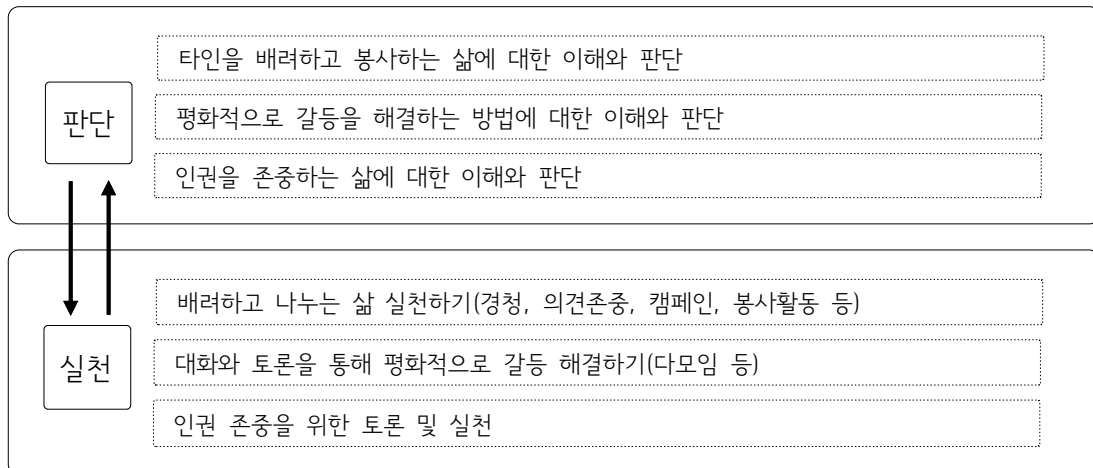
중심활동

이해, 판단, 실천

3,4 학년군



5,6 학년군



5) 과학·실과

목표

과학적 탐구능력과 소양 기르기

중심활동

탐구, 이해, 활동

공 통

3~4
학년군

기초탐구과정을 이해하고 현상에서 궁금한 점을 찾아 기초탐구과정을 토대로 탐구

생활속에서 궁금한 것을 찾아 탐구활동을 계획하고 자료를 찾아 조사

5~6
학년군

통합탐구과정을 이해하고 기초·통합탐구과정을 모두 활용하여 탐구

자유탐구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일정기간동안 종합적으로 탐구하여 발표

물 질 과 에 너 지

3~4
학년군

탐 구
능 력

물의 기체, 액체, 고체 세가지 상태변화를 실험·탐구하고 실생활에 적용

일상 생활 속에서 빛과 소리 에너지를 찾고 변화와 활용을 탐구하고 조사

개 념
이 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고, 혼합물을 분리해보고 자석의 기초 개념을 이해

물질과 물체의 관계와 액체와 기체의 기초개념을 이해

5~6
학년군

탐 구
능 력

실험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과 염기의 성질을 확인

전기가 연결되어 활용되는 과정을 조작을 통해 확인

개 념
이 해

온도와 열, 연소와 소화, 물체의 빠르기의 개념을 이해

용해현상과 용질, 용매, 용액의 정의, 렌즈의 기능과 기본 개념을 이해

생 명 과 지 구

3~4
학년군

탐 구
능 력

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갖고 모습과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

지구와 달, 지구 내부와 지표의 모습을 조사, 관찰

개 념
이 해

동식물의 한살이와 생활, 지구와 달, 지표 변화와 지층, 화석의 개념을 이해

생명과 지구의 소중함을 나, 우리와 연관 지어 이해

5~6
학년군

탐 구
능 력

지구와 달, 태양과 별의 변화를 직접 계획하고 관찰하여 기록

날씨의 변화와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직접 실험 도구를 조작하여 탐구

개 념
이 해

식물과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생물과 우리생활과의 관계를 이해

날씨와 생활, 태양계와 별, 지구와 달의 운동의 기본개념을 이해

실 과

5학년

텃밭을 활용하여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며 기초 바느질로 간단한 인형 만들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한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

6학년

식품표시를 보고 제품을 판단할 수 있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

도구를 활용하여 나무 제품을 만들고 뜨개질로 생활용품 만들기

6) 체육

목표

즐겁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중심활동

안전, 체력, 운동, 게임, 표현

3, 4 학년군	지식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의 뜻과 종류, 체력운동의 방법 알기 - 기본 운동과 게임의 요령 및 규칙을 이해하기 - 운동과 게임에 적합한 계획 및 전략 구상하기
	기능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넘기, 훌라후프로 체력 기르기 - 달리기와 기본 기능 익히고 속도 기록에 도전하기 - 여러 가지 이어달리기와 바톤 전달하기 - 피하기형 게임(피구) 과 영역형 게임(축구)하기 - 체조 활동(기본 스트레칭, 매트에서 다리 모아 구르기, 뒹굴 넘기) - 플라잉디스크 / 표적 맞추기 / 씨름하기 - 전래놀이 하기 : 굴렁쇠 굴리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공기놀이, 투호, 윷놀이, 연날리기, 땅따먹기, 삼팔선, 오징어, 진치기, 개뽕다귀, 십자돌기, 닭싸움, 돼지씨름, 말타기 등
꾸준히 할 일		줄넘기, 훌라후프

5, 6 학년군	지식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과정(2차 성징) 이해하기 - 자신의 체력과 운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획 세우기 - 자신에 맞는 운동 수준 알기와 상대방을 고려하는 개념 이해하기
	기능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로 체력 기르기 - 전력 달리기와 함께 높이뛰기, 멀리뛰기 기록 도전하기 - 필드형 게임(발야구, 티볼)과 네트형 게임(족구, 배드민턴) 하기 - 체조 활동(매트에서 다리 벌려 구르기, 뒹굴 넘기와 뒹굴에서 구르기) - 공 주고 받기/ 다트 / 민속무용 - 긴 줄 넘기, 부메랑,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 타기 - 전래놀이 하기 : 제기차기, 고백신, 망차기, 깡통차기, 비석치기, 구슬치기, 씨름, 강강술래, 연날리기, 윷놀이, 긴줄넘기 등
꾸준히 할 일		자전거 타기, 운동장 놀이

7) 예술(음악/미술)

목표

삶 속에서 예술 즐기기

중심활동

예술적 기능, 표현, 가치

이론	1,2학년군	박자, 리듬 알기
	3,4학년군	다장조 음계알기
	5,6학년군	바장조, 사장조, 단조 음계알기. 정간보 읽기
가창	1,2학년군	어린이 노래 즐겨 부르기 민요 즐겨 부르기
	3,4학년군	
	5,6학년군	
기악	1,2학년군	리듬 막대, 실로폰
	3,4학년군	리코더, 오카리나
	5,6학년군	단소, 소금
생활화 (창작, 감상)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기기	

3,4 학년군

체험
및
표현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느낌과 생각을 그림과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활용된 미술을 찾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의 표현방법과 종류를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여 간단한 평면과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

수채, 수묵, 찰흙, 판화의 기초적인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 안다

자연과 인공물에서 조형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감상

피카소, 고흐 등 유명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과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5,6 학년군

체험
및
표현

대상과 현상에서 미술적 특징을 발견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수채, 수묵, 찰흙, 판화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에 적용할 수 있다

소질과 흥미에 맞는 미술 분야를 찾아 집중하고 작품을 완성한다

전시회를 준비하고 직접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감상

미술의 시대와 지역의 연관성을 탐색할 수 있다

전시회를 관람하고 작품의 특징과 의도를 이해하며 감상문을 쓸 수 있다.

8) 영어

목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중심활동

소통

3,4 학년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파벳과 간단한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식별 쉽고 간단한 낱말, 어구, 문장 따라 읽기, 소리 내어 읽기 실물, 동작, 그림과 함께 낱말과 어구 의미 이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파벳과 간단한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따라 말하기 한 두 문장으로 말하기 알파벳 인쇄체 대소문자 쓰기 실물, 동작, 그림과 함께 낱말과 어구 쓰기
	낱말	120낱말 이내
	문장	7낱말 이내의 문장 길이, 과거표현, 지시·명령 표현
5,6 학년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말이나 대화에서 대상의 특징, 목적과 의도, 세부 내용 파악 간단한 묘사나 설명 듣고 수행하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나 목적에 맞게 말하기 두 세 개의 연속된 문장으로 지시나 명령 표현하기 문장의 의미에 맞게 구두점 사용, 대소문자 구분하여 쓰기 축하, 감사, 초대의 간단한 글쓰기 가족, 친구에 대해 짧고 간단한 글쓰기
	낱말	140낱말 이내
	문장	9낱말 이내의 문장 길이, 미래표현, 비교급 표현, 전화표현

4.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가. 목 표

- 1) 자발성에 바탕을 둔 변화 환경 대응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자율활동)
- 2) 취미 및 특기 계발, 협동적 학습능력과 창의적 태도를 형성한다.(동아리 활동)
- 3) 나눔과 배려, 실천, 자연 환경보존,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삶의 가치를 이해한다. (봉사활동)
- 4) 자아 정체성 확립과 진로탐색 설계, 진로 결정 및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진로활동)

나. 편성의 기본 방향

- 1) 지역 및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 학년 학급의 특색활동을 구현하도록 편성하고 학생의 소질을 계발하고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2) 1학년은 학기초 입학 적응활동을 학년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3) 다모임, 동아리 활동, 아이마중 축제등은 학교 단위로 편성한다.
- 4) 학생인권교육, 보건의교육 등은 학년 단위로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 편성하여 운영한다.
- 5) 학년별로 관련 교과, 영역간 범교과 및 자기주도적학습과 연계하여 통합편성 할 수 있다.

<특색 구현 모형 적용>

영역		학교교육과정 편성내용	비고
자유활동	적응활동	다모임 : 월 4시간 × 8개월 = 24시간	32시간
	자치활동		
	행사활동	시업식(2), 종업식 및 졸업식(2)	4시간
	창의적 특색활동	담임 재량 활동 시간(학기별 8시간)	16시간
동아리 활동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활동, 실습노작 활동, 특기(취미)활동	40시간
		상시 월2회×2시간×7개월(3,4,6,9,11,12)=28시간 집중 10월 2시간×6일=12시간	
봉사활동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독거노인 방문 등	4시간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상담),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교육	6시간
계			102차시

가) 모두가 함께 하는 다모임(자치활동) 운영

(1) 목 적

-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로 건전한 학생문화를 창조한다.
- 하나 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회가 스스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즐거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한다.

(2) 방 침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행사를 기획해보고, 직접 운영해 보도록 한다.
- 학생회는 전교 회장, 부회장, 부서장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전교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고, 임원은 다음 학기에 출마할 수 없다.

(3) 추진 내용

- 스스로 주인 되는 학생회 활동하기
- 학교 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아이마중 학교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한 학기에 2번 신문으로 제작한다.
- 학생회 활동 계획을 위한 임원 수련회 실시 : 1, 2학기 년 2회 실시
-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운영하기

< 주별 활동 내용 >

날짜	모임 주제	모임의 내용	비고
매월 첫째주	학생회 회의	·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생기는 일, 학교에 바라는 점들을 중심으로 토론, 모둠 토론 후에 전체가 모여 함께 토론	3~6학년
매월 둘째주	학년(군) 행사	· 학년(군)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진행 · 학급별 자치 활동	1~6학년
매월 셋째주	학생회 주관 행사	· 학생회가 주관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1~6학년

나) 꿈을 찾는 동아리 활동 운영

(1) 목 적

-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동아리 부서 활동에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학생들의 특기를 신장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구성원간의 교류의 기회를 갖고 밝은 학교 문화를 만든다.

(2) 방 침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최대한 고려하여 동아리를 조직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모든 동아리 부서는 축제 개최 시 부서원 전원이 참여하는 공연 및 전시회를 갖는다.
- 교사도 희망에 따라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다.

(3) 추진 내용

- 1~2학년은 학년(군) 교육 계획에 의거 조직하여 운영한다.
- 3~6학년 담임을 중심으로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3월 3주에 동아리박람회를 운영한다.
 - 동아리 조직을 희망하는 학생이 동아리 안내 부스를 운영한다.
- 3월 4주에 동아리를 조직한다.
 - 동아리 안내 부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동아리에 참여한다.
 - 학생 7명 이상의 참여와 지도교사를 위촉한 경우 인정한다.
- 동아리 부서별 연간 지도계획 작성하기 : 3월 4주까지 작성
- 동아리 운영 : 4월 1주부터 7월 2주까지, 9월 1주부터 12월 2주까지

다) 봉사활동

(1) 목 적

-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배우기

(2) 방 침

- 어려운 친구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 봉사활동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

(3) 추진 내용(창체 4시간)

구 분	실시시기		차시	영역	관련교과 및 단원	학습주제 및 내용	담당
	월	주					
봉 사 활 동	5	1	1	교내 환경 정화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후 교내 휴지줍기 ▪ 쓰레기 분리 수거 	담임
		2	2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학습주변 환경 정화 	담임
	10	1	3	내고장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정화활동 	담임
		1	4	환경 정화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고장 주변 정화활동 	담임

라) 진로활동

(1) 목 적

- 나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고, 꿈 기르기
- 일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 알아보기

(2) 방 침

-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3) 추진 내용(창체 6시간 + 교과 6시간 = 12시간)

구분	실시시기		차시	영역	관련교과 및 단원	학습주제 및 내용	담당
	월	주					
진로교육	3	3	1~2	자기 이해 활동	슬생/ 사회/ 도덕/ 과학/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잘 하는 것 찾아보기 ▪ 나의 꿈 발표하기(역할극) 	담임
	5	2	3~8	진로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체험 활동 	담임
	10	2	9~12	진로	슬생/ 사회/ 도덕/ 과학/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박람회’ 체험활동 	담임

4. 통합활동 : 교과 및 창체의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영

가. 체험활동 : 관련교과 학년교육과정 참고

체험활동	해당학년	장소(비고)	날짜	시간
절기활동(화전)	전교생	뒷산, 교실	4. 2	4시간
노작활동(고구마심기)	전교생	학교 텃밭	4.16	2시간
어린이날 체육대회	전교생	운동장	5. 2	2시간
수학여행	6학년	다모임에서 결정 (수학여행 프로젝트)	5. 7~5. 9	18시간
현장체험학습	1~3학년	인형극장, 애니메이션 박물관 (연극교육과 연계)	5. 9	6시간
단오행사	전교생	운동장 및 교실 (다모임에서 내용 결정)	6. 2	4시간
야영 활동	4~6학년	운동장	6. 2~6. 3	8시간
여름계절활동(물놀이)	전교생	학교 앞 개울	7. 16	6시간
현장체험학습	전교생	다모임 현장체험 프로젝트	9. 26	6시간
노작활동(고구마캐기)	전교생	학교텃밭	10. 8	2시간
아이마중 축제한마당	전교생	운동장 및 체육관	10. 24	6시간
절기활동(김장담그기)	전교생	각반 교실	11. 14	4시간
겨울계절활동(스케이트)	전교생	스케이트장	11. 26	6시간
진로체험의 날	전교생	다모임에서 결정 (체험장 방문 또는 초청)	12. 26	6시간

나. 연극교육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과 연계한 학년 특색에 알맞은 연극교육을 실시한다.

-내용은 학년별로 모든 교과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교과통합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연극관람, 극본 쓰기, 연기 익히기, 연극 공연하기, 연극 감상하기로 이루어진다.

학년	내용
1학년	*이야기를 듣고 인물의 모습과 행동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생각하며 이야기 듣기 -인물의 모습과 행동 신체표현하기 -음악에 맞추어 인물의 상황 표현하기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형극 프로젝트 -이야기 들려주고 인물의 마음 알아보기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 표정, 몸짓으로 표현하기 -막대 인형 만들기, 대본 만들기 -인형 만들기 -인형 움직이며 인물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무대 꾸미기 -인형극 공연하기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이야기를 여러 번 읽고 동작을 곁들여 표현해 본 후 연극으로 표현하기 -만화에서 인물의 마음 알아보기 -만화에서 인물의 마음을 표현 하는 방법 알기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만화 읽기 -만화 영화를 보며 등장인물의 특성 알기 -등장 인물의 특성 살려 이야기 바꾸기 -새롭게 꾸민 연극 공연하기
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의 주제와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연극으로 표현하기 -이야기를 읽고 주제 파악하기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극본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 찾아보고, 리듬에 맞추어 동작 표현하기 -연극홍보 간판 만들고 무대배경 꾸미기 -연습하고 공연하기
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극 대본 쓰고 공연하기 -이야기 읽기, 인상적인 부분 찾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비교하기 -주제에 알맞은 사건을 만들어 이야기 꾸며쓰기 -조형요소와 원리를 살려 무대배경 꾸미기 -여러나라의 음악과 민속 무용 알아보고 촌극에 적용하기 -촌극 대본 쓰는 방법을 알고 대본 쓰기, 촌극 공연하기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특징을 살려 연극하기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특성 살려 연기하기. 정확한 발음 연습하기, 연극 공연하기 -연극의 배경 음악 찾아 적용하기 -UCC 만들기 -이야기 내용에 알맞은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5. 학생평가

가. 목표

1)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다.

나. 방침

-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2)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확인하여 학생의 학습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3) 각 교과 학습활동 진보정도, 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4) 학생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평가의 기회를 확대한다.

다. 교과평가

- 1)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를 포함하는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2) 학년(급)별 평가계획서를 준거로 실시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정될 수 있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영역별로 활동 상황을 균형 있게 평가 한다.
- 2) 평가 방법은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3) 평가 결과는 평소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을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수시로 기록한다.

마. 학년초 진단활동

- 1) 학년 초 진단활동은 교사와 아이들의 자연스럽고 행복한 만남의 교육활동의 하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2) 하루 1회적이고 교과학습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3월 첫 날 시업식 첫 만남 때부터 아이들의 신체발달 정도, 생활태도, 사회성 발달 정도, 교과 학습 발달 정도 등 전 영역을 교육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1년의 학급 운영과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3) 진단활동을 교수학습과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교수학습 활동 자체가 진단활동이 되도록 한다.

IV. 교육과정 운영 지원

1. 학교장의 역할

- 가. 학교 운영에 대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
- 나.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교 문화 만드는데 앞장선다.
- 다. 교수·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 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인 관계를 갖게 한다.

2.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업무 지원 체제

- 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바꾸며, 크게 교육활동 / 교육지원 / 행정지원으로 나눈다.
- 나. 업무 구분이 어려운 교육 업무는 모든 교직원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3. 교사(교직원)협의체 역할

가. 목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 중 전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교사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나. 방침

- 1) 모든 교직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회의 시스템을 만든다.
- 2)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3) 의견이 다른 경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다.
- 4) 업무의 효율성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적 판단에 중심을 두고 협의한다.
- 5) 학교 운영에 교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내실있는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각 회의별 내용

○교직원 다모임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3시
- 참석대상 : 모든 교직원
- 협의안건 : 학교 행사 추진, 업무추진 내용, 각 종 규칙 제정,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내용

○교사 다모임

- 일시 : 매주 월요일 3시
- 참석대상 : 모든 교원
- 협의안건 :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 연수, 수업이야기, 아이들 생활이야기 등
- 협의 방법 : 협의 안건에 대해 발제자가 발제를 하면 참석 교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 전체 합의로 결정을 하되, 사안에 따라 전체 합의가 어려울 때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4. 학부모회

가. 운영 목적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 지원,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 유도
- 학부모회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적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활동 참여 확대

나. 운영 방침

- 학부모회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다수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학부모회 활동 강화로 학교 운영에 적극 지원
- 학부모회 예산 편성 및 회의실 마련

다. 추진 내용

-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교육
- 교육기부 및 자원봉사

5. 각종 위원회

가. 목적

-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원활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통합 조직하여 운영한다.
 - 1)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정보공개심사위원회
 - 2) 교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	위원회 구성	비 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학교운영 위원회	위원장:선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위원장: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장:선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원	통합교무 위원회	위원장 : 교감 간사 : 업무담당 위원 : 모든 교사 - 필요시: 행정실장, 학생3, 외부인사1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교과(학년)협의회,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학습준비물선정위원회, 교구선정위원회, 정보화기기선정위원회, 교육용S/W선정위원회), 독서지도위원회, 주5일수업제추진위원회, 교육과정평가위원회, 학교평가운영위원회	교원(단, 교육과정위원회는 전문가 참여 가능)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	교원		
자율장학협의회,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예산·결산준비위원회, 학교정보화추진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성고충상담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학교도서관위원회	교원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상벌(징계)위원회, 포상및 사정심의위원회, 장학생선정위원회, 진로·진학지도위원회, 교복(단체복)선정위원회,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생자치제선거관리위원회	교원, 학생		
생활규정개정위원회	교원, 학생, 학부모		

V. 학교 교육과정 평가

가. 목 적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세부 실천 사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 미흡 사례를 다음 학기,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수준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가시적 변화와 혁신을 이룩한다.

나. 기본 방향

- 1) 『아이마중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 2)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 등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평가가 되도록 의견을 수렴한다.
- 3) 교사의 의견과 학생의 성취도 중심 평가를 탈피하고,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충실성 및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다. 방 침

- 1) 교육과정 편성·운영·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 2) 평가 시기 및 회수는 학기별로 하여 연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전 직원의 참여로 의욕적인 교육활동,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한다.
- 4)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 통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5)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사항을 '2014 아이마중 교육과정'에 기록하거나 첨지하여 2015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
- 6) 학교 교육과정 평가에 근거하여 학년·학급 교육과정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참고한 자료>

1. 2013년 조현꿈자람 교육과정
2. 2013 행복을 나누는 서화교육
3. 2013 아름다운 사람과 행복한 배움을 향한 아야진 교육
4. 2013 호반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
5. 2013 남한산교육과정
6. 2013년도 교원업무정상화 종합계획(강원도교육청)